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 전략

일 시 | 2015년 7월 22일(수) 14:00~17:00

장 소 | 군산시 보건소 (대회의실)

주 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군산시 ·
(사)들꽃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 전략

세 / 부 / 일 / 정 /

14:00-14:10	☞ 개회식 - 인사말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 환영사 : 군산시장, 청소년자치연구소 전문위원장
1부 14:10-14:55 (1인 발표시간 : 15분)	☞ 발표 사회 : 이지수 교수(군산대학교) 1.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 계획 및 향후 추진 방향 - 발표자: 서동석 과장 (군산시 어린행복과)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및 추진전략 개발' 연구개요 - 발표자: 오해섭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과제 - 발표자: 정건희 소장(청소년자치연구소) 4. 외국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운영 실태 분석 - 발표자: 박선영 교수(한국체육대학교)
14:55-15:25	☞ 토론: 토론자 1 : 강성옥 의원 (군산시의회/발표1내용) 토론자 3 : 최호석 (청소년옴부즈퍼슨/발표3내용) 토론자 4 : 김웅수 교수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발표4내용)
15:25-15:45	☞ 휴식
2부 15:45-16:45 (1인 발표시간 : 15분)	사회 : 오해섭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모형개발 -발표자: 박주현 박사(대구가톨릭대학교) 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네트워크 구축 방안 -발표자: 김주희 박사(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관리 및 운영 방안 -발표자: 김세광 교수(고신대학교)
16:45-17:05 (1인 발표시간 : 10분)	☞ 토론: 토론자 4 : 김정주 박사(모든학교체험학습연구소 /발표5,6내용) 토론자 5 : 배정수 박사(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발표7내용)
17:05	☞ 종합토론 및 폐회: - 사회자 오해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발표자와 토론자, 외부 참석자 전원

차 / 례 /

■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 계획 및 향후 추진 방향	1
- 발표자 : 서동석 (군산시 어린이행복과 과장)	
- 토론자 : 강성옥 (군산시의회 의원)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및 추진전략 개발’ 연구개요	17
- 발표자 : 오해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과제	39
- 발표자 :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 토론자 : 최호석 (청소년옴부즈퍼슨)	
■ 외국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운영 실태 분석	57
- 발표자 : 박선영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토론자 : 김웅수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모형개발	87
- 발표자 : 박주현 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 토론자 : 김정주 박사 (모든학교체험학습연구소 소장)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네트워크 구축 방안	107
- 발표자 : 김주희 박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토론자 : 김정주 박사 (모든학교체험학습연구소 소장)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관리 및 운영 방안	143
- 발표자 : 김세광 (고신대학교 교수)	
- 토론자 : 배정수 박사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부관장)	

개 / 회 / 사

초록의 싱그러움이 깊어가는 7월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군산시, 그리고 (사)들꽃 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가 공동으로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하고 지원해주신 군산시장님, 강성옥 시의원님, 이강휴 전문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정 관계자님들, 교수님들, 학생들, 그리고 학계와 현장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의 중점과제의 한 영역으로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을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실천과제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선정 및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청소년 친화환경을 조성하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하고 홍보할 것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국무총리실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13년부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를 연속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금년도에는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시범사업 시행(1차 년도)과 추진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군산시의 ‘어린이 행복도시’와 시범사업 현황을 비롯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포럼의 진행과 발표를 맡아주신 군산대학교 이지수교수님, 군산시 서동석 과장님, 청소년자치연구소 정건희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을 내어 발표를 맡아주신 박선영 교수님, 김주희 박사님, 김세광 교수님, 박주현 박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아울러 토론을 맡아주신 강성옥 시의원님, 김응수 교수님, 최호석님, 김정주 박사님, 배정수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포럼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과 군산시 청소년자치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포럼을 통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과 추진전략’ 개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고 나아가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모색되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7월 22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축 / 사 /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장 문동신입니다.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처럼 초록이 짙어가는 잎새와 풀잎이 바람에 나풀거리는 싱그러운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여름의 초입에도 불구하고 포럼개최를 위해 우리 군산을 방문해 주신 노 혁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여러분들께 군산시민을 대표하여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포럼은 어린이·청소년 생활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면서 어린이·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새롭게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산시는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어린이 행복증진을 위한 맞춤형 인프라와 콘텐츠 개발로 군산시의 발전을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린이가 안전하면 어른이 안전하고, 어린이가 행복하면 어른도 행복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귀중한 포럼을 통하여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지역 사회 조성의 기틀이 마련되길 바라며, 많은 분들의 좋은 의견이 도출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22일
군산시장 문 동 신

환 / 영 / 사

안녕하십니까? 이강휴입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환경, 도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명품 도시는 도시가 화려하고 문화공간이 많아야만 명품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명품이 되면 명품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명품이 되는 것은 내가 이 도시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 살아갈 용기, 살아갈 의미를 발견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군산에 청소년들을 위한 포럼과 저희 청소년자치연구소가 시작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 연구소는 지역 청소년, 후원하시는 분들, 전문위원, 그리고 연구원이 스스로 자립하고 자치를 하는 곳입니다. 청소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주체로서 가치를 가지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군산은 쉽게 바꿀 수 없지만, 군산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포함한 우리들은 현재 나의 경험에 어떤 의미부여를 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자치연구소는 지역 청소년들의 플랫폼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곳 청소년 자치 연구소에 많은 청소년들이 지나쳐 갈 것입니다. 이곳을 지나간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되고 우리 지역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들이 있다면 더욱 의미 있고 뜻 깊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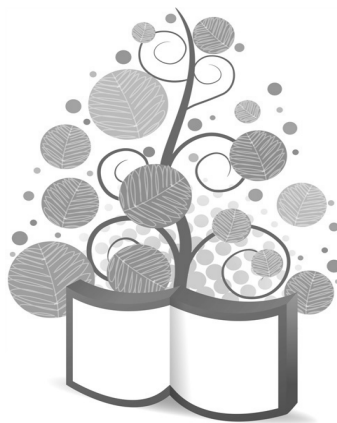
본 포럼 또한 이러한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특히 저희 청소년자치연구소가 개소식을 하는 날입니다. 의미 있는 포럼에 함께 하고 저희 연구소와 청소년자치공간 개소식에 함께 열리게 된 점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신 군산시장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분들과 이 자리를 함께 하며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7월 22일
청소년자치연구소
전문위원장 이 강 휴

발 표 1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 계획 및 향후 추진 방향

- ▶ 발표자 : 서 동 석 (군산시 어린이행복과 과장)
- ▶ 토론자 : 강 성 옥 (군산시의회 의원)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 계획 및 향후 추진 방향

서 동 석(군산시 어린행복과 과장)

I.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배경

■ 민선6기 공약사항 군산은 어린이를 키우고, 어린이는 군산의 가치를 키운다!

- 어린이가 존중받는 사회, 어디를 가나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체험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도시 조성
- 어린이가 안전하면 어른도 안전하고, 어린이가 행복하면 어른도 행복한 도시 조성
-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모든 주민들이 안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행복도시 군산 조성

※ 어린이 행복도시?

- 어린이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어린이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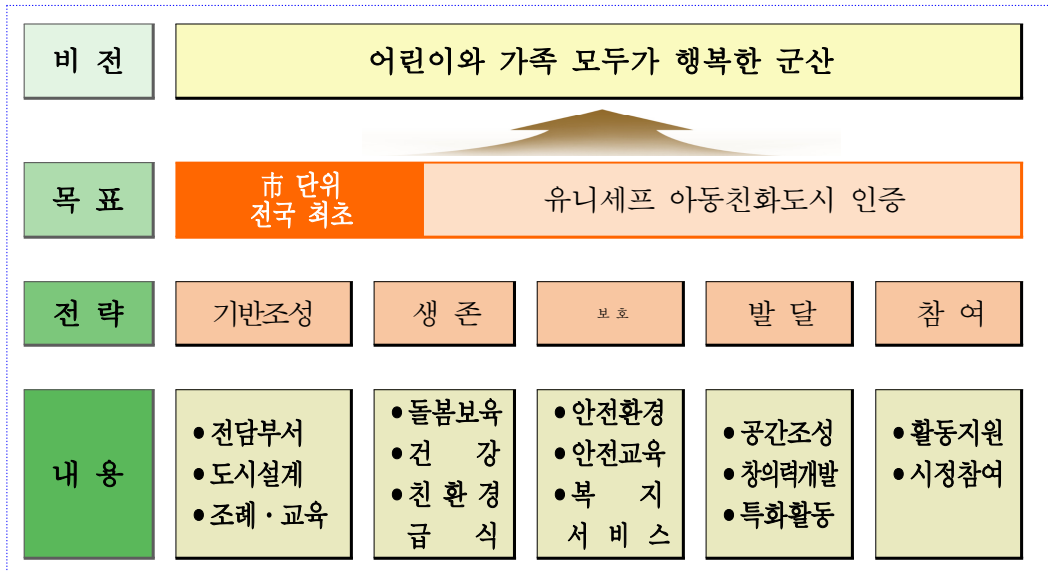
Ⅱ.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방침

-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市 행정추진으로 패러다임 전환
-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창의력 개발시책 적극 추진
- 시민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으로 년도별 차질 없는 추진
-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어린이와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조성

Ⅲ. 사 업 개 요

- 대 상 : 18세 미만 아동(영·유아·초등학생, 중·고생)
- 사 업 비 : '14~'18년까지 5년간 1,045억원(국 387, 도 169, 시 489)
- 사 업 수 : 60개 사업
- 사업분야 : 돌봄, 보육, 건강, 친환경급식, 안전환경(교육), 복지 서비스, 발달, 참여

IV. 비전 및 전략



V. 추진계획

제1단계 (2014년)	계획단계	•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 T/F팀 구성 •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 과제 공모·발굴 • 어린이 행복도시 시민 공감대 형성 홍보 • 주요사업 프로젝트 및 소요재원 확보방안 마련
제2단계 (2015년)	추진단계	• 어린이 행복도시 전담부서 신설 • 인프라 구축사업 및 지원사업 본격추진 •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 조례제정 •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등
제3단계 (2016년)	완성단계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 어린이 행복도시 운영평가 및 환류 • 행복도시 지속성 확보 및 발전방안 반영

추진과제		담당부서	비고
1. 행정기반 조성			
	1. 어린이 행복담당과 설치	총무과	신규.공약
	2.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어린이행복과	신규.공약
	3. 어린이 친화도시 조례 제정	어린이행복과	신규.공약
	4. 어린이 홈페이지 구축	어린이행복과	신규
	5. 어린이 중심 도시설계	도시계획과	신규.공약
	6. 시민인식전환 학부모강좌(교육)	인재양성과	신규
2. 생존분야			
2-1. 아동돌봄사업			
	7. 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	어린이행복과	확대
	8.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사확대	어린이행복과	확대.공약
	9. 아이돌봄 지원사업 강화	가족청소년과	확대
	10. 방문 아이 돌보미 확대	가족청소년과	확대.공약
	11. 아동 급식 지원 확대	어린이행복과	확대
	12.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	복지지원과	확대.공약
	13. 산모 신생아 돌봄서비스 확대	건강관리과	확대.공약
2-2. 보육사업			
	14.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	어린이행복과	신규
	15. 어린이집등 보육시설 확대	어린이행복과	확대.공약
	16.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대	어린이행복과	확대
	17. 국공립 영유아 보육교사 확대	어린이행복과	확대.공약
2-3. 건강사업			
	18. 어린이 건강관리실 운영	건강관리과	신규.공약
	19. 어린이 건강지킴이협의회 구성운영	건강관리과	신규.공약
	20. 어린이 재활센터 설치 운영	건강관리과	신규

VI. 분야별 추진과제

【5개 분야 60개 추진과제】

추진과제		담당부서	비고
1. 행정기반 조성			
	1. 어린이 행복담당과 설치	총무과	신규.공약
	2.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어린이행복과	신규.공약
	3. 어린이 친화도시 조례 제정	어린이행복과	신규.공약
	4. 어린이 홈페이지 구축	어린이행복과	신규
	5. 어린이 중심 도시설계	도시계획과	신규.공약
	6. 시민인식전환 학부모강좌(교육)	인재양성과	신규
2. 생존분야			
2-1. 아동돌봄사업			
	7. 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	어린이행복과	확대
	8.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사확대	어린이행복과	확대.공약
	9. 아이돌봄 지원사업 강화	가족청소년과	확대
	10. 방문 아이 돌보미 확대	가족청소년과	확대.공약
	11. 아동 급식 지원 확대	어린이행복과	확대
	12.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	복지지원과	확대.공약
	13. 산모 신생아 돌봄서비스 확대	건강관리과	확대.공약
2-2. 보육사업			
	14.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	어린이행복과	신규
	15. 어린이집등 보육시설 확대	어린이행복과	확대.공약
	16.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대	어린이행복과	확대
	17. 국공립 영유아 보육교사 확대	어린이행복과	확대.공약
2-3. 건강사업			
	18. 어린이 건강관리실 운영	건강관리과	신규.공약
	19. 어린이 건강지킴이협의회 구성·운영	건강관리과	신규.공약
	20. 어린이 재활센터 설치 운영	건강관리과	신규

추진과제		담당부서	비고
	21.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가족청소년과	기존
2-4. 친환경 급식			
	22.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센터 운영	농산물유통과	신규
	23.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환경위생과	확대
	24. 학교급식 안전성 점검강화	농산물유통과	확대
3. 보호 분야			
3-1. 안전 환경 조성			
	25. 어린이 안전체험시설 운영	교통행정과	신규.공약
	26. 어린이 수상 안전교육	체육진흥과	신규.공약
	27. 어린이 안전인프라 확충	교통행정과	확대,공약
	28.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관리	환경위생과	기존
	29. 생활안전지도 제작	안전총괄과	신규.공약
	30. 네트워킹을 통한 학생안전지역구축	군산교육지원청	신규
3-2. 안전 교육 실시			
	31. 어린이 재난안전 교육	안전총괄과	신규
	32. 어린이 안전체험(교통·지진등) 교육	교통행정과	신규
	33.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건설과	신규
3-3. 복지 서비스			
	34.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어린이행복과	확대
	35.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가족청소년과	확대
	36. 저소득층자녀 희망스터디 사업	주민생활지원과	신규.공약
	37. 위기가정내 아동 우선지원	주민생활지원과	확대
4. 발달 분야			
4-1. 공간 조성			
	38. 어린이전용 다목적구장 조성	체육진흥과	신규

추진과제		담당부서	비고
	39. 어린이 스포츠교실 운영	체육진흥과	확대
	40. 자연환경 체험 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	환경위생과	신규
	41. 친환경 어린이 꿈의공원 조성	산림녹지과	신규.공약
	42. 군산 교육센터 건립	인재양성과	신규.공약
	43. 어린이가 행복한 도서관 만들기	시립도서관	확대.공약
	44. 학교숲, 어린이숲 확충	산림녹지과	확대
	45. 청암산 유아숲 체험활동 지원	산림녹지과	신규.공약
4-2. 창의력 개발			
	46.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운영	인재양성과	확대
	47. 장남감 실내놀이터 운영	어린이행복과	신규
	4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예술의전당	신규
	49. 어린이 장서 확충	시립도서관	확대
	50.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 운영	시립도서관	확대
4-3. 특화 활동			
	51. 청소년수련관(어린이극장) 운영	가족청소년과	신규
	52.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인재양성과	확대
	53. 어린이 글로벌 해외연수	인재양성과	확대
5. 참여 분야			
5-1. 활동 지원			
	54. 어린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철새생태관리과	신규
	55.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가족청소년과	확대
	56. 어린이 독서축제 한마당	시립도서관	신규
	57. 어린이 페스티벌, 재능경연대회 개최	어린이행복과	신규
5-2. 시정 참여			
	58. 어린이 청소년 의회 운영	어린이행복과	신규
	59. 홈페이지 어린이방 운영	어린이행복과	신규
	60. 어린이가 참여하고 만드는 우리학교(공모)	어린이행복과	신규

VII. 추진결과(실적)

-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 T/F팀 구성·운영 '14. 7월
-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설문조사 '14. 10월
- 시민 제안 접수 및 시정발전기획단 정책 토론 '14. 8월 ~
- 개그우먼 김지선 초청 어린이행복 보육콘서트 '14. 10월
- 시민 인식전환을 위한 군산시장 특강 '14. 11월
- 유니세프 오종남 사무총장 초청 특강 '14. 12월
- 전국 기초지자체 중 전담부서(어린이행복과) 최초 신설 '15. 1월
- 유니세프·군산시 아동친화도시조성 업무협약 체결 '15. 2. 5
- 어린이 행복도시 시정 설명회 '15. 2. 16
- 어린이 시설물 전수조사 '15. 2 ~ 3월
- 어린이 행복만족도 설문 및 분석 '15. 2 ~ 4월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조성 업무협약(군산시·청소년자치연구소) '15. 3. 12
- 아동청소년 안전도시 업무협약(군산시·경찰서·소방서·교육지원청) '15. 3. 17
- 네덜란드, 덴마크 아동친화도시 해외연수 15. 3. 22 ~ 28
- 어린이 행복예산서 발간 '15. 4월
-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15. 4. 30
-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발대식 '15. 5. 4
- 어린이 행복도시 선포식 '15. 5. 5

VIII. 향후 추진방향

■ 시 단위 최초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정 관련 자체 자가평가 실시
-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관련 정책 발굴
- 어린이 권리선언문 제정·선포
-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제정
-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어린이 행복도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사업 총괄 추진
-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및 추진상황 점검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 및 획득
- 어린이 행복도시 운영평가 및 환류
- 어린이 행복도시 지속성 확보 및 발전방안 반영

참 고

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FC) 인증
2. 아동친화도시 선정(인증) 10가지 원칙
3.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참고 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FC) 인증

- 인증시기 : 수시
- 인증절차 : 자치단체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신청(증빙서 첨부)
 - ▶ 유니세프 심의위원회 검토·평가(보완·조치) ▶ 인증
- 인증기간 : 3년 유효(2년마다 중간보고서 제출) ▶ 재인증
- 인증혜택 : 어린이친화도시 로고 사용



참고 2

아동친화도시 선정(인증)10가지원칙

1	아동의 참여	6	아동관련예산 확보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함.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함.	
2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7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함.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함	
3	아동권리 전략	8	아동권리 홍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 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함.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함.	
4	아동권리 전담기구	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함.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 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 옴부즈맨이나 어린이 청소년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함.	
5	아동영향평가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 해야 함.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함.	

참고 3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제 4 조(기본계획 수립 등)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1. 어린이 행복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어린이 행복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어린이 행복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행복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행복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 조(어린이 행복도시의 조성 기준) 어린이 행복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

1. 모든 어린이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2.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어린이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어린이는 교육·여가·문화생활·현장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어린이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어린이는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성숙한 시민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6. 어린이가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 6 조(어린이를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도로·교통·공원·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 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

1. 어린이 보행 편의
2. 어린이의 안전성 검토
3. 어린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대
4.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6. 어린이 동승차량 전용 주차구역 설치

제 7 조(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 어린이가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1. 어린이 환경 및 범죄 예방 안전망 구축
2.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 8 조(어린이 건강증진) 어린이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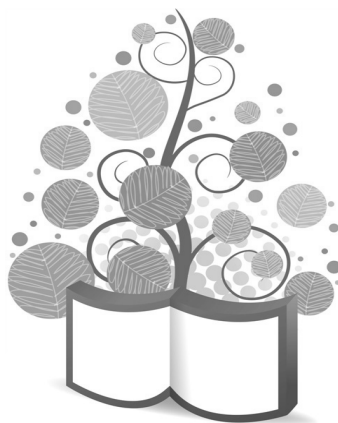
제 9 조(추진위원회 설치)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

발 표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및 추진전략 개발’ 연구 개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 결과 및 추진전략 개발

▶ 발표자 : 오 해 섭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및 추진전략 개발’ 연구개요

오 해 섭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 추진 배경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수준과 삶의 만족도는 조사 대상 국가들 중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4년 한국의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74.0점으로 2009년 64.3점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염유식, 김경미, 이미란, 이진아, 2014:23). 또한 2011년 발표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에서 행복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한국은 9.4%로 프랑스 45.9%, 영국은 45.3%, 스웨덴은 43.2%, 핀란드 37.8%, 미국 36.6%, 일본 30.1%, 독일 26.7%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The World Values Survey, 2011, 관계부처합동, 2012:19 재인용).

이렇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수준이 낮은 직접적인 이유로는 경쟁위주의 학업과 수면부족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을 꼽고 있다. 또한 김영한, 임영식, 김민(2014)은 높은 청년실업률과 불안정한 장래도 청소년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높은 이혼율에 따른 조손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증가 등을 비롯하여 사회적 양극화 현상도 주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례로, 유니세프(UNICEF)는 1996년부터 ‘청소년 친화 도시 발의 (CFCI: 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를 통해 ‘청소년 친화 도시와 마을(child 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약 1,300여개 도시가 이를 추진하고 있다(UNICEF, 2013; 김영한 외, 2014).

우리나라도 청소년기본법 제2조 1항에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토록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청소년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청소년의 참여 보장과 청소년 성장여건과 사회환경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청소년우대, 청소년의 건강 보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위기청소년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부터는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핵심 정책영역으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핵심과제로 선정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과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김영한 외,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정책의 현 주소는 영역별 정책목표와 이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만이 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을 뿐, 이러한 정책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적인 연구와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금년도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 지역을 선정하여 청소년 친화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사업 추진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전국 광역별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별 결과’에서 부산, 인천, 제주, 서울, 전남, 강원, 광주, 대구, 경기 순으로 지표 점수가 나타났으며, 군산시가 속해 있는 전북은 최하위에서 세 번째에 위치해 있다. 전라북도(군산시 등)는 전국에서도 청소년 행복지수는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본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발전 요인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추진전략을 도출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추진 근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의 시의성과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표 I-1>과 같이 요약 하였다. 먼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노력으로 2002년 아동에 관한 유엔 특별 세션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국가의 정책, 법, 사업과 예산에 현실적으로 반영할 것을 권고 하였다. 2013년 유엔(UN)과 유니세프(UNICEF)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에서 각국이 ‘청소년

년 친화적 환경 조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니세프는 2004년 발표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의 9개 기본 원칙에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조치’를 추가하여 10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김지경, 하현주, 김옥태, 2014:59-61).

국제기구의 이러한 노력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청소년기본법[법률 제13180호, 2015.2.3., 일부개정][시행 2015.5.4.] 2조의 기본이념에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제5조에서는 “①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와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5년 2월 전문개정을 통하여 14조에서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관련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 강화 및 증거 기반 정책 추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15개 중점과제 중 41.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지표 개발 및 선정」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선정 및 모니터링단 운영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청소년 친화환경을 조성하도록 점진적 유도 및 홍보”를 명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년도 시범사업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4년 연구과제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사사업 연구II’에서 2015년도 연구사업 중 연도별 사업 내용으로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시범사업 시행(1차 년도) 및 추진전략 연구’에 근거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2015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군산시는 이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및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 절차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의 우호적인 기반이 조성된 상황이었다.

표 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추진 근거

구분	주요내용	자료 출처
2002년 아동에 관한 UN 특별 세션	○ 지방정부와 자치단체장들이 개발과 관련한 아젠다(agenda)를 논의하는데 있어, <u>아동·청소년을 반드시 그 중심에 두어야 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정책, 법, 사업과 예산에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그들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음.</u>	김지경, 하현주, 김옥태 (2014.5.9 -6.1)
국제연합(UN)과 유엔국제아동구호 기금(UNICEF) 중심 국제사회 (2013)	○ 각국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강조하는 사항으로 과정이 ' <u>청소년 중심적 접근(youth-centered approaches)</u> '에서 출발할 것을 천명	
UNICEF 아동·청소년 친화 도시 (Child-Youth Friendly Initiative) 구축의 기본 원칙 (2014)	○ 10가지 기본 원칙: ① <u>아동·청소년의 참여</u> , ② <u>아동·청소년 친화적인 법체계</u> , ③ <u>아동·청소년 권리전략</u> , ④ <u>아동·청소년 권리 전담기구</u> , ⑤ <u>아동·청소년 영향평가</u> , ⑥ <u>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확보</u> , ⑦ <u>아동·청소년 정기 실태보고서</u> , ⑧ <u>아동·청소년의 권리 알리기</u> , ⑨ <u>아동·청소년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u> , ⑩ <u>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조치</u>	
청소년기본법 [법률 제13180호, 2015.2.3, 일부개정] [시행 2015.5.4.]	○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u>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u>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2.3.> 1. <u>청소년의 참여 보장</u> 2. <u>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u> 3. <u>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u>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u>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u>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u> 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3.24.] ○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	국가 법령 정보 센터 (2015. 6.5, 검색) http://www.law.go.kr

구분	주요내용	자료 출처
	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3.24.]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2.3.]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13~2017]	※ 청소년기본법 제13조, 14조, 15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국가기본계획 ○비전: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5대 영역 15개 중점과제(75개 세부과제) 중 중점과제 4-1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선정 -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선정 및 모니터링단 운영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청소년 친화환경을 조성하도록 점진적 유도 및 홍보를 명기함	제5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관계부처 합동)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 사업 연구Ⅱ: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추진계획 1단계(2013-2017): 기초연구 및 시범사업 단계 ○ 2015년도 연구사업[연도별 사업] 내용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시범사업 시행(1차년도)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추진전략 연구	김영한, 김민, 임영식 (2014. 7)

구분	주요내용	자료 출처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4. 3]	▶ 제1조(목적)(보완)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어린이 행복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어린이가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 4. 8. 검색) http://www.law.go.kr

3. 시범사업 추진 기조 및 사업 내용

1) 추진 기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또한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전에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도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계획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비전과 목적을 설정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내외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사정에 적합한 모델을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모형을 구상하고 구체적인 추진방향, 기본 요건, 조성 기준 및 평가지표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추진 시 고려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다음 단계로 지역 여건과 참가자들의 특성,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과 자원 등을 고려하여 실천적인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과 설계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2015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조가 될 수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세 가지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배규한, 2014:124-125). 다만 이러한 관점은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에서 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학습과 경험의 정도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는 바이다.

첫째는 주체론적 시각이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체적으로 행사하고 사회적 지위를 주도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시각이다.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일 뿐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이들의 주체성과 주도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율론적 시각이다. 청소년은 아직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발달단계에 있지만 스스로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미성년자라고 하여 미성숙한 존재라는 고정관념과 잘못된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한다. 청소년들은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과 의사결정과정에서 그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미래지향적 시각이다. 이것은 청소년이 스스로 미래 정보사회에 부응하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국가와 지역사회는 그들이 미래지향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잠재력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2)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유형 및 역할

체코웨이(1998)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참여 형태를 “자생적 청소년조직, 청소년개발기관, 근린 지역사회중심 청소년사업, 근린 지역사회 개발조직, 시민운동집단” 등으로 구분하였다(김정주, 1999, 천정웅, 2014:126-127 재인용).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현실에 다소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자생적 청소년조직과 정부, 학교,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등이 주도하는 비자생적 청소년 조직에 한정하여 특성과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자생적 조직은 지역사회 단위에서 청소년들이 주도하여 조직화하는 자발적인 청소년활동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조사한 후 해결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거나 봉사활동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학교나 지역사회 청소년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동아리 및 동호회와 같은 형태로 조직화 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들은 자생적인 조직화 과정을 통하여 성인들과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며,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적인 시각과는 달리 지역사회 단위에서 청소년들이 자생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는 몇몇 장애요인들이 있다(천정웅, 2014:128). 첫째,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의 시스템과 성인들의 지배구조,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채널과 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치 않다. 둘째, 청소년들이 주도하여 조직을 결성하는 경우 활동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 어른들에 비해 관련 조직, 제도적 지원 기반, 사회참여 기회 및 자격 등이 제한적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조직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활동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하여 성인들이 지지와 지원을 통해 협력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하거나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청소년들을 지역사회 시스템과 제도에 대한 접근과 참여를 거부하거나 단지 상징적인 수준에서만 참여를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저항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먼저 성인들에게 다가가 자신들의 조직화를 통한 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정중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의 한 영역인 “어르신(가족)과 청소년인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하여 청소년과 성인 간의 협력관계(파트너십)를 형성하려는 노력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유니세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청소년 행복도시”와 같은 공식적인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조항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근거로 자신들의 권리행사와 참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청소년행정부처를 비롯하여 학교와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등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청소년조직은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성인기를 준비하여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천정웅, 2014).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의 청소년시설 및 단체들은 청소년들을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생산성 있고 책임감 있는 자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현재 국가주도의 조직으로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이 청소년

년정책기구로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구들이 청소년이 청소년정책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관련 부처의 정책 대안 창출 및 추진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반면, 이러한 기구들이 청소년들을 당당한 사회적 주체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부여했다기보다는 제한된 범위에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여전히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혜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가주도의 공식기구 이외에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동아리, 청소년 기자단, 청소년모니터단, 청소년멘토 등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은 청소년들을 프로그램의 운영자이면서 수혜자로 간주하여 구성원들의 역할을 통해 조직 내에서 소속감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청소년들 모두 혹은 청소년 대표를 위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청소년들 스스로 다양한 체험과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능력향상과 더불어 자신의 진로와 직업역량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청소년참여의 영역에서 청소년들이 실제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은 의사결정자, 기획자, 상담자, 교육자, 모니터 및 평가자, 옹호자 등 매우 다양한 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국내 정치, 경제, 사회제도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가정, 학교 및 여타의 공동체적 생활 속에서 자신과 관련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작·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가정과 사회참여 영역은 <표 II-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또래중심 참여, 지역중심 참여, 정책과정 참여, 단체자율 참여, 사이버(cyber) 참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천정웅, 2014:131-132).

3) 시범사업 영역 선정 과정 및 추진 내용

표 II-1 청소년참여 영역별 주요 활동

주요 영역	국내 동향	외국 동향	특성
또래중심 참여	· 또래 상담 · 21세기 선발대 · 베세토 어드벤처	· 전국고교생의 주장(일본) · 젊은이의 도전(프랑스) · 청소년법정활동(미국)	자주/자립적
지역중심 참여	·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 · 지역문제해결 참여활동	· 청소년과 성인 민주포럼(프랑스) · 타운미팅(미국)	책임/협력적

주요 영역	국내 동향	외국 동향	특성
정책과정 참여	· 청소년창안(공모)제 · 시책 모니터단 활동 ·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 도지사와 청소년 대화	· 청소년위원회(미국) · 지역청소년위원회(영국) · 청소년자문위원회(프랑스)	직접/쌍방적
단체자율 참여	· 청소년토론의 광장 · 청소년기자단 활동	· 청소년 토론회(미국) · 청소년운영신문 발간 (네덜란드)	자생/정기적
사이버 참여	· 웹진 시범 제작 · 다양한 PC 통신 토론	· 다양한 웹진 활동 · 활발한 인터넷 토론	공개/자유적

출처: 천정웅(2014). 청소년참여론: 「P01론」의 청소년학. P. 138

2015년도 시범사업의 영역 선정은 2014년도 연구보고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의 내용 중 제Ⅵ장 세부추진사업 7개영역[경제, 건강(복지), 안전, 교육, 관계, 활동, 참여]을 참고하였다(김영한 외 2014). 먼저 연구진 회의를 거쳐 7개 세부사업추진 영역 중 3개 영역(경제, 관계, 참여)을 금년도 시범사업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2014년도 보고서에 제시된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세부추진사업’에 관한 전체 내용을 연구자가 고찰하고 분석한 다음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시의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3개 단위 사업을 선정하였다. 먼저 경제영역은 보고서에 제시된 7개 단위사업 중 ‘청소년 상설 프리마켓 시범사업’의 내용을 원안대로 반영하였다. 반면 참여영역은 원 보고서에서 제시된 4개 세부사업 중 ‘지역 옴부즈맨제도’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이라는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청소년 옴부즈맨 기구 시범 설치 운영’으로 사업명을 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관계영역은 원 보고서에서 제시한 7개 세부사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감안하여, ‘어르신(부모)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범위를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앞서 추진기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의 기획과정에서부터 운영 및 평가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운영 주체가 청소년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이들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다음은 3개 세부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의미와 목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 상설 프리마켓 운영

① 사업 목적 및 의의

청소년들에게 자발적인 경제활동 참여 유도를 통하여 자신감과 성취감을 향상시키고 스스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한다. 동시에 일정한 규모의 안전한 공간을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으로 프리마켓 상설화를 통해 또 다른 형태의 청소년문화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유도한다(김영한 외, 2014). 프리마켓의 사전적 의미는 자유 시장, 벼룩시장(flea market), 프리 바자(free bazar)라고도 불리며, 안 쓰는 물건의 교환이나 판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네이버사전, 2015.05.11 검색).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참가 청소년들이 안 쓰는 물건의 교환이나 판매 행위를 넘어 아이디어 상품이나 소규모의 창작물 등을 판매하면서 문화공연을 포함하여 청소년활동을 병행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자 한다.

한편, 이 주제는 최근 “고용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노동시장 진입 장벽의 심각성에 직면하고 있는 젊은 층과 미래세대에게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 마인드를 촉진시킬 수 있다(오해섭 외, 2014:3)”는 측면에서도 시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프리마켓과 같은 소규모 사업운영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경제관념과 자립심 강화뿐만 아니라 도전정신, 성취감, 문제해결능력, 비즈니스 마인드 등도 함양시킬 수 있다.

②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김영한 외, 2014:172 참조)

- 청소년을 위한 프리마켓이 일회성 혹은 단발성 행사로 운영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 읍면동 단위별 주1회 정도의 상설 프리마켓 형태로 운영
- 청소년 상설 프리마켓 시범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사업비 확보
- 프리마켓 운영을 위한 지역 내 가계와 협약 및 별도의 근거리 공간 조성
- 프리마켓과 문화공연 운영을 위한 참가 청소년 모집
- 정기적인 프리마켓 참가 청소년에게 일정한 사업체 명칭 부여
- 프리마켓 참가비와 수익금에 일정액을 지역사회에 기부
- 프리마켓 운영 시 정기적인 청소년문화공연 병행 실시 유도

③ 사업 기대효과(김영한 외, 2014:172 참조)

- 청소년들에게 경제관념과 자립심 강화
- 지역사회에 기부를 통한 봉사정신 함양
- 프리마켓 운영과 문화 활동을 통한 협동심 함양

(2) 청소년 옴부즈맨 기구 설치 및 시범 운영

① 사업 목적 및 의의

“국가행정 부문에서 옴부즈맨(Ombudsman, 행정감시관제) 제도는 주민의 입장에서 정부와의 접촉을 통해 주민의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주민 근접행정의 도구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옴부즈맨제도가 아동과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는 몇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천정웅, 2014:283). 그 중에서도 노르웨이는 1981년 세계 최초로 아동문제 옴부즈맨이 왕에 의해 임명된 것이 그것이다. 아동을 위한 옴부즈맨의 임무는 아동의 이익을 촉진하고, 아동이 성장하는 환경에 대해 추적하는 것이다. 옴부즈맨은 사회의 각 분야를 모두 주시하면서 아동에게 해로운 일에는 경고를 하고, 아동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는 제안을 한다(이재연, 1997, 천정웅, 2014 재인용).

청소년들의 권익은 청소년 스스로가 지켜 나가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선거권이 없는 관계로 자신을 위해 정치가를 선출할 수도 없고, 법체계 내에서 자신을 변론할 수도 없으며 증언이 거의 신뢰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 옴부즈맨 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고충사안을 접수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과 성인의 상담을 받고, 지역 단위의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거나 제공하며, 청소년의 권리라는 기준에 근거하여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정치가들의 법규와 규정상의 변화를 제안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새로운 법규의 필요성에 대해 조언하는 일도 하게 되는 것이다(천정웅, 2014).

이러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보하고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김영한 외, 2014:248). 더불어 세대 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창구이면서 통합과 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김영한 외, 2014:248-249 참조)

- 지자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활동, 복지, 문화, 안전, 교육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조사와 토론을 거쳐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점을 찾아 이를 지자체에 제안함
- 해당 지역 내 학생회 대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 운영위원회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 정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실시 후 분과별 운영
- 청소년들의 제안 내용을 지자체에서 부서별로 검토 후 수용 및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조례제정 등) 마련 촉구

③ 사업 기대효과(김영한 외, 2014:248 참조)

- 청소년의 자치적 참여 능력 강화 및 사회문제와 청소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제고
- 지역사회 구성 주체로서 민주시민의식 배양
-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3) 어르신(부모)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① 사업 목적 및 의의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확산, SNS 활성화와 같은 디지털시대에 익숙한 청소년들과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기성세대 간의 의사소통의 형태가 바뀌고 직접적인 대면 기회는 줄어들고 있다. 김난도 외(2014:346)는 “개인적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 인해 가족관계와 대인관계의 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기보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학업, 직장 및 가사 등으로 청소년들과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도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가족의 건강한 유대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과 어르신들 간의 같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잠재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유도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는 실천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김영한 외, 2014).

영국의 경우 ‘인종·지역 및 사회 간 통합을 위한 연령교환극장(Roots, communities and social inclusion: Age Exchange Theatre)’과 ‘세대차 극복을 위한 다리 놓기(Building Bridges)’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기획하고 공연하는 과정을 통해 세대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영지, 전경숙, 김민, 김세진, 2003).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들어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청소년 시설 및 단체 등에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다(네이버, 2015.05.12 검색).

이러한 관점에서 ‘어르신(부모)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세대통합’이라는 담론을 지역단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되었음을 밝혀 둔다.

[청소년-어르신 세대통합 프로그램 관련 신문기사]

○ 경상남도 통영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대통합 프로그램

- 시니어와 주니어가 함께하는 문화공감지대-

통영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김종봉)는 통영시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해 2011년 12월 26일~27일 1,3세대 통합 프로그램 ‘시니어와 주니어가 함께하는 문화공감지대’를 진행했다.

1세대는 통영시노인복지회관 어르신 20명, 3세대는 통영중학교와 통영여자중학교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총 2회기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1세대(노년기)와 3세대(청소년기)가 서로의 문화를 알고 가치관의 격차를 줄여 세대 간에 상호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세대통합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본 프로그램 1회기에는 ‘세대, 다가가다!’라는 주제로 1세대와 3세대가 만나 인사를 하고, 짝을 이루어 포크댄스와 칭찬대회시간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누며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2회기에는 ‘세대, 친해지다!’의 주제로 보다 활동적인 팀별 레크레이션 댄스를 배워보고 발표해보는 시간과 썰매타기 놀이를 통해 세대초월 동심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참가자들이 처음엔 낯설고 어색해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세대 차이는 온

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온기 속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참여자 중 청소년들은 ‘평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잘 찾아뵙지 않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더 가까워진 것 같다’, ‘할아버지가 없어서 할아버지에 대한 정이 없었는데, 이틀 동안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라고 전했으며, 어르신들은 ‘학생들의 행동은 어른들을 가르칠 정도였다’, ‘노인과 청소년 사이에 있어 유대관계가 매우 만족스럽게 여겨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출처 : 굿데이뉴스(2012-01-02 등록, 네이버 2015-05-12 검색)

○ 경기도 이천시 청소년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보람잔치

이천창전청소년문화의집(관장 경만수, 운영 한국BBS이천시지회)에서는 이천중앙로타리클럽(회장 이규득)에서 지원을 받아 지난 2월 28일 부발읍 무촌2리 마을회관에서 ‘청소년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보람잔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이천중앙로타리클럽에서 지원하고 창전청소년문화의집에서 계획했으며, 대한노인회, 이천시문해교사모임 ‘마중물’에서 후원하여 부발읍 무촌2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총 7회 차의 활동으로 진행된다.

‘청소년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보람잔치’는 청소년들이 전문강사로부터 염색, 네일아트, 사물놀이, 댄스 교육을 받아, 어르신들 앞에서 재능을 뽐내고, 재능을 기부하는 활동으로 진행이 되었다. 또한 청소년과 어르신이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세대 간의 이해의 기회 마련 하고, 재능기부활동을 통한 직업의식 형성의 발판 마련, 청소년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무촌2리 경로당 어르신들은 “청소년들이 염색도 해주고, 손톱도 예쁘게 관리를 해주니 너무 고맙다” “어린청소년들이 아무지게 공연도 잘하고, 상냥하고 착하다”며 아낌없는 칭찬과 박수를 보냈다.

이밖에도 창전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출처 : 미디어이천(2015-03-01 등록, 네이버 2015-05-12 검색)

②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김영한 외, 2014:224-225 참조)

- 어르신과 함께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센터, 청소년시설, 학교, 교회 등의 시설을 활용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르신과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공동 기획

- 지역의 청소년지도자, 자원봉사자, 교사 등의 도움으로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기관, 지역발전위원회, 지자체 행정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연극, 독립영화, 오페라, 콘서트, 전시회, 페스티벌, 요리실습, 춤배우기, 지역사회 유산에 관한 토론회 등등

③ 사업 기대효과(김영한 외, 2014:224-225 참조)

- 지역 내 세대 간 격차 해소 및 상호 이해의 장 마련
- 세대 간 소통 및 공감을 통한 통합문화 확산
- 지역 내 세대통합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세대갈등의 실효적인 예방과 조정 기반 마련

보고서 목차

I. 서론

1. 시범사업 추진 배경
2. 시범사업 추진 근거

II. 시범사업 운영 과정 및 효과 분석

1. 추진기조 및 사업 내용
2. 시범사업 현황 및 운영설계
3. 시범사업 주요 활동 내용
4. 시범사업 효과분석
5.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III. 국내외 사례 고찰

1. 국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관련 사례 고찰
2. 국외사례 분석

IV.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추진전략 및 운용 방안

1. 추진전략 개발 절차와 핵심원리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실행체계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추진 로드맵
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영역별 실천과제
5. 중앙-지역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6. 예산 및 인력 운용 방안
7. 중장기 발전 방안 및 향후 과제

IV. 결론

1. 연구 요약
2. 정책 제언

【 참고 문헌 】

- 관계부처합동 (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군산시 (2013). **제19회 군산통계연보**. 군산: 군산시청
- 김난도, 전미영, 이향은, 이준영, 김서영, 최지혜 (2014). **트렌드 코리아 2015**. 서울: 미래의창.
- 김남정(2010). 청소년 정책 참여활동의 촉진 및 장애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 법과 인권교육연구**, 3(3), 15-47.
- 김영지, 전경숙, 김민, 김세진 (2003). 선진국형 청소년수련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연구보고 03-R50). 문화관광부 ·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한, 임영식, 김민 (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연구보고 14-R15-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경, 하현주, 김옥태 (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 지역사회 진단 · 분석**(연구보고 14-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마을교육연구소 (2012).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 -대구의 마을학교 이야기-**. 대구광역시: 한티재.
- 배규한 (2014). 미래청소년보호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청소년연구**, 25(4). 113-136.
- 서종균 외 (2013). **성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연구용역보고서**. 서울: 성북구청.
- 쓰지 히데유키, 박형구 (2013). **기적의 마을 이야기**.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염유식, 김경미, 이미란, 이진아 (2014). **2014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 오해섭, 맹영임(20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활성화 방안 연구 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상희, 이혜원, 최경옥(2009). 아동,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청소년복지연구**, 11(3), 129-148.
- 이성, 정지웅 (2002). **지역사회조직론: 지역사회리더십과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서울: 학지사.
- 장근영, 이혜연, 배상률, 성은모, 이용교, 홍승애, 김균희 (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3-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천정웅 (2014). **청소년참여론: 「P이론」의 청소년학**. 경기: 양서원.
- 천정웅, 오해섭, 김정주, 김민 (2011). **청소년활동론**. 경기: 양서원.
- 천정웅 (1998). **청소년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 한국청소년개발원(편.), **청소년 자율참여와 미래**

- (pp.113-133).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황옥경, 김영지 (2011).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Betts, S., et. al.(1996). *Moving Ahead Together: What works for youth*. Washington DC.
- Lerner, R. M.(2002). *Adolescence: development, diversity, context, and application*. Upper Saddle River, NJ: practice Hall.
- Peter L. B. & Karen J. P.(2001). *Trends In Youth Development : Visions, Realities and Challenges*. London : Kluwer Academic Publishers.
- Pittman, K. J.(1992). *defining the fourth R: Promoting youth development*. Washington, DC: Center for Youth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 Pittman, K. J.(2000). Balancing the equation: Communities Supporting Youth, youth supporting communities. *Community Youth Development Journal*, 1, 33-36.

[참고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nile.or.kr>
- 군산교육지원청 <http://www.jbgse.kr/>
- 교육부. <http://www.moe.go.kr> (검색 2015.7.2.)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검색. 2015.7.6.)
- 신아일보(2015,3.23). 네이버 웹문서(검색. 2015.7.7.)
- 유니세프. www.UNICEF.or.kr (검색. 2015.7.2.)
-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검색 2015.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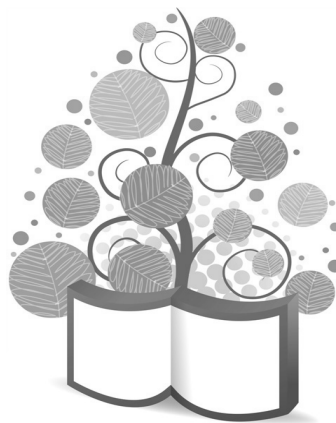
[참고법률]

-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14.3]
- 청소년기본법[법률 제13180호, 2015.2.3. 일부개정][시행 2015.5.4.]

발 표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과제

- ▶ 발표자 : 정 건 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 ▶ 토론자 : 최 호 석 (청소년옴부즈퍼슨)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과제

정 건 희 (한국자치연구소 소장)

1. 청소년 및 관련현황

1) 군산시 청소년 인구 현황 (9-24세)

<표 1> 군산시 청소년 인구현황(9세~24세)

(단위: 명)

연령	계	남	여	비고
9세~24세	54,873	28,913	25,960	

출처: 전라북도(2013), 전라북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전라북도 (2012년12월31일 기준)

○ 군산시 청소년 인구현황은 남 28,913명, 여 25,960명으로 전체 54,873명임

2) 학교(초·중·고·대) 현황

<표 2> 군산시 학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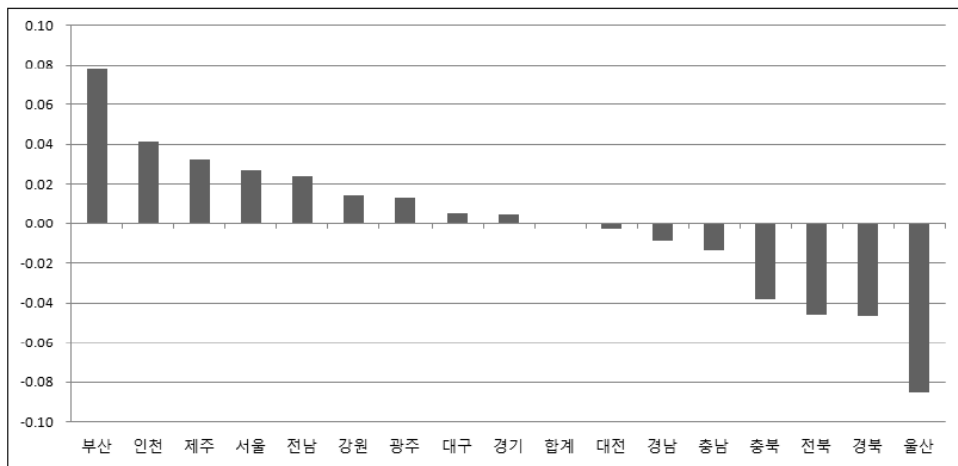
구분/학교별		학교수	학급수/학과	학생수
초등학교	국립	1	19	508
	공립	55(3)	718	15,529
중학교	공립	15	243	7,956
	사립	4	60	2,039
고등학교	공립	8	201	5,568
	사립	4	108	3,461
초중고 합계		87	1,349	35,061
대학교	국/사립	5	133	17,672
전체합계		92(3)		52,733

출처: 초중고는 군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대학은 군산시(2013), 제19회 군산 통계연보에서 발췌, ()안은 분교 숫자임

- 군산시 학교현황은 초, 중, 고등학교 87개교이며 학급수는 1,349학급이며 학생 수는 35,061명임.

대학교는 국립 1개교와 사립4개교로 133학과 17,672명으로 군산시 전체 학생 수는 52,733명임

3) 전북 군산시 행복지수 관련 현황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연구 |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그림 1> 전국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별 결과 비교(가중치 합산결과)

- 전국 광역별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별 결과에서 부산, 인천, 제주, 서울, 전남, 강원, 광주, 대구, 경기 순으로 점수를 받았으며 군산시가 속해 있는 전북은 최하위에서 세 번째에 위치해 있음. 전라북도(군산시 등)는 전국에서도 청소년 행복지수는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본 사업이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사료.

4) 군산시 어린이·청소년(18세 미만)친화도시 구축 준비 사항

- 지자체장 공약으로 전담팀 운영 및 지자체와 본 사업(청소년이 행복한 지역 사회 조성 시범사업계획)도 본 기관과 협약하여 적극적 의지를 비추고 지원 예정

- 본 기관과 함께 향후 어린이청소년행복도시를 위한 간담회 등 정책적 내용들 긴밀한 협의 구조 논의
- 군산시의 최우선 시정 정책은 '어린이 행복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와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군산시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프로그램에 동참해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기반으로 한 아동·청소년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통합 정책을 추진 예정
- 어린이·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신규 33개, 사업확대 24개, 기존 3개 사업 등 총 60개 사업에 사업비 1천45억원을 투자예정
-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 전담부서인 '어린이 행복과'를 신설

5) 청소년자치연구소(들꽃청소년세상전북지부) 사업추진 의지 및 전문성

- 모 법인인 (사)들꽃청소년세상은 지난해 20주년을 기념으로 새로운 변화를 기치로 청소년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친화적인 도시(마을)와 그들의 삶의 공간을 청소년들의 긍정적 공간으로 설계하며 청소년이 이 사회의 참여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
- 청소년자치연구소는 청소년행복도시(친화도시)에 대한 전문성의 탁월. 소장 및 직원들은 현장에서의 수년간의 실천과 사례가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연구와 지역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음
- 군산시의 어린이청소년행복도시 공약에 따른 적극적 지원 의지(협약서 참고)가 있으며, 관련한 지역의 다양한 기관시설과의 네트워크가 매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관계망이 형성되어있음(본사업만을 위한 지자체와 관련 기관시설 협약)
- 청소년프리마켓 상설 매장 구축을 위한 50평 규모의 청소년참여공간을 현재 리모델링하여 개소 예정에 있으며 청소년친화도시를 위한 허브 역할로서 활동력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됨. 특히 관과의 관계에서 민간 입장의 수평적 거버넌스 형성을 통한 자율적 활동의 보장도 중요한 장점임.

2. 세부추진사업 운영계획

1) 목표

- 청소년이 운영하는 상설 프리마켓(우리동네 C.E.O)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경제 관념과 자립심을 강화하고, 기부를 통한 봉사정신과 도전정신, 창업마인드 함양
- 청소년옴브즈맨 기구 설치 운영(암행어사 출두야!)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문제와 불만사항 조사와 문제 발생 청소년 대한 자문과 지역사회 청소년 문제예방 및 해결 대책 정부에 제안하여 청소년의 복지와 권리를 증진
- 어르신(부모)과 청소년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공감 브릿지)을 통해 지역 내 세대 간 소통문화 형성과 부모와 자녀 간 공감대 형성, 세대갈등 및 부모-자녀 간 갈등 예방 및 조정

2) 세부사업계획

(1) 경제영역(청소년상설 프리마켓) : 우리동네 C.E.O

① 사업목표

- 경제와 신용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 및 지속적인 창업 가능성 모색
- 자발적 경제 참여를 통한 자신감의 향상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

② 세부사업계획

사업영역	세부사업	활동 (수행방법)	시행시기	비고
경제영역	우리 동네 C.E.O를 모십니다.	○ 홍보: 공문발송, SNS활용, 현수막 홍보, 학교 및 관련 기관 방문 ○ 면접 - 참여자: 창업계획서 제출 - 면접을 통해 참여자 선발(20명 내외) - 면접관: 청(소)년 창업자 등	4월	
	청소년 신용경제 아카데미	○ 교육프로그램(안): - 신용관리교육프로그램 - 경제관념 - 금전관리와 소비교육프로그램 - 나눔과 기부 교육 프로그램 ○ 토론 및 발표	5월	프리마켓 근처에 소재한 전북은행과 연계 예정
	창업과 마케팅 아카데미	○ 교육프로그램(안): - 창업의 이해 - 마케팅의 이해와 적용 - 청(소)년 창업자와의 만남과 소통 (성공과 실패 사례 나누기) - 재무관리 ○ 토론 및 발표	5월	
	상설 프리마켓 운영 “청소년장터”	○ 상설 프리마켓 운영 - 프리마켓 전담 동아리 등 자치 조직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실내 프리마켓 장소에서 청소년 Youth Cafe도 함께 운영 - 물건 뿐 아니라 재능이나 문화컨텐츠(예: 마술, 음악, 공연 등)도 판매할 수 있는 장(setting)을 마련	6~10월	프리마켓 근처에 소재한 시장(명산시장)과도 연계 방법 모색(예정)
	이동 프리마켓 “Move Market (무브마켓)”	○ 이동형 프리마켓 - 월1회 근대문화역사 거리 주변에서 이동형 프리마켓 진행 - 벼룩시장 월 1회 주변의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외부에서 벼룩시장 진행	6~10월	
	평가회 및 차후 활동 방안 모색	○ 평가회 - 지속적 상설 프리마켓(내부) 운영 가능성 타진 및 이동형 프리마켓 개발 노력	10월	

③ 이점 및 특성

- 약 50평 규모의 실내 상설 프리마켓을 진행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됨. 그리고 실내 상설 프리마켓을 진행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음(정기 상설 운영 시간인 매주 토요일 오후 시간에 운영이 가능할 뿐 아니라, 평일에도 자유롭게 오후 까지 운영가능)
- 실내 상설 프리마켓 주변은 근대문화역사 거리로써 많은 유동인구가 있음
- 실내 상설 프리마켓 주변(1km 이내, 도보로 15분 이내)에는 초, 중, 고등학교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총10개교-군산여고, 영광여고, 마이스터고, 전북외고, 영광중, 군산중, 남중, 금광초, 군산초, 중앙초)
- 실내 상설 프리마켓 주변에는 연대 가능한 조직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예: 아름다운 가게, 군산 참여자치시민연대, 산돌학교, YMCA, YWCA, 군산성폭력 상담소 등)
- 프리마켓 수입의 50%는 자기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며, 수입의 20%는 재료비로, 30%는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 후원금으로 지출함으로써 기부정신과 공동체 정신을 함양

④ 사업진행일정

기간 내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우리동네 C.E.O를 모십니다.							
청소년 신용경제아카데미							
창업과 마케팅 아카데미							
상설 프리마켓 운영							
이동 프리마켓 "Move Market"							
평가회 및 차후 활동 방안 모색							

⑤ 기대효과

- 청소년들에게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경제, 신용, 창업에 대한 관념을 심어줄 수 있음
- 공동체 의식의 증가
- 기부 및 지역사회 기여를 통한 봉사정신 함양
- 지속적이고 안전한 청소년 활동 및 문화 공간의 조성 가능

(2) 참여영역(청소년 옴부즈퍼스/기자학교) : 암행어사¹⁾ 출두야!

① 사업목표

- 청소년 복지 및 권리 증진을 위한 대중의 인식제고
- 청소년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하려는 주도성과 주체성 함양
- 청소년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관계성 향상

② 세부사업계획

사업 영역	세부사업	활동 (수행방법)	시행시기	비고
참여 영역	암행어사 과거시험	○ 홍보: 공문발송, SNS활용, 현수막 홍보, 학교 및 관련 기관 방문 ○ 면접 및 시험 - 시험 주제: 사회참여와 옴부즈멘 제도 등 - 면접을 통해 참여자 선발(20명 내외)	4월	
	청소년 사회참여아카데미	○ 교육프로그램(안): - 청소년의 권리와 인권 - 시민교육프로그램 - 옴부즈멘 제도의 이해, 적용 - 사회참여의 개념과 사례 ○ 토론 및 발표	5월	
	청소년옴부즈멘 조직 화 및 활동	○ 청소년 옴부즈멘 기구 조직화 - 발대식: 청소년 옴부즈멘(=암행어사)로 위촉 ○ 청소년 옴부즈멘 활동 - 정기 활동 보고 및 공유, 정리	6~8월	
	청소년포럼	○ 청소년 옴부즈멘 조사 활동 발표 ○ 패널 발표 및 토론 - 문제점 발견 및 대안 모색	9월	군산시 어린이 행복과 연계
	조례 제안 작업	○ 군산시 의회 의원과 청소년 옴부즈멘의 간담회 ○ 조례 구성: - 옴부즈멘 활동과 포럼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안	9~10월	군산시 의회와 연계
	평가회 및 차후 활동 방안 모색	○ 평가회를 통해 지속적 옴부즈멘 활동 운영 가능성 논의 및 활성화 방법 모색	10월	

1) 암행어사는 조선 시대, 임금의 특명을 받아 지방 정치의 잘잘못과 백성의 사정을 비밀리에 살펴서 부정 관리를 징계 하던 임시 관리로써(DAUM 한국어 사전), 그 기능과 역할이 청소년 옴부즈멘과 유사하면서도 단어가 주는 상징적 · 위트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암행어사 라는 명칭을 사용

③ 이점 및 특성

- 군산시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흐름 속에서 본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군산시 “어린이 행복과”와 협약 체결)
- 사회참여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성(청소년 참여 전문성 및 사회 참여 관련 네트워크 기구와의 연계 전문성 등)

④ 사업진행일정

내용 \ 기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암행어사 과거시험							
청소년 사회참여아카데미							
청소년옴부즈멘 조직화 및 활동							
청소년포럼							
조례 제안 작업							
평가회 및 차후 활동 방안 모색							

⑤ 기대효과

- 어린이청소년 복지와 권리 증진 가능성 증가
- 어린이청소년의 주체성과 주도성의 향상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

(3) 관계영역(가족, 노인과의 교류): 공감 브릿지(Bridge)

① 사업목표

-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안전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식, 이해의 폭을 넓힘
- 가족단위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가족에 대한 신뢰를 쌓고 공헌에 대한 인식을 개선
- 청소년들이 부모의 직업현장을 간접체험함으로써 부모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직업을 보여줌으로서 자부심을 높이는 동시에 자녀에게 깊은 친밀감을 형성

- 지역사회에 이슈가 되는 노인문제를 청소년들이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노인과 교류, 노년기 세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세대문화를 통합하는 가치확산, 세대갈등의 실효적 예방과 조정

② 세부사업계획

사업영역	세부사업	활동 (수행방법)	시행시기	비고
교류	부자회담 (부모와 자녀의 회담)	○ 홍보 및 모집 - 주변 학교(군산초등학교, 금광초등학교, 동중학교)에 홍보의뢰 및 학교 앞 길거리 홍보물 배포. - 웹 홍보 - 면접 및 대상선정 (청소년 10명, 부모 15~20명) ○ 안건 선정 ○ 부자회담(3회)	4~7월	
	하고픈 가봉 (하고 싶은 가족봉사 : 세대 한끼)	○ 홍보 및 모집 - 군산신문, 군산사랑방신문 등 지역신문사 홍보의뢰. ○ 선언식 - 참여희망 가족모집선언식 ○ 봉사목표, 일정 논의 및 확정 - 가족팀 모임 및 봉사 목표 및 봉사시간, 장소 등 정함. ○ 봉사활동(세대 한끼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댁을 방문하여 어르신께 식사 대접 및 소통 시간) ○ 중간 모임(매달 1번씩 3회) ○ 과정, 결과 발표회	4월~8월	

사업영역	세부사업	활동 (수행방법)	시행시기	비고
교류	잡 다큐 (부모직업체험)	○ 홍보 및 모집 - 군산노동부에 직업체험 가능한 곳 의뢰 및 홍보부탁 - 기관 섭외 후 해당기관 직원들 대상으로 홍보물 배포 - 참가 청소년 10명 내외 모집 ○ 오리엔테이션 ○ 부모직업체험 - 부모님의 직장 방문 및 소개시간 - 간접체험 및 직장동료 소개 ○ 결과발표 - 영상편지제작 - 발표회	5월~9월	
	할매힐러	○ 홍보 및 모집 - 금강노인복지관의 '라디오스타 1339'에서 활동하는 대학생들 섭외, 청소년 방송 섭외. (금강노인복지관과 협약) - 학교에 홍보의뢰 및 섭외. ○ 목표설정 - 모집된 청소년과 대학생이 활동목표설정. ○ 과정 공유 - 문제해결 과정을 '라디오 스타 1399'에 방영 - 지역 신문 및 온라인 신문에 기재요청 및 기재 ○ 결과 공유 - 문제해결과정 묶음자료 발표회	5월~9월	

③ 이점 및 특성

-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및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유연성 (노인복지관과 협약 체결)
- 사업 진행을 위한 가족봉사단 및 군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와 연계 가능

④ 사업진행일정

내용 \ 기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부자 회담(부모와 자녀의 회담)							
하고픈가봉(하고싶은가족봉사) - 세대 한끼 -							
잡다큐							
할매 힐러							

⑤ 기대효과

- 지역 내 세대 간 소통문화 형성
- 가족단위의 사회공헌활동이 가족만의 의미 있는 활동이 되며 지역연대의 기초 초석이 됨
- 청소년이 부모의 사회생활을 살펴봄으로서 부모-자녀 간 갈등 예방 및 조정, 가족연대 강화
- 지역 내 세대통합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음. 세대갈등 예방과 조정효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현황 및 과제 토론

최 호 석 (청소년옴부즈퍼슨)

1. 들어가는말

저는 공정한 눈과 바른 말을 하는 아나운서 및 방송 기자를 꿈꾸어 있어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청소년 옴부즈퍼슨/기자과정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참여할 때는 옴부즈 퍼슨이라는 정확한 의미도 알지 못했고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인 ‘사회 참여’가 저에게는 낯선 용어처럼 들려서 처음에는 설렘보다는 불안감이 앞섰습니다.

먼저 우리의 활동에 바탕이 되어줄 청소년 사회참여 아카데미에 참여하였는데 자치연구소 소장님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님, 신문사 기자님, 교수님들이 직접 오셔서 다양한 주제에 부합하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방법, 신문 기사를 쓰는 방법과 소통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주셔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감이 기대감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제껏 어려울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청소년의 사회 참여에 대해 이제는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제가 먼저 앞장 서서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사회 참여란 무엇일까?

사회 참여라는 광범위한 주제 중에서 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제도, 지역사회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을 펼칠 기회가 많지 않고 시간적 여유가 허락되지 않아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참여란 어른들의 아래에서 의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직접 주도하여 서로 다양한 안건에 대해 의견을 생각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직접 조례도 만들어 보고, 제도를 만들어 사회에 적용되는 것이 사회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3.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지역사회란 무엇일까?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지역사회는 아마 청소년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켜줄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른, 성인들의 억압을 받지 않고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마련된 사회를 말합니다.

청소년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하며,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많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로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진로를 더 깊이 있게 알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양한 여가 활동에 관심이 많은 학생의 경우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문화 시설을 만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제도를 조장하는 사회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현황 및 과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어 더욱 이 활동들이 확대되고 사회에 적용된다면 보다 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시범사업전반은 특히, 기관에서 정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소년이 주가 되어서,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운영방식이라고 생각 하였습니다.

몇 가지 제안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관계 영역에 있는 ‘공감 브릿지 중 - 할매 힐러’ 프로그램은 ombudsman과 연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을 방송에 섭외하고 지역 신문 및 온라인 신문에 기재하는 것이 ombudsman/ 기자학교 활동 프로그램에 연계되면 훨씬 풍부한 활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인데 홍보에서부터 학교가 먼저 차단하는 여러 학생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학생들의 진정한 참여를 이끌어 내기위해 청소년 프로그램 홍보의 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군산시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지역 단체들과 유관 관계를 맺고, 조례 제안을 협력하여 추진위원단으로 활동하거나 조사협조를 구해서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폭력 상담소에서도 또한 어려운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어서 훨씬 기사 작성하거나 취재 활동 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지역의 청소년 단체가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ombudsman의 경우 지역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활동이 주된 활동인데, 이와 같은 단체들과 협력하면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전체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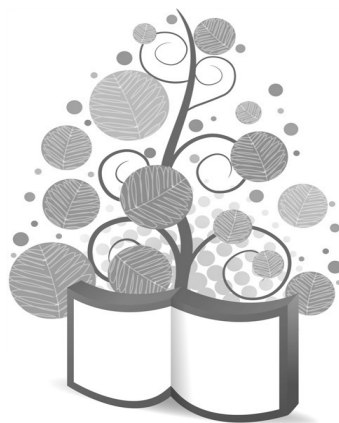
다섯번째로 행복도시 추진 위원단구성부분인데, 진정으로 청소년들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 위원단 구성원이 모두 어른들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기자분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것도 좋지만 직접 군산의 신문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례를 제안할 군산시 의회를 직접 방문하고 인터뷰 활동을 통해서 건문을 넓히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 표 4

외국의 ‘아동 · 청소년 친화도시’ 운영 실태 분석

- ▶ 발표자 : 박 선 영 교수(한국체육대학교)
- ▶ 토론자 : 김 웅 수 교수(한일장신대학교)



외국의 ‘아동 · 청소년 친화도시’ 운영 실태 분석

박 선 영 교수 (한국체육대학교)

1. 아동 · 청소년 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¹⁾)의 개념과 배경

유니세프(UNICEF)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준수하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크고 작은 단위의 지역 거버넌스”라고 정의하고 있다(UNICEF, 2004). 1996년 유엔의 Human Settlements(Habitat II) 라는 학회를 통해 처음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 학회는 아동의 웰빙(well-being)이야말로 건강한 주거지와 민주주적 사회 그리고 좋은 거버넌스의 궁극적인 지표라고 선언하기도 하였다(UNICEF, 2004).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사업(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 이하 CFCI)은 지역사회와 지방자치 차원에서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1996년 이후 세계 각국의 정책과 각종 프로그램에서 아동의 권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실천할 것을 강조해오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우선 지역사회와 지역정부 차원에서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정도를 평가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의 솔직한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조직 개발, 아동과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법률 제정, 예산의 평가와 실행에 있어서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독려하는 것 등이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구체적인 권리는 다음과 같다(UNICEF, 2015)

- 아동청소년이 살고 있는 도시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권리

1) 아동청소년친화도시란 원래 Child-friendly Cities라는 표현을 번역하여 의역한 것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한국의 청소년기본법(9세 -24세)에 의한 청소년 연령이 일부 해당됨. 그러므로 이 원고에서는 Child가 한국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Child를 아동청소년으로 의역하여 사용하고자 함.

-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권리
- 가족, 지역사회와 사회적인 삶에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보건이나 교육 같은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
- 안전한 물을 마시고 적절한 위생이 보장되는 삶을 영위할 권리
-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거리에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권리
- 친구를 만나고 놀 수 있는 권리
- 녹색환경을 누리고 동물들을 볼 수 있는 권리
-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살 권리
-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인종, 종교, 소득, 성별, 장애와 관계없이 모든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평등한 시민이 될 권리

유니세프가 제시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의 배경은 다음의 몇 가지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자각과 증진, 그리고 시민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권리 중심의 통합적인 접근에의 필요성이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이해라는 차원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수준의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도시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에서 아동청소년친화도시가 계획되었다. 월드뱅크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최근의 청소년관련 보고서에서 급속한 도시화를 언급하고 있는데 향후 30년간 도시에 거주하는 24세 미만 청소년의 인구는 2십억 만 명에서 4십억 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러한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에서의 빈곤 집중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증가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더구나 인간이 소외된 도시화의 추구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미리 구축하고 있어야 예방되고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에 필요한 복지와 서비스의 책임은 당연히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몫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증진과 권리보호라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아동친화도시는 이러한 임무를 강조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아동친화도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지역정부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통합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 인식에서 비롯되었다(UNICEF, 2004).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이 구축되고 있으며 인류의 번영과 생존, 복지증진을 위한 필수요소이자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사업의 실행과 유지, 평가를 위해 2000년에 UNICEF의 Innocenti Research Centre 내에 사무국이 설치되어 세계 각국에서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UNICEF는 'Framework for Action(실행전략)'을 수립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건설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오고 있다(UNICEF, 2015). 아동청소년친화도시는 일시적이거나 전시적인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끊임없는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동청소년 친화적 도시와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의 지속성과 발전을 위해 2008년 UNICEF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UNICEF, 2008).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참여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 청소년의 필요가 보다 잘 파악되고 있으며 아동의 필요가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가?
- 아동청소년의 필요와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기 위하여 아동과 청소년, 지역사회 구성원이 다양한 의사결정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가?
-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결정이나 정책, 법 등이 마련되고 실제로 집행 및 실행되고 있는가?
- 특히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실질적인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계획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 아동청소년의 실태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며 아동청소년이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가?

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운영을 위한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의 관점에서 본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운영 사례

유니세프의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사무국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개념을 확립하고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만들 수 있는 실행 전략을 개발하여 보급하며,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9가지 영역을 선정하여 이것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건설의 개념적 근거와 틀이 되도록 하였고 9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다(UNICEF, 2008)

- 아동 청소년 참여
- 아동 청소년 친화적 법률체계
- 지역 중심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 아동청소년 권리부서 또는 조정체계
- 아동청소년 (인권) 영향력 지수 진단 및 평가
- 아동청소년 예산
- 아동청소년 정기 실태 조사
- 아동청소년 권리 교육
- 아동청소년 옹호 기구 설립(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

이상의 9가지 영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국가와 지역의 상황에 맞게 다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9가지 영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9가지 영역에 대한 설명과 그 영역별 우수 사례에 대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UNICEF, 2015).

1) 아동 청소년 참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란 아동과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아동과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행동으로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 의사결정과정에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아동청소년의 참여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을 동등하고 주체적인 권리를 가진 인간이자 협력하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 그들의 경험과 관점을 존중하는 것,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하고 이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관점에서의 아동청소년 참여이다 (UNICEF, 2015).

물론 아동 청소년들에게 정부의 모든 사안이나 정책을 공유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과정과 제도 수립, 자료 구축, 정보 조직과 정책 수립의 전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참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참여권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제 12조 참여에 관한 권리는 전통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수동적이고 순종적일 것을 강조해오던 관습에서부터 탈피하여 부모, 교사, 보호자 등에게 아동과 청소년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UNICEF, 2015).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구축한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아일랜드 아동청소년 참여 사례(사업명: City of possibilities: Youth viewpoints)

2002년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 시 이사회는 청소년의회 구성을 위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아일랜드 소사이어티(Irish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ISPCC)’와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7세에서 17세에 이르는 148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더블린의 Croke 공원에 모여 더블린 시에서 청소년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진지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갖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아동청소년의회의 결성은 물론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국가아동청소년전략(National Children's Strategy)의 서비스와 정책 수립에 반영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 토론회는 후에 더블린 시 개발위원회에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가 되었고 더블린 시 개발위원회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들에게 제공되는 아동청소년 복지 서비스를 평가하고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그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도시계획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 사례는 이후 더블린 시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 되었다(Dublin City Council, 2015)

아동청소년의 참여는 더블린 시의 도시계획 수립과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10년 계획의 국가아동청소년전략(National Children's Strategy)의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국가아동청소년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빈곤 타파,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여가시설 이용 촉진, 아동 청소년의 발달에 필요한 요구 충족, 아동청소년의 자기 결정권 강화인데 이러한 목적도 아동청소년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립되었다. 특히 전략수립 이후 국가아동청소년전략(National Children's Strategy)의 실행에 있어도 아동청소년의회에서 논의된 아동청소년의 의견(여가와 놀이, 학습 환경, 교육, 안전, 보건, 사회적 생활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되고 반영되고 있다(Dublin City Council, 2015) 즉 국가청소년정책의 수립과 실시, 평가의 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공식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일랜드 더블린 시의 국가아동청소년전략(National Children's Strategy)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참여 사례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극대화함으로써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구축한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2) 영국 사례 (사업명: Making London Better for All Children and Young People)

런던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The Office of the Children's Rights Commissioner for London)는 2000년 3월에 발족되어 2003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를 통해 런던시가 첫 번째 아동청소년전략(Children's Strategy)을 수립하기 위해서였다. 아동청소년전략은 이후 런던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변모하는데 있어 기초적인 근거와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Office of the Children's Rights Commissioner for London, 2015). 런던 아동청소년전략은 0세에서 17세의 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되는 4가지 기본권(참여, 보호, 발달, 생존)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동청소년전략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아동청소년 외에도 런던 시의회, 사회복지, 교육, 보건, 지역 정부 등이 모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의견을 모았다. 런던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증진을 위한 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라는 협의체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여기에는 Save the Children, NSPSS, The Children's Society, The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and Bridge House Estates Trust Fund. 같은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각각의 단체들은 아동청소년

년인권위원회를 발족하고 아동청소년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런던시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았으며 이후에도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극대화하여 런던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Office of the Children's Rights Commissioner for London, 2015)

위의 아일랜드와 영국사례에서 보듯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첫 번째 과업은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참여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참여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에 필요한 협의체/위원회/의회 등을 구성하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국가적, 지역적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동청소년 참여는 친화도시 구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2) 아동 청소년 친화적 법률체계

아동청소년 친화적 법률체계란 단순히 아동청소년 관련법이나 지원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나 제도적 근거를 말한다. 지방정부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관점에 있어서의 법률적 근거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며 중앙정부나 또는 지방의 법제도들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옹호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UNICEF, 2015).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에 바탕을 둔 명확하고 원칙에 기초를 둔 아동청소년 친화적 법률체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동청소년대상의 정책과 사업은 그 가치와 실행가능성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친화적 법률체계의 확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률체계가 존재하는 것을 당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청소년지도사, 공무원, 학교, 교사, 학부모 등)은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과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는 물론 더 나아가 이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도 하고 있어야 한다(UNICEF, 2015).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법률체계 마련을 위해 고려해야할 또 다른 사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은 물론이고 각국의 상황에 맞게 국내법 안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12조는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관련 법제도, 정책의 실행

과 수립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 수렴과 반영이 포함된다(UNICEF, 2015). 그러므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가 얼마나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고 있는지, 자국의 상황에 맞게 얼마나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련법이 아동과 청소년, 관련 담당자에게 얼마나 공유되어있는지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1) 호주 사례(관련 법 : 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ct 2000)

호주의 퀸즐랜드 정부는 2000년 아동청소년위원회운영에 관한 법(The 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ct 2000)을 제정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과 보호, 웰빙을 증진하는 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으로 설립된 아동청소년 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Queensland Family and Child Commission, 2015).

-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보호, 웰빙 증진
- 소년원, 정신보건 서비스 기관, 아동청소년 쉼터 등에서의 서비스 지원과 복지 증진 관련 사업 실시
- 가족부(Department of Families)의 아동청소년 복지 서비스 전달과 개입과정에서의 문제 사항 파악과 해결
- 아동청소년의 특정 문제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전문 위원회 구성
-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와 관련된 법, 제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 아동청소년 고용과 관련된 고용상태 및 제도 점검
- 아동 청소년 관련 연구의 수행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위원회는 아동청소년친화 지역사회의 개념을 보다 확장시키고 보급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사업을 지역사회 기반의 시민단체와 청소년기관과 더불어 만들고 있다. ‘Working With Children Kit’이라는 매뉴얼을 개발하여 아동청소년과 일할 때 필요한 전문 지식과 가용자원을 소개하고 있으며 우수 사례를 소개하여 공유하도록 하였다. 또 지역사회들과 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도 하며 2001년에는 영연방 시민 페스티벌(Commonwealth People’s Festival)에서 수렴된 청소년의 의견을 바

탕으로 아동청소년 친화적 영연방 도시 구축의 청사진을 담은 보고서(Blueprint for a Child and Youth Friendly Commonwealth)를 출판하기도 하였다(Queensland Family and Child Commission, 2015). 이러한 아동청소년 친화적 법률체계의 마련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구축하는 출발점이자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2) 일본 사례 : Kawasaki city ordinance on the rights of the child

가와사키 시는 2001년 가와사키 아동 인권 조례를 제정하였다. 아동 인권 조례는 일본이 1994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계승한 것으로 중앙정부 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아동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가와사키 시의회는 중앙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어떤 시보다도 지속적으로 지역단체들과 함께 아동 인권의 중요성과 보호를 위해 노력해오기도 하였다(KAWASAKI City, 2015). 그 결과 2001년에는 학교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의 개발을 강조한 아동 인권 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동 인권조례는 아동 인권에 대한 개념 소개와 어떻게 아동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있다(KAWASAKI City, 2015). 가와사키 시 아동 인권 조례는 단순히 가와사키 시 공무원의 의견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관련 학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여 아동의 인권 보호와 개념에 대한 연구의 결과물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일본에서 아동의 인권과 관련한 첫 번째 국내법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아동 인권 조례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구축할 수 있는 일본의 첫 번째 법률체계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3) 지역 중심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지역 중심 아동청소년 권리정책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권리 정책을 의미한다. 유엔과 유니세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 사무국은 각국이 개별 국가 수준과 상황에 맞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정책을 펴되,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아동청소년이 살고 있는 도시나 지역사회 수준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수립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종합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수립 여부를 강조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사는 지역과 도시가 보

다 아동청소년 친화적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주체와의 파트너십 구축과 실행은 필수라고 보았다(UNICEF, 2015).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구축은 지방정부나 도시의 정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에 동조하는 지역의 모든 기관과 사업체 등과의 협력이 선행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역에 기반을 둔 아동 청소년 권리 정책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기본 바탕으로 하되, 국가별 정책들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또 개별 도시나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또는 국가 아동청소년 정책의 이념과 비전을 존중하고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지역 중심 아동청소년 권리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권리보호와 관련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가 지역 중심 아동청소년 권리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UNICEF, 2015). 지역의 필요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곧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 사업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1) 캐나다 사례(사업명:The Society for Children of Youth of British Columbia : SCY)

브리티시 콜롬비아 아동청소년 협회(The Society for Children of Youth of British Columbia)는 1974년에 관련 기관들과의 합병을 통해 설립되었다. 대표적인 관련기관에는 아동 원조 협회(Children's Aid Society :CAS)가 있는데 이 협회는 아동 복지와 보호를 위해 설립되어 아동 보건, 부모교육, 주간 보호, 장애아동 보호, 아동청소년 환경, 아동청소년 여가, 스포츠, 미디어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해오던 곳이다(Society for Children and Youth of B.C. (SCY), 2015).이런 기관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 구축의 정신을 계승하여 소년 사법제도, 아동 학대 예방, 청소년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옹호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Society for Children and Youth of B.C. (SCY), 2015). 브리티시 콜롬비아 아동청소년 협회는 지역의 필요와 요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 내 실태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역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아동청소년 권리 정책 추진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4) 아동청소년 권리부서 또는 조정체계

아동청소년 권리부서 또는 조정체계는 아동의 관점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안에 영구적이고 독립적인 담당부서를 두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UNICEF, 2015). 지역정부의 기능은 매우 다양하지만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 사업의 특징은 그 다양한 지역정부의 주요 정책과 이념 안에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며 조정할 수 있는 특정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UNICEF, 2015). 또 이러한 시스템이나 관련 권리부서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아동청소년 정책의 수립과 조정,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는 전담 부서로서 구별되어 있을 때 그 역할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권리부서나 조정체계가 아동청소년 관련한 모든 사업을 아우르는 전담부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관련한 특화된 역할만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앙정부의 아동청소년관련 부처보다는 하위의 개념이다(UNICEF, 2015).

아동청소년 권리부서 역시 모든 영역과 마찬가지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사이에서 조정의 역할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권리부서는 각각의 정부와 조직, 기구와의 사이에서 조정자 내지는 전달자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모든 지침과 정보를 제공하는 허브의 역할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즉, 관련부서나 기관이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한 어떤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대비하기 위해서도 영구적이고 독립적인 권리담당 부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UNICEF, 2015).

(1) 독일 사례(부서명: München, Stadt für Kinder: Munich, City for Children)

국제 아동청소년 친화사업 사무국은 전 세계에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오고 있다. 독일 뮌헨 시의 경우 이런 평가에서 매우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았는데 특히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가까이서 경청하기 때문이었다. 뮌헨시가 이렇게 아동청소년 친화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이유는 뮌헨시가 점점 아동

청소년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반성에서였다(UNICEF IRC. International Secretariat for Child Friendly Cities, 2015) 뮌헨 시 자체 판단 결과 뮌헨 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 덜 창의적이고 덜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뮌헨시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아동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져서 지금의 우수 사례가 되었다.

뮌헨 시는 아동청소년 사무국(Munich Kinderbüro :Children's Office)을 설치하여 아동과 청소년들로부터 집중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보다 아동청소년 친화적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독일 내의 다른 도시들도 이와 비슷한 노력을 기울이기는 하였지만, 뮌헨시가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의 웰빙을 가장 중요한 원칙과 철학으로 삼았기 때문이다(UNICEF IRC. International Secretariat for Child Friendly Cities, 2015) 아동청소년 사무국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의 이슈가 가정, 지역, 심지어는 국가적 수준에서 아동친화적 그리고 아동 중심적 정책과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는 것이다. 물론 독일 정부차원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지만, 이 모든 배경에 아동청소년 사무국이라는 아동청소년 권리 전담부서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뮌헨 시는 독일 내에서 처음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받아들여 실천한 도시이자 모든 공공 정책과 제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계승하고자 한 도시이다. 특히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아동청소년들에게 건강하고 다양한 문화적 유산 속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전개해오고 있다(UNICEF IRC. International Secretariat for Child Friendly Cities, 2015) 국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무국은 뮌헨시가 이렇게 변하고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우수 사례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로 아동청소년 권리부서의 역할이 주요한 요소였다고 지적했을 만큼, 아동청소년 권리부서와 조정체계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다.

5) 아동청소년 (인권) 영향력 지수 진단 및 평가

아동청소년 영향력 지수 진단 및 평가는 정책이나 법의 집행 이전, 혹은 집행 중이거나, 아니면 종료이후에 아동청소년의 영향력 지수를 측정하고 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아동청소년 영향력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듯 중앙정부와 크고 작은 모든 지방정부와 지방자치 수준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이 모든 정책과 법에서 우선순위로 다루어지고 있는 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기적이고도 계획된 아동청소년 인권 영향력 지수 평가를 통해 각각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파악은 물론 인권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UNICEF, 2015).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법이 해당되지만, 특히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위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과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 세밀한 진단과 평가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어떤 법이나 정책은 특정 집단의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기 쉬운데 이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아동청소년은 없는지, 의도하지 않게 제외된 의견이나 집단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인권) 영향력 지수 진단 및 평가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사안은 아동청소년 관련 법과 정책이 사전에 그 정책이나 법이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도록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전 진단과 평가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아동청소년 정책이나 법이 실행 가능한 것인지, 충돌되는 다른 정책이나 법은 없는지, 실현될 만한 물리적 환경과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성평등지수나 환경지수 같은 것들과의 조화는 이룰 수 있는지 등이 사전 점검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UNICEF, 2015).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법이 일단 실행되거나 집행되기 시작하면 이때 아동청소년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가 상시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검이나 진단 평가는 각 지역에 기반을 둔 시민단체나 독립된 인권 관련 연구소에 의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원래 의도했던 아동청소년 영향력 지수가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법에 대해서도 그들의 관점으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과정이 포함되어야 더욱 정확한 영향력 지수가 평가될 수 있다(UNICEF, 2015).

(1) 스위스 사례(사업명 : Giving Children a Voice)

스위스 ‘아동청소년에게 참여의 기회를(Giving children a voice)’이란 사업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12조를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이다. 모든 아동은 자신의 삶에 영

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전제하에 아동청소년 영향력 지수 진단 및 평가를 위해 스위스 전역에서 12,872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 필요, 희망사항에 대해 전국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진단 및 평가의 특징은 단순히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을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정책, 법률 등에 대한 평가를 했다는 것이다 (UNICEF Switzerland, 2015).

아동청소년 영향력 지수 진단 및 평가 설문조사의 정확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학교 정규 수업시간이 할애되었으며 설문조사에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례도 포함하였다. 아동청소년의 평가결과 Basel시의 경우 아동청소년이 지자체를 직접 평가하는 프로그램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었으며 Obereggen 시는 학교에서의 아동청소년 참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Lucerne 시는 아동청소년 의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아동청소년에게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 주로 관련된 성인들, 즉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왔으나 스위스의 사례는 아동청소년이 직접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 그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평가하도록 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평가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실제 정책과 제도, 프로그램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UNICEF Switzerland, 2015).

6) 아동청소년 예산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느냐하는 것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영향력 지수 진단 및 평가에서도 예산의 확보, 수립 및 집행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각국은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의 확보와 집행은 아동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가시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UNICEF, 2015).

아동청소년관련 예산의 수립은 각 지역에서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필요하고 예산 수립의 기준에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집행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이나 보건의 문제에 있어서의 예산 할당은 주로 중앙정부가 결정하므로 이 안에서 지방정부는 불평등과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원 배분에 있어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의 확보와 집행, 수립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지역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개되고 검증되는 것이 원칙이다(UNICEF, 2015).

(1) 에콰도르 사례(사업명 : Democratizing democracy: participatory management and budget allocation for equity)

2001년 에콰도르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초 복지사업의 지원과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18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주주의의 민주화(Democratizing democracy)’라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방재원의 할당과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모니터링 할 뿐 아니라 직접 관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에콰도르의 지방자치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한 목표였다. 보다 공정한 예산분배와 집행을 위해 에콰도르의 전통적 방식에서부터 벗어나 다양한 주체를 예산 계획과 집행의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에콰도르 역사상 매우 중요하고 혁신적인 일로 평가를 받는다. 이를 위해 유니세프와 UNDP, NUIFEM 같은 기구들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였고 이 사업에는 에콰도르 지방자치 연합, 시민단체와 학계가 참여하였다. 이후 이 프로그램과 사업은 전 세계 50여 개국 2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수립과 실행에서 사용되고 있다(Ayuntamiento de Cordoba (Cordoba City Council, 2015)

7) 아동청소년 정기 실태 조사

아동청소년 정기 실태조사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아동청소년의 여러 상황이 포함된 실태조사로서 관련 자료 수집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에 관한 모니터링도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는 아동청소년의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0세부터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각종 정보와 통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실태조사는 기존에 여러 대상으로 나뉘어 조사되던 즉, 기존 연령별, 성별, 소수인종별, 장애정도, 또는 기타 필요에 의한 그룹별로 나뉘어 조사된 각종 통

계조사나 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동청소년권리 위원회가 오히려 이상의 여러 자료로부터 수집된 자료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정도를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각 개별 정부는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국가 통계자료에의 접근이 가능하고 관련 연구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UNICEF, 2015).

일반적으로 국가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하기 마련인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은, 국가적 실태조사가 아닌, 해당하는 지역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실제 인권현황과 삶의 질의 수준을 점검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의 조사와는 다르다. 이 실태조사에서 중요한 점은 실태조사를 문서화하여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족하거나 모자란 점, 보완해야 할 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추후 도시 계획과 정책수립시에 참고하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UNICEF, 2015).

아동청소년 실태조사는 개별 국가나 지역에서 아동청소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존중의 정도를 포함하여 조사할 수도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아동청소년은 연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파트너로서 조사의 계획과 실행, 평가, 요구조사, 대안제시와 보고서 작성 등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UNICEF, 2015).

(1) 미국사례(사업명 : Imagine Chicago: Ten Years of Imagination in Action)

미국의 ‘시카고 상상(Imagine Chicago)’의 ‘10년 상상(Ten Years of Imagination in Action)’ 사업은 원래 6개의 대륙에서 실시된 상상 프로젝트 10주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시카고 상상’은 1992년에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로서 아동청소년은 물론 시카고 시민들에게 삶의 희망과 동기부여를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가 꿈꾸는 세상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카고 상상’의 ‘10년 상상’ 프로젝트는 시카고내의 학교, 교회, 지역단체, 문화예술 기관들이 협력하여 그들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희망, 주인의식과 미래를 위한 비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공동의 비전과 가치, 책임을 공유하며 협력적이고 창조적인 리더십을 내세우는 이 사업은 시카고 시티의 창조적이고 행복한 가시적인 미래를 예측하는데 중점을 둔다. ‘10년 상상’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의 하나는 Nagaland

주 전체에서 2만 명이 참가하여 Nagaland 주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주인의식, 현재와 미래에 걸친 대규모의 워크숍을 진행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 지역정부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 전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모델은 네팔, 싱가포르, 케이프타운, 호주 지역으로 확산되어 각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어 시도되기도 할 만큼 현재의 실태를 바탕으로 미래를 기획하는 우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Jain Shilpa Browne Bliss W., 2002)

8) 아동청소년 권리 교육

아동청소년의 권리공지란 해당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은 물론이고 어른들에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해서 공지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의 내용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한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에서 아동청소년은 개별 권리주체로서 인정받아야 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은 아동청소년과 성인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반드시 소개되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UNICEF, 2015).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9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개발해야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국가나 도시가 인권의 문화를 조상하려고 한다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내용은 수업의 교육과정을 통해 반드시 알려져야 하며 이것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 구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작점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내용과 교육과정, 교육 이념 및 학교의 모든 운영 철학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UNICEF, 2015).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이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교사, 교직원,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과 정부의 공무원, 정치인들 역시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지역정부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부모와 다른 성인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권리를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청소년단체, 청소년 모임, 미디어 등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관련정보와 교육을 공유해야 한다(UNICEF, 2015).

(1) 이탈리아 사례(사업명 : CAMINA - Citta' Amiche Infanzia e Adolescenza)

이탈리아의 CAMINA(Citta' Amiche Infanzia e Adolescenza)라는 사업은 2000년에 시작되었으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라는 뜻이다. 처음에는 한 지역에서 시작된 사업이 지금은 이탈리아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을 만큼 성공적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첫째,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사례연구와 자료분석, 둘째,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고 알리기 위하여 지방자치정부간의 정보교환과 사례분석, 셋째, 아동청소년인권교육을 위한 실행그룹 구성이다. 이 사업은 이탈리아 전역의 시민단체들과 대학 등이 연계한 사업으로 이탈리아 전역에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구축을 위한 정보구축과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한 이해 교육으로 우수사례가 되었다(Associazione Nazionale Comuni Italiani (ANCI), 2015).

9) 아동청소년 옹호 기구 설립(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옹호 사업이란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같은 인권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단체들은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후, 인권단체들이 더 많이 생겨나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모니터링하며, 증진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각국은 아동청소년 인권단체 연합을 구성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연대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인권관련 시민단체에는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단체도 포함되지만, 전통적으로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단체, 노조, 교회 같은 종교단체도 포함된다. 또 점점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청소년단체들도 많이 생겨나서 어른들의 도움 없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옹호하고 찾기 위한 단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들도 모두 아동청소년 옹호사업 지원대상이 된다(UNICEF, 2015).

아동청소년 인권 시민단체들은 지역정부와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이루어 인권증진을 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유엔은 인권 실태를 모니터하고 보호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인권 기관의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역시 독립된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UNICEF, 2015). 현재 한국은 아니지만 해외

의 여러 나라들은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 ombudsman, 아동청소년 인권 위원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인권단체와 독립된 인권위원회의 설치 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독립된 인권위원회나 인권단체들은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에 있어 감시자와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즉, 아동청소년 인권 옹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1) 북아일랜드 사례(Derry 아동청소년 위원회 : Derry Children's Commission)

Derry 아동청소년 위원회는 1999년에 설립되었는데 Derry 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낮은 인권수준에 대해 지역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은 물론, 부모, 복지주체, 정책 담당자, 자원봉사단체들의 협력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운영방향이자 사업 내용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업은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이들을 대신하여 이들의 권리에 대해 옹호사업을 하는 것이다. 2000여건이 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민원이 접수되어 해결된 바 있으며 아동청소년 포럼을 개최하여 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다룬다(Derry Children's Commission, 2015). 또 학부모들이 Derry 시의 놀이공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Derry 시의 놀이 환경이 개선된 사례도 있다. Derry 아동청소년 위원회는 Nerve Centre라는 단체와 연계하여 '우리는 권리가 있어요(We've got the Right)'라는 비디오를 제작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아동청소년이 출연하여 알기 쉽게 홍보하기도 하였다. 이 홍보 비디오를 제작한 청소년들은 이후 자신들의 실제 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담은 비디오물을 제작하여 2004년에는 영국의 Impetus award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Derry 시의회는 아동청소년관련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첫 번째가 아동청소년 놀이 정책이고 두 번째가 아동청소년이 국가 간 혹은 국제관계에서 생겨나는 행동지침(Code of Conduct)에 대해 아동청소년이 동의해야 가능하도록 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2004년 Derry 시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북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보듯이 아동청소년 옹호기구의 설립, 즉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설립은 인권관련 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의 계기가 되었다(Derry Children's Commission, 2015).

3. 한국형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활성화 방안

유니세프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을 위하여 9가지 영역을 제시했고 이 영역별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 자체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개념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와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는 궁극적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각국의 형편에 맞게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아직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권리와 내용이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에게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의 구축을 위한 시작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소개 및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구축의 의미와 필요성 등을 널리 홍보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유니세프가 제시한 9가지 영역 전반을 활성화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둘째, 아동청소년 참여를 위한 실제적인 통로의 마련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는 어른들의 관점에서 어른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친화도시 구축의 과정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도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 각급 청소년시설에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운영하게 되어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그렇고, 학교의 각종 학생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렇다. 그러나 한국의 문제는 청소년의 참여의 기회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칠 때가 많고, 아동친화도시 구축 같은 전 지역사회와 구성원이 힘을 합쳐야하는 큰 규모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에서는 실제로 이들의 의견보다 경제논리나 또는 어른들의 관점이 우선시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왜 중요한지, 그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리적인 설명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의미 있는 활동에의 참여 이미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긍정적 발달에 기여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검증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4).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참여활성화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에도 필수적인 요소지만, 아동청소년

년의 발달의 입장에서조차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즉,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마을과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존중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그들의 언어로 소개되어 게시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교에서 심지어 청소년시설에서조차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소개가 게시되어 있거나 심지어 청소년지도사나 관련 학계에 아동청소년인권 전문가와 옹호자의 숫자도 절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그 이유는 아동청소년 인권이 그 가치와 이념이 지향하는 만큼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인권관련 교육과 전문가의 양성이 전제될 때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이 가시화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넷째, 유네스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무국이 제시한 9가지 영역의 한국화 전략이다. 한국에서 가령 아동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나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기 위하여 청소년인권 관련 활동이 연구되어야 하고, 기존의 아동청소년 관련법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행복마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시설물과 건축, 안전에 관한 기준과 관련법 등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과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로 집중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권리정책이 지역중심으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식 있는 예산 분배와 인권 존중의 자세가 함께 요구된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청소년관련 주무부처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주무 행정 조직도 마련되어야 한다. 순환보직이 아니라 관련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같은 전문가로 이루어진 사업팀이나 지원팀도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이행보고서 말고도 지자체나 시민단체, 청소년시설이 인권영향력 지수를 측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벌제도의 도입도 하나의 사업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아동청소년 위원회의 설립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지원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가 예상하는대로 급속한 산업화는 점차 사회양극화와 도시빈민을 양산해 낼 것이다. 이는 아동청소년 인권의 안전지대가 없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이 특정 계층과 지역에만 해당되는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이는 보편적으로 전 세계 모든 아동청소년이 갖는 생득적 지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작은 지역사회에서부터 이러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려는 움직임으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는 물론 아동청소년 친화국가, 행복국가가 만들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 참고 문헌 】

- Associazione Nazionale Comuni Italiani (ANCI)(2015). CAMINA - Citta' Amiche Infanzia
Adolescenza
<http://childfriendlycities.org/building-a-cfc/building-blocks/examples-making-childrens-rights-known/camina-citta-amiche-infanzia-e-adolescenza/>
- Ayuntamiento de Cordoba (Cordoba City Council)(2015). Presupuestos participativos.
<http://childfriendlycities.org/building-a-cfc/building-blocks/examples-childrens-budget/presupuestos-participativos/>
- Derry Children's Commission (2015). Derry Children's Commission.
<http://childfriendlycities.org/building-a-cfc/building-blocks/examples-independent-advocacy-for-children/derry-childrens-commission/>
- Dublin City Council(2015). Report of Dublin City Youth Seminar, Croke Park - May 2002.
<http://www.dublin.ie/>
- European Commission(2014). Working with young people : the value of youth work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 Jain Shilpa Browne Bliss W.(2002). Ten Years of Imagination in Action.
<http://childfriendlycities.org/building-a-cfc/building-blocks/examples-a-city-wide-childrens-rights-strategy/imagine-chicago-ten-years-of-imagination-in-action/>
- KAWASAKI City(2015). ページが見つかりません http://www.city.kawasaki.jp/index_e.htm
- Office of the Children's Rights Commissioner for London(2015). Children & young people'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in London.
<http://childfriendlycities.org/building-a-cfc/building-blocks/examples-childrens-participation/children-young-peoples-participation-in-decision-making-in-london/>
- QueenslandFamily and Child Commission (2015). An act to establish a 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to promote and protect the rights, interests and wellbeing of children in Queensland
<http://www.ccypcg.qld.gov.au/page-not-found.html?aspxerrorpath=/index.aspx>
- Society for Children and Youth of B.C. (SCY)(2015). The Society for Children of Youth of British Columbia (SCY)

<http://childfriendlycities.org/building-a-cfc/building-blocks/examples-a-city-wide-childrens-rights-strategy/the-society-for-children-of-youth-of-british-columbia-scy/>

UNICEF Brazil (Fortaleza Office)(2015). Selo UNICEF: Municipio aprovado

<http://childfriendlycities.org/building-a-cfc/building-blocks/examples-childrens-participation/selo-unicef-municipio-aprovado/>

UNICEF Ecuador(2015). Democratizing democracy: participatory management and budget allocation for equity. <http://childfriendlycities.org/building-a-cfc/building-blocks/examples-childrens-budget/democratizing-democracy-participatory-management-and-budget-allocation-for-equity/>

UNICEF IRC. International Secretariat for Child Friendly Cities(2015). München, Stadt für Kinder (Munich, City for Children).

<http://childfriendlycities.org/building-a-cfc/building-blocks/examples-a-city-wide-childrens-rights-strategy/project-review-munich-stadt-fur-kinder-munich-city-for-children-germany/>

UNICEF Switzerland(2015). Giving Children a Voice.

<http://childfriendlycities.org/building-a-cfc/building-blocks/examples-child-impact-assessment-and-evaluation/giving-children-a-voice/>

UNICEF(2004). Building child friendly cities: a Framework for Action.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UNICEF(2008). Brief-Child Freindly Cities Research Initiative.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UNICEF(2015). What is a Child Friendly City?

<http://childfriendlycities.org/overview/what-is-a-child-friendly-city/>

“외국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운영 실태 분석”에 대한 토론편

김 응 수 교수(한일장신대학교)

UN 아동·청소년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는 청소년을 그 자신과 사회환경의 변화와 반응에 있어서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 조약에서는 청소년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최선의 이익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많은 관심과 개입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공공 정책, 민간 복지서비스, 행정당국, 법, 입법기관, 정책부처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청소년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을 단순한 규제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발달의 권리와 나아가 그들의 인권과 자유의 주체로서 강조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청소년의 모습은 어떠한가? 청소년은 그 세상의 거울이다. 거울을 쳐다보면 우리 얼굴의 형상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청소년을 알고 나면 어느 사회나 국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달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특정시대의 사회적 단면만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서 과거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는 이미 빨간불이 켜져 있고, 브레이크 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언론들은 사회적 이목을 끄는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면 상세히 보도하느라 야단법석이고, 정부는 사후처리를 위한 계획들을 발표하기에 급급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성인중심적인 패러다임에서 급하게 형성된 청소년정책들은 지속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고, 청소년참여가 배제되어 임시방편의 이벤트 행사로 끝나고 또 다시 더 큰 사건으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의 책임만이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포함(Inklusion!?)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청소년자치연구소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 전략” 포럼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통해서 아동·청소년이 시민사회 내에서 더 이상 주변인으로써 존재하지 않고 주체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과 권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특별히 발제자이신 박선영 교수님은 오랫동안 청소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신 분이시며, 이번 발제에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실천 방법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본 토론자는 기존의 발제에서 약간의 보완을 위해 독일의 사례를 간략히 제시하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함께 동참해 보고자 한다.

첫째, 최근 독일의 연구논문을 살펴보면, Inklusion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국가정책, 사회 공간 및 공동체 속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 Inklusion은 단지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정책과 사회공동체 속에서 청소년이 배려되고 있고, 사업과정 안에서 정책적 자문과 모니터링 수준을 벗어나 주체적인 참여의 권한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은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들과 문제해결에 주변인으로써 존재해 왔음을 점검하고, 청소년중심의 참여가 아닌 성인중심적인 패러다임에서 다루어져 왔음을 반성함을 의미한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는 도시정책과 사회공동체 속에서 청소년을 고려하되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독일의 청소년정책과 법은 모든 청소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지원을 전제로 한다. 실제로 독일의 아동청소년지원법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정한 기회를 제공”(Faire Chancen fuer alle)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청소년지원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범부처간, 공공과 민간기관의 조정과 협력을 위한 목표와 신념을 명확히 한다. 독일의 아동청소년지원법 제 1조 1항에서 “모든 청소년들은 자신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자기책임적인 생활공동체를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인격을 함양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모든 청소년들이 보호받고 정

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청소년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3항에서는 청소년 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였다. 청소년정책의 대상은 좁은 의미의 아동(14세미만), 청소년(14세이상~18세미만) 뿐만 아니라 27세 미만의 젊은이(Junger Mensch)와 그들의 가족이 포함된다. 아동청소년지원법에 의한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모든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차원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률상 복지라는 개념보다 지원(hilfe)란 용어를 사용하여 추상적인 접근보다 국가, 가족, 기업,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도와주는 정책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공공, 민간, 가족이 함께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된다. 청소년정책은 모든 청소년의 통합과 기회제공,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조정을 하고 있다. 독일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참여를 돕고,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 전담부처와 전달체계가 체계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친화적인 정책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다. 독일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에서 청소년정책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부에서 청소년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내에 청소년정책 전담부서를 통해서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연방청소년자문위원회(Bundesjugendkuratorium)은 연장정부의 청소년정책 및 제도를 자문하는 최고기구이다.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청(Jugendamt)¹⁾을 통해서 서비스가 전달된다. 청소년청은 청소년부 하의 각 주 정부와 지방단체의 청소년정책과 행정 및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담기관이다. 청소년청은 청소년복지사업을 기획하고 협력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큰 역할 중의 하나는 청소년복지를 위한 재정지원인데, 아동청소년지원법에 따라 각 지역 및 주의 청소년복지 및 관련 청소년사업은 해당 청소년청이 담당하고 지원한다. 청소년청은 독일 청소년정책 수행의 중심에 있고, 업무의 기획과 시행, 예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넷째, 독일은 청소년의 참여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시민사회 참여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실시되는데, 체험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 시민성, 청소년참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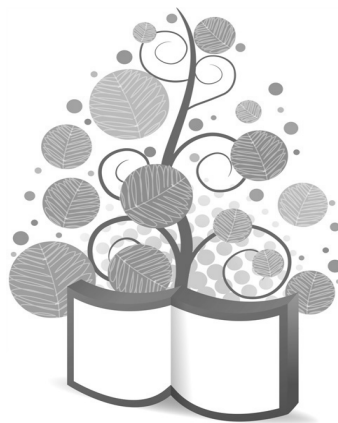
1) 청소년청은 아동청소년지원법(제 69조 3항)에 의해 2만명 이상 인구가 있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청소년청내에는 청소년업무 담당 행정사무국과 청소년지원위원회(Jugendhilfeausschuss)가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지원위원회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정책을 심의하고, 지방의회의 예산 범위내에서 청소년지원 업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언론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국영방송 ZDF에서 Die Sendung logo, Redezeit, Info- Magazin „pur+등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청소년 뉴스를 시청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청소년신문(Jugendpresse)과 잡지는 아동청소년 지원법 75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청소년부처의 지원받아서 제공되는데, 350명의 청소년 기자와 25000명의 지역참여자의 의해서 발행되고 있다.

다섯째, 청소년의회는 아동·청소년이 직접 사회적·정치적인 참여를 통해 정책반영의 가능성을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아동·청소년은 자신들의 사회적·정치적 권리를 정책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슈화하고, 스스로 문제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며, 지역사회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요구를 대변·관철시키는지 배우게 된다. 국가적·지역적·차원의 정책결정에서 청소년들의 권리와 관심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회나 청소년 대표를 통해 정책결정에 함께 참여한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모형개발

- ▶ 발표자 : 박 주 현 박사(대구가톨릭대학교)
- ▶ 토론자 : 김 정 주 박사(모든학교체험학습연구소 소장)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모형개발

박 주 현 박사(대구가톨릭대학교)

1. 서론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은 다른 국가 청소년들에 비해 행복감과 삶의 만족감 수준이 매우 낮으며 인터넷 중독, 신체활동 부족, 정신 건강을 포함한 위험행동은 높은 수준 있다(린다·오세숙, 2011: 180).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청소년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내, 외적 특성 요인이 행복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외 가정환경 특성, 관계적(친구, 교사 등)특성, 지역사회의 다양한 환경 특성들이 상호 연계되어 청소년 행복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자·김경혜, 2008).

청소년이 성장하는 지역사회환경은 단순한 개인 생활의 공간을 넘어 청소년 발달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은 발달 특성상 외부환경에 취약한 탓에 지역사회 영향을 보다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지극히 개인수준 안에서 발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행복과 같은 심리적 특성, 행동적 특성도 지역사회 체계와 연계, 협력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의 조건을 제시하고 최적의 환경체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청소년 행복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장근영 외, 2013: 28).

유니세프(2010)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운동을 펼치면서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요건들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그 요건들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UNICEF, 2010). 최근까지 국제기구와 공조해서 프로젝트를 실시해온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노르웨이, 필리핀, 이란 등 수 많은 국가들은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바탕으로

각국의 상황에 맞게 아동·청소년친화 환경에 대한 개념을 재해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장·단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였다(Barttle, 2002; UNICEF, 2005a). 이들 국가들이 전략을 정책으로 실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동과 청소년을 계획 수립부터 종결까지 모든 전 과정에 참여시켰으며 숙련된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도 변화의 과정에 동참시켰다(UNICEF, 2011; 홍승애·이재연, 2014: 305 재인용).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시민권리를 가르치는 기회로써 어린이 위원회의 선거에 학교 학생들을 참여시킨다. 아이들을 학교와 어린이 시설의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직접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UNICEF, 2012).

이와 같이 청소년 참여는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잠재적 역량을 충분히 펼치고,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며, 청소년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주요 기제가 되고 있다(황옥경·김영지, 2011: 4).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들이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Boisjoly, Duncan & Hofferh, 1995; Furstenberg & Hughes, 1995; Garbarino & Sherman, 1980; 김선숙, 2008: 16 재인용).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도서관, 학교, 학원, 공원, 의료기관, 여가시설, 상담 기관과 같은 시설, 사회서비스 등과 같은 사회적 자원은 청소년의 배움을 자극하며 건강한 발달을 이끌어 낸다. 특히 공원, 놀이터, 스포츠센터 등 여가활동과 관련된 기관은 지역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여 주민들과의 접촉 빈도를 높여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Levebthal·Brooks-Gunn, 2000). 이처럼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간접 체험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장근영 외, 2013: 26).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도 아동·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역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정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부천시, 군산시, 광주광역시에서는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권리조례 제정은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조약의 이념을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고 성장하는 구체적인 장인 지역에서 구체화되고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모형을 개발하여,

향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계획 수립 및 세부목표 추진을 위해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모형개발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의 사회생활이 전개되는 무대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형성하는 교육적 작용을 하고, 직접 교육이 진행되는 장이다(박중화, 2007: 15). 특히 청소년의 사회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족의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결손가정의 증가 등의 교육적 기능이 극도로 약화되고, 학교는 입시 중심의 교육환경으로 전인적 교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한준상, 2005).

장근영 외(2013: 3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적의 생활환경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사회”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청소년의 행복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정의하는데 있어 환경과의 상호과정 속에서 청소년이 인식하는 만족에 초점을 두는 것은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인식되는 행복은 정적인 것이 아닌 청소년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Bronfenbrenner, 1979; 허승연, 2009 재인용; 권세원 외, 2012: 62).

따라서 청소년이 태어나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고 개인의 자아실현, 역량개발, 그리고 안전한 성장체계 구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청소년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친화환경을 만드는 지역공동체 운동이라 볼 수 있다(김영한·임영식·김민, 2014: 159).

1) 비전과 목표

○ 비전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의 비전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발달하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목표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지역사회 요소를 제거하고 삶의 질을 살피며 지역 정책을 수립하고 청소년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성취해 나가는 지역사회가 되려면 목표를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빈곤, 그리고 폭력에의 노출 등 도시환경이 청소년에게 친화적이지 못하다는 데 주목하고 많은 국가들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의 청소년 안전위협은 이미 위험수준에 이르렀다.

지역사회는 최소한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장애가 되는 위험요소, 유해환경을 조기에 발견, 조치하여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청소년들이 성, 인종,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창의적인 역량 함양 및 조화로운 성장지원

미래사회는 창의적 역량을 갖춘 인재가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역량을 갖춘 청소년을 양육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와 과학기술의 발달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권해수 · 김기현, 2010).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발달의 주요 기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한 호기심과 탐구심의 발휘이다. 다양한 영역의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한다.

(3)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있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는 정책주체이면서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참여’이다(The Children’s Society, 2013). 청소년참여를 통해서 청소년이 성장·발달하고 더 나아가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참여하여 지역사회 전체를 활성화하는 촉매가 될 수 있으며(Hart, 1997), 또한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권한 부여를 가능하게 하고, 정신적·사회적 복리를 격려한다(Thomas, 2007; 천정웅 외, 2011: 311 재인용).

청소년 참여는 지역정책에 대한 소통의 장을 넓히고 이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지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청소년 참여는 특히 지역주민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지역 내의 다른 정책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4) 청소년의 친화적 환경 조성

청소년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제공받는 것은 중요하다. 청소년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발달적 요구를 표현하고 반영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과 여가를 위해 안전한 거리와 공간을 확보하며 친환경적 생태적 요구를 반영한 녹색공간을 제공하고 오염과 교통을 통제하여 자연과 어우러지는 청소년 성장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의 추진 방향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는 청소년의 안전, 청소년의 역량발달, 그리고 청소년과 지역주민(어른)간 파트너십 형성을 핵심가치로 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1)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환경 제공

취약한 물리적 환경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Bradley and Corwyn, 2002), 열악한 주거환경은 청소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Chase-Lansdale and Gordon, 1997) 잘 알려져 있다(황옥경 외, 2011: 93 재인용). 지역사회는 최소한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장애가 되는 위험요소, 유해환경을 조기에 발견, 조치하여 청소년이 행복하고 즐거운 지역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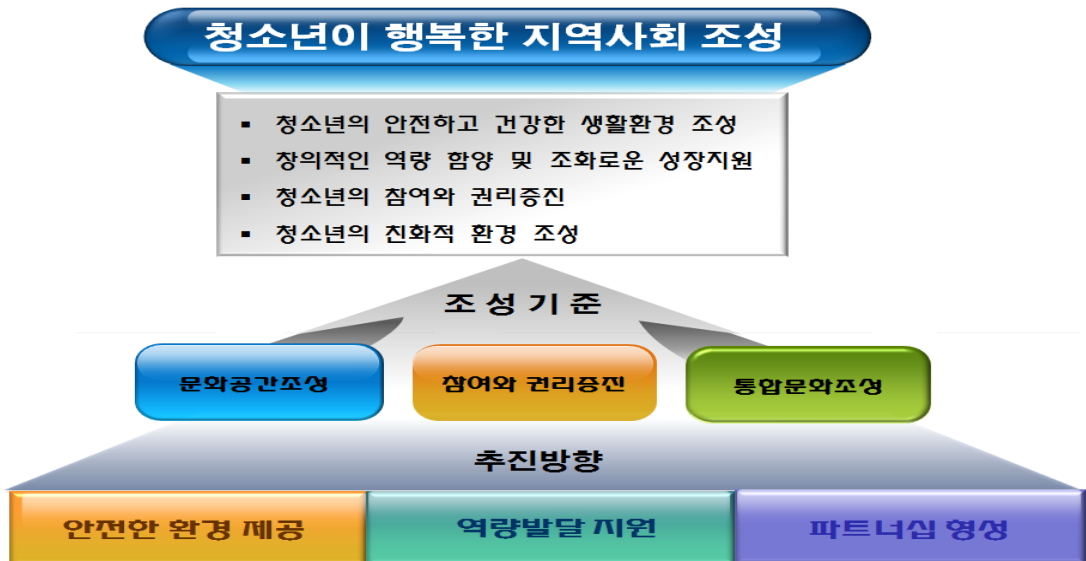
(2) 다양한 영역에서의 청소년 역량발달 지원

풍부한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의 제공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발달의 불균형 및 불공평이 해소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청소년 역량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교육환경, 교육자원, 교육 인프라, 연계 프로그램, 전문 인력, 그리고 교육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은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로서 충분하게 마련되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회 제공, 다양한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리더십 함양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3) 청소년과 지역 주민(어른)간 파트너십 형성

지역공동체 상호간의 협력과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친밀한 돌봄관계를 발달시키고 청소년과 성인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파트너십의 구축이 가능한 지역사회를 조성한다. 지역사회 주민의 절대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그림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실행체계

3) 기본 요건¹⁾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의 기본 요건은 유니세프가 정한 10가지 원칙 중 청소년의 참여, 청소년 친화적인 법과 정책, 청소년 정책 담당 부서, 청소년에 대한 영향평가, 예산확보, 청소년 실태 보고서로 한다.

(1) 청소년의 참여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이며,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시민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인의 시민적 참여를 증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Youniss & Yates, 1999). 청소년의 시민성은 청소년 본인의 건전한 발달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성적 미래 사회를 가능케 하는 정신적 토양이 된다(최창욱·조혜영, 2008 재인용).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이 참여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성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시민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지역주민에 대한 형평성에 입각하여 청소년 참여는 필수적이다.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청소년 참여는 정부의 정보나 조직 및 회의를 청소년들에게 개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정보제공방법의 다각화, 토론과 자문구조의 변화, 회의의 조직, 타이밍(timing) 및 의제의 변화를 포괄한다.

청소년의 참여를 규정한 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많은 국가에서 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부모, 교사, 기관 종사자 및 여러 사람들에게 청소년의 견해를 듣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견해를 반드시 청취할 수 있어 지역사회 발전의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2) 청소년 친화적인 법과 정책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기반이 없으면 지역주민 전체의 의사로 확대되기가 어렵다. 여성친화도시와 가족친화도시의 성공적인 운영은 각 지방정부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 것이

1)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황옥경·김영지, 2011: 98-102) 일부분을 발췌함.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는 각종 권리 침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이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옴부즈맨(민원도우미) 제도 및 모니터링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 청소년 정책 담당 부서

지방정부 조직 하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각 지방정부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립적 총괄부서(a high profile cross-cutting)를 지정하거나 정책조정위원회와 같은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효과적인 의견조율이 가능해 진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사무국 형태의 정책 및 실행 총괄부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4) 청소년에 대한 영향평가

지역 정부의 법, 정책, 업무 수행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하는 것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의 효과를 확인하는데 중요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영향 평가(child impact assessment)를 권장하였는데 이를 통해 특정 그룹 혹은 연령집단에 대한 법과 정책의 편중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청소년 영향평가는 자원과 인프라가 지역사회 마다 다양한 상황에서 각 지역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과정이다. 각 지역의 법이 실행되고 나면 이것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5) 청소년 관련 예산확보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가 가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할당할 것을 권고하였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의 예산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산분배의 내용과 양은 각 지역정부가 청소년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특정한 방법이다. 아울러 지역정부는 예산 배분이 공평한지, 자원의 활용에 차별이나 불공평이 없는 지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6) 청소년 실태 보고서

각 지역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의 삶의 양상이 정기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자료로 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일정한 범위의 통계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중심 정책 개발에 필수적이다. 아동·청소년 권리위원회는 분리된 데이터 수집을 아동권리협약의 실행을 측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반 측정법으로 간주해 왔다.

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기준

청소년을 둘러싼 지표 관련 선행연구(유니세프, 2006; 유니세프, 2010; 유네스크 GUIC, 2002; 한국청소년발달 지표, 2009; 한국아동청소년 지표, 2011, 2012;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2011; 청소년 행복, 삶의 지표, 201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 사업연구 II, 2014)를 보면, 청소년의 행복, 삶의 질에 관한 지표 연구들이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과 청소년을 둘러싼 관계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차원적 지수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과 청소년의 삶의 질, 행복의 측정에 있어서 경제, 건강, 안전, 교육, 관계, 활동, 참여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김지경 외, 2014: 38). 7개 세부사업추진 영역 중 본 연구에서는 3개 영역, 경제영역(청소년 상설 프리마켓 운영), 참여영역(청소년 옴부즈맨 기구 설치 및 시범 운영), 관계영역(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조성 기준으로 제시한다(오해섭, 2015).

(1) 청소년 상설 프리마켓을 운영을 통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경우, 경제와 금융의 실제적인 경험이 매우 부족하고, 금융학습에 대한 자발적인 동기 또한 미흡하다. 이는 성인이 된 후 삶과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대학생 대부업체의 대출이 2013년 말 1,500억원이 되는 등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금강원, 2014).

따라서 금융과 경제의 이해는 성인기의 삶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효과적인 금융과 경제, 더 나아가 진로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제금융과 진로역량을 높여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애주기의 실현 및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에 청소년들의

올바른 경제위기 고양을 위한 교육활동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을 이해하고 직접적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주체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김영한 외, 2014: 169).

청소년 상설 프리마켓 운영은 청소년들에게 자발적 경제참여를 통한 자신감 향상, 경제관념과 문제해결능력, 비즈니스 마인드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규모의 안전한 공간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리마켓을 지역별로 상설 운영을 통한 청소년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유도한다. 사업내용 및 추진 방법으로는 ① 청소년을 위한 프리마켓이 일회성 혹은 단발성 행사로 운영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 읍면동 단위별 주1회 정도의 상설 프리마켓 형태로 운영 ② 청소년 상설 프리마켓 시범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사업비 확보 ③ 프리마켓 운영을 위한 지역 내 가계와 협약 및 별도의 근거리 공간 조성 ④ 프리마켓과 문화공연 운영을 위한 참여 청소년 모집 ⑤ 정기적인 프리마켓 참가 청소년에게 일정한 사업체 명칭 부여 ⑥ 프리마켓 참가비와 수익금에 일정액을 지역사회에 기부 ⑦ 프리마켓 운영 시 정기적인 청소년문화공연 병행 실시 유도된다.

(2) 청소년 옴부즈맨 기구 설치 및 시범 운영을 통한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의 참여활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에 따른 결과가 모든 청소년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김남정, 2010: 16). 최근 유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등 국제기구에서는 주요 의제로 ‘청소년 참여’가 채택되고 있으며, 아동권리협약 UN(1989) 제12조 제1항에서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이상희·이혜원·최경옥, 2009: 130).

청소년에게 청소년 참여활동의 의미는 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에 따른 결과가 모든 청소년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인권신장 및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청소년의 잠재 역량 개발 및 사회성이 향상되는데 도움이 되고, 긍정적 사회관형성, 시민참여, 사회참여 실천의 시발점이 된다. 이는 청소년에게 긍정적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주도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김영한 외, 2014: 248).

청소년 옴부즈맨 기구 설치 및 시범 운영은 청소년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의 스스로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보하고 청소년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할 수 있다. 사업내용 및 추진 방법으로는 ①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정책(복지, 문화, 안전, 교육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진행 ②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토론과 조사 활동을 통해 개선점을 찾고 이를 지자체에 제안함 ③ 해당 지역 내 학생회 대표, 청소년 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 등 청소년 정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 청소년 복지·문화·안전·교육 등의 분과별로 활동을 진행함 ④ 청소년들의 제안 내용을 지자체에서 부서별로 검토 후 수용 및 반영 여부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는(조례 등의)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3)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통한 통합문화 조성

최근 몇 년간 스마트폰과 인터넷 보급, SNS 활성화 등의 정보통신 기술과 그 활용은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이로 인해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의 소통의 기회는 더욱 줄어들어 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최근 저출산 고령사회, 1인 가족사회, 성장세대 인구연령 감소사회 등으로 급격한 사회적 변동을 겪고 있으며 특히 세대 간 격차가 큰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김영한 외, 2014: 223-226).

그리고 학업, 직장 및 가사 일 등으로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유대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가족의 건강한 유대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운영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은 ① 어르신과 함께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②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센터, 청소년시설, 학교, 교회 등의 시설을 활용 ③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르신과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공동 기획 ④ 지역의 청소년지도자, 자원봉사자, 교사 등의 도움으로 프로그램 운영 ⑤ 청소년기관, 지역발전위원회, 지자체 행정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⑥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연극, 독립영화, 오페라, 콘서트, 전시회, 요리실습, 춤 배우기, 지역사회 유산에 관한 토론회 등이다.

<표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추진방향

영역별	개념	사업내용 및 추진방향	성과 보고
문화공간 조성	· 청소년 상설 프리마켓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자발적 경제참여를 통한 자신감 향상, 경제관념과 문제해결 능력, 비즈니스 마인드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유도함.	- 주 1회 상설 프리마켓 운영 - 프리마켓 계획 수립 및 사업비 확보 - 프리마켓 공간 조성 - 프리마켓과 문화공연 운영을 위한 참여 청소년 모집 - 정기적인 프리마켓 참가 청소년에게 일정한 사업제 명칭 부여 - 수익금에 일정액을 지역사회에 기부 - 정기적으로 청소년문화공연 실시	
참여와 권리증진	· 청소년 옴부즈맨 기구 설치 및 운영은 청소년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의 스스로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보하고 청소년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하도록 함.	-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진행 여부 -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토론과 조사 활동을 통해 개선점과 발전 방향을 제안 - 해당 지역 내 청소년 정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 청소년 복지·문화·안전·교육 등의 분과별로 활동을 진행 - 청소년들의 제안 내용을 지자체에서 부서별로 검토 후 수용 및 반영 여부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통합문화 조성	· 지역 내 청소년 세대와 어르신들 간 격차의 해소 및 세대통합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와 어르신 세대와 청소년 세대가 서로 소통·공감을 통한 통합문화를 조성함.	- 어르신과 함께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 어르신과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공동 기획 - 지역의 청소년지도자, 자원봉사자, 교사 등의 도움으로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기관, 지역발전위원회, 지자체 행정기관 간의 유기적인협조체제구축 -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연극, 독립영화, 오페라, 요리 실습, 전시회, 지역사회 유산에 관한 토론회 등 마련	

5) 추진 시 고려사항²⁾

(1) 조성 기준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각 지방정부의 예산과 인력 규모, 사용가능한 행정체계와 관련기관의 참여 수준, 그리고 청소년 생활실태에 따라서 각 영역의 우선순위별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추진할 수도 있다.

(2) 지역규모 및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 조성 계획 수립

대도시의 경우와 소규모 도시 그리고 농어촌의 경우는 지역 특성에 따라 행복한 지역의 우선 요건이 다를 수 있다. 지역별 규모에 따른 요건은 평가지표의 요구조건을 만족 시킬 수 있는 정책의 수립, 운영 및 관련기관의 운영 점검 및 설립, 그리고 프로그램 신성 및 내실화 등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 대도시

- 안전먹거리 장소 확대
- 건강지원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 녹지공간의 확보
- 안전한 이동
- 유해업소의 최소화
- 청소년 활동 공간
- 교통안전 시설
- 지역사회 재능 나눔
- 공공건물 유휴 실외 공간 및 공공놀이기구의 청소년 놀이 공간
-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참여 통로 마련
- 인권 옹호 기구

2)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황옥경·김영지, 2011: 112-114) 일부분을 발췌함.

○ 중소도시

- 공공의료 기관 및 인력 배치
- 녹지공간 확보
- 안전한 이동
- 청소년 활동공간의 확보
- 마을 주민 안전보호네트워크
- 청소년 여가 및 활동 공간 확보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 공공건물 유휴 실외 공간 및 공공놀이기구의 청소년 놀이 공간
-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참여 통로 마련
- 인권 옹호 기구

○ 농어촌

- 가로등, 보안등 수, 밝기 적정성
- 공공 도서관 확보
- 청소년 전용시설
- 청소년 전용 활동 공간
- 도서관
- 필요한 전문인력의 배치
- 다양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참여 통로 마련
- 인권 옹호 기구

3. 결론

최근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는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일본이나 유럽, 미국 청소년들과 대조적인 수치로 낮게 나타났다(김기현 외, 2009). 이는 핵가족화와 경제위기의 여파와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빈곤층의 증가로 가정의 경제적 지원 및 심리적 지지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장근영 외, 2013). 이처럼 빈곤화 되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을 보다 긍정적으로 성장·발달시키고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건으로 국제사회와 많은 연구자들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은 발달 특성상 외부환경에 취약한 탓에 지역사회 영향을 보다 많이 받고 있다. 지극히 개인수준 안에서 발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행복과 같은 심리적 특성, 행동적 특성도 지역사회 체계와 연계, 협력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차원에서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의 조건을 제시하고 최적의 환경체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청소년 행복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장근영 외, 2013: 28).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의 조성을 위해 목표 및 기본방향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발달하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성취해 나가는 지역사회가 되려면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창의적인 역량 함양 및 조화로운 성장지원과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의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의 기본방향은 청소년의 안전, 청소년의 역량발달 그리고 청소년과 지역주민 간 파트너십 형성을 핵심가치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하다. 일부 자치단체가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를 지향하며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는 것은 기대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제정과 관련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제안한다. 둘째, 청소년의 행복증진을 위해 청소년시설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질을 보다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한 환경을 감시하는 수준을 넘어 유익한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 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여가생활을 즐기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적극적 청소년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확한 현황 및 실태 파악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 친화마을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성장 환경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하며 청소년 영향평가를 통해 정확한 지역사회 진단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 권세원, 이해현, 송인한(2012). 청소년 행복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탄력성모델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3(2), 39-72.
- 권해수, 김기현(2010). 자율적 행동역량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핵심역량 만족도, 진로계획 및 학업성취도, 교육심리연구지, 24(1), 83-102.
- 김기현, 안선영, 장상수, 김미란, 최동선(2009). 아동청소년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김남정(2010). 청소년 정책 참여활동의 촉진 및 장애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 법과 인권교육연구, 3(3), 15-47.
- 김선숙(2008). 빈곤아동 심리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WE Start 대상아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자, 김정혜(2008). 서울시 고령친화도 평가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영한, 임영식, 김민(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연구보고 14-R15-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린다, 오세숙(2011). 한국청소년의 여가, 건강, 그리고 행복에 대한 고찰.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5(3), 173-180.
- 문성호, 문호영(2010). 청소년활동의 참여실태, 만족도 및 영역별 효과성, 청소년복지연구, 12(2), 95-122.
- 박종화(2007).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교육특구 운영 모형: 경기도 군포시 사례.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해섭(20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연구 II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상희, 이해원, 최경옥(2009). 아동,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청소년복지연구, 11(3), 129-148.
- 장근영, 이해연, 배상률, 성은모, 이용교, 홍승애(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3-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천정웅, 김민, 김진호, 박선영(2011). 차세대 청소년학총론. 파주: 양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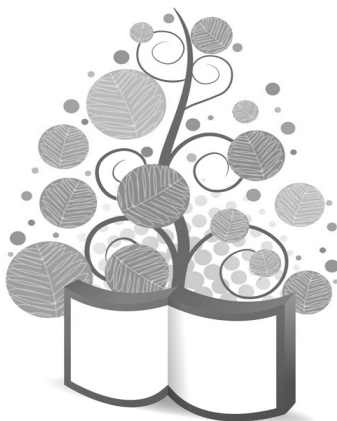
- 최창욱, 조혜영(2008). 청소년 정책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청소년학연구, 14(6), 203-227.
- 허승연(2009).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승애(2013).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승애, 이재연(2011). 아동 친화적인 도시에 대한 부모 및 사회복지사의 인식. 육아정책연구, 5(1), 149-172.
- 홍승애, 이재연(2014).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 아동과 권리, 18(2), 303-330.
- 황옥경, 김영지(2011).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수시과제, 11-R17).
- Levental, T., & Brooks-Gunn, J. (2000). The neighborhoods they live in : The effects of neighborhood residence on child on child and adolescent outcomes. *Psychological Bulletin* 126, 309-337.
- UNICEF(2010). *Child Friendly Community Assessment A Facilitator's Guide*.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Florence.
- UNICEF(2012).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Florence.
- Youniss & Yates (1999). Youth service and moral-civic identity: A case for everydaymorality.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1, 361-376.
- The Children's Society(2013). *The Good Childhood Report 2013*.
[http://www. childrenssociety.org.uk/well-being](http://www.childrenssociety.org.uk/well-being).

발 표 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네트워크 구축 방안

- 중앙 및 지역 단위, 민-관 협력 중심 -

- ▶ 발표자 : 김 주 희 박사(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토론자 : 김 정 주 박사(모든학교체험학습연구소 소장)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네트워크 구축 방안

김 주 희 박사(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 들어가기

청소년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한 의견 표현과 참여는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도 건강한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현재 생활뿐 아니라 미래의 준비에도 자신감과 목표의식이 생기게 한다. 특히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참여는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교사관계, 또래관계의 유대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애착과 흥미를 유발하는 유익한 권리이다.

유니세프는 청소년 친화마을 구성에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 청소년의 참여를 들고 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시민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인기의 시민적 참여를 증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Youniss & Yates, 1999).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시민성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자아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발달과업이 된다. 아울러 청소년의 시민성은 청소년 본인의 건전한 발달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성적 미래 사회를 가능케 하는 정신적 토양이 된다(최창욱·조혜영, 2008). 이를 위해 지역의 청소년, 민간과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시민이 연합하여 주민자치 조직 형태의 청소년친화마을 추진 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는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공간 계획이나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할 수 있다.

그런데 급격한 청소년 인구 감소와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역할이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합한 지자체의 인식 및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헌법에도 보장하고, 청소년기본법에도 정하고 있으며 국제협약인 “UN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청소년의 권리 및 참여를 정당하게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실현 방안을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되지 않았다.

청소년들은 서비스의 계획과 설계에 의미 있는 당사자이며 지역사회 파트너로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즉 가족 내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는 기회, 또래 그룹 내에서의 결정 사항에 의견의 제시, 공동체 내에서의 결정에 참여하는 기회, 지역의사결정 과정에 수반되는 기회, 공동체 활동에 참가 등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사회가 청소년 친화마을의 조성요건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의 기본관점은 청소년의 행복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삶의 터전을 균형적,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는 청소년의 안전한 삶의 공간 제공과 자유로운 역량 개발 체계,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추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사업추진 전담 기구의 설치 및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단위의 청소년 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나아가 청소년 친화도시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획득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발표자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및 추진 전략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통해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확산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실태 및 사례 등을 탐색해 보고 중앙 및 지역사회,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회의 변화를 새롭게 이해하는 개념 망으로 등장한 네트워크라는 용어는 실제 사회적 실천 혹은 운동을 위한 방법론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지역 내 파트너십을 가져오고, 교육안전망을 구축하며, 지역사회 시민운동을 위한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방법론으로 제시되어 왔다. 또한 미래의 학교 형태에 대한 혁신적 비전으로 제시된 바도 있다(OECD, 2003).

Perkin & Borden(2006)은 학교들은 정형화된 구조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반하여 지역사회는 사회화와 배움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예민한 삶의 기술과 권한을 증진되도록 작용한다고 하며, 청소년의 방과후 여가시간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청소년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성인들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학교와 함께 청소년들의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성장환경으로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그러나 청소년 육성의 영역이 광범위하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욕구 또한 다양하다. 청소년 육성은 다양한 내용의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각적인 시스템, 즉 학교와의 연계, 학부모와의 협력, 행정기관 및 입법, 사법 기관과의 공조 등을 필요로 한다. 단일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자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면밀하게 계획된 지역사회 청소년연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김정주 외, 2004).

이러한 청소년정책에 있어서의 연계망 형성의 필요성은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김정주 외(2004)는 지역단위에서 청소년 육성 기능강화를 위해 지역의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문화·복지·시민단체 등의 영역과 연계한 지방청소년육성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가 정책은 CYS-net,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같은 서비스 전달체계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역사·문화 등 사회적 인프라와 청소년 고유의 여가문화를 네트워킹하여 청소년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건전 놀거리 정착을 위한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는 문화존 사업의 목적으로도 잘 들어나고 있다.

1) 지역사회 교육복지 네트워크

지역사회 교육복지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네트워크에 대해 이론적·실천적 관심들이 있어 왔다. 특별히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의 교육네트워크 구축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주요 주제로 정책방향 및 과제, 네트워크의 구성요소, 네트워크의 형성과정 등을 삼고 있다. 또한 몇몇 연구들은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학교의 미래상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김경애, 2009)

네트워크형 교육지원체제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이 함께 엮여져서 통합적인 체제를 갖추어 복합적인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어왔다. 네트워크 체제가 구축될 때,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갖는 복합적인 욕구를 그 안에서 윈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2009, 김경애) 교육복지 지원체계로서 네트워크가 갖는 강점을 인정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교육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의 현장 사례로 서울 노원지역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이하 교복투 사업) 실행과정을 살펴보았다.

교복투 사업은 심화된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 및 새로운 취약계층과 그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 등을 문제시하면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복지적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접근방법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채택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노원지역은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운영해오면서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사업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지역 내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접근법과 방법론을 발전시켜올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네트워크 경험이 거의 없는 가운데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과 함께 참여하는 계기가 있어야 하며, 네트워크가 점차로 발전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공동사업을 움직여 가는 연료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노원구는 교복투 사업예산을 마중물로 해서 다양한 외부 자원을 지속적으로 지역으로 흡입하면서 네트워크 역할을 키워왔다. 리더와 테스터(taster)도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지역 내에 공식적이진 않더라도 이 사업의 비전을 믿고 헌신적으로 기여하는 어른,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사업을 먼저 실천해가면서 다른 기관과 사람들이 따라해 볼 수 있는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가는 선구자가 있어야 한다. 이들을 구심점으로 혹은 정신적 지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역할을 나누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또한 온갖 형태의 공유의 장, 즉 끊임없는 만남의 기회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만남의 장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회의뿐 아니라 자유로운 형식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의사소통 방식을 동원할 수 있다. 사실은 네트워크 성장 과정에서 접촉은 점점 비공식적 양상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 사례를 볼 때, 공식적인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천가들이 생각할 때 실질적인 네트워킹은 전화, 메신저, 각 종 만남에서의 대화 등 비공식적 과정 속에서 가능했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민·관·학 각 조직들이 가진 기능들이 결합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권력을 가진 지역 교육청, 전문성과 대상학생의 서식처로서의 학교, 자발성과 의욕을 가진 민간기관이 각각 사업을 움직이는 바퀴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비로소 독자적인 기능을 가진 지역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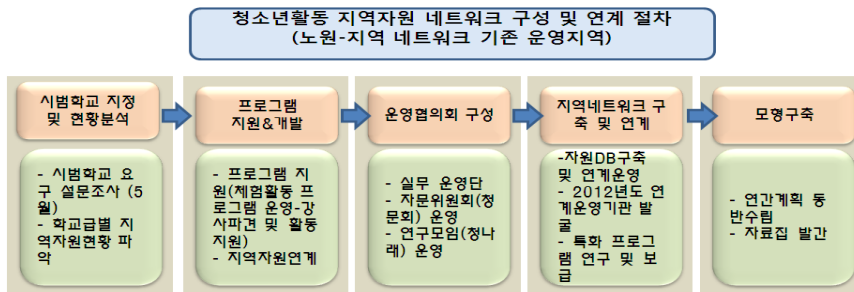
것을 이 사례는 잘 보여준다. 여기에 지역살림을 관할하는 지자체까지 결합되면 이 사업은 더욱 탄탄한 네 개의 바퀴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지역사회의 교육복지 활동에서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위해 교육복지 지원체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의 학습과 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그런데 이 목적을 위해서 체제를 구축할 때 추구되는 것이 네트워크의 활성화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의 교육복지 네트워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는 없지만 이러한 체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2)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 내에서의 아동·청소년기관 및 지도자의 역할은 다양하고 통합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하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도자 혹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지역사회의 유용한 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를 앞으로 자신이 살아야 할 ‘공동체’와 ‘삶의 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활동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김주희,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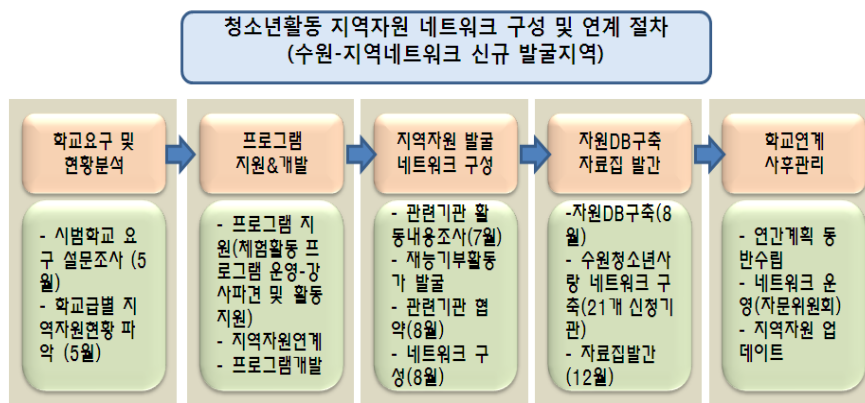
지역의 여건에 따라 지역네트워크 구축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코디기관이 속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1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추진한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델 시범사업 지역 중 하나였던 노원지역의 경우 교육복지와 관련된 지역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에 파악되어 있었던 지역자원을 창의적 체험활동 자원으로 전환하여 연결하는 단계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



출처 : 이기봉·김현철 외(2011) 창의적체험활동 지역자원연계 시범사업 매뉴얼

[그림 1] 청소년활동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 절차(노원지역)

이에 반해 수원지역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지역네트워크가 미흡한 상태였다. 따라서 수원지역에서는 청소년기관, 평생학습기관, 복지관, 도서관, 관공서, 시민단체 등 수원시내 아동·청소년 활동 관련 시설·단체·기관별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취합하는 등 지역자원을 발굴해 DB를 구축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수원지역에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창의적 체험활동 네트워크 참여 신청에 관련된 공문을 발송하여 네트워크 참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한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자원 목록 데이터를 정리하고 자료집을 개발하였다.



출처 : 이기봉·김현철외(2011) 창의적체험활동 지역자원연계 사업사업 매뉴얼

[그림 2] 청소년활동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 절차(수원지역)

코디기관(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은 지역사회기관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자원으로 발굴된 지역사회자원을 ‘청소년 체험활동지원 지역사회협의회’운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또한 지자체에 창의체험지원 해당부서와 코디기관이 연계되어, 해당지역 교육지원청과 창의체험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개인적·사회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자원과의 연계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체험활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시설자원 등의 통계를 명확하게 갖추고, 각 자원의 연계와 협력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지역사회 내에 있는 대학, 기업, 종교시설, 학교시설, 문화시설 등을 총 망라하여 청소년 활동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 지역사회 보호 네트워크

청소년 행복을 위한 청소년 보호는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과 위험가능성을 방지하고 그들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사회적 노력의 전체를 의미한다(김주일, 2004). 따라서 청소년 보호는 청소년을 둘러싼 외부환경, 즉 가정 및 또래환경, 문화, 보건, 노동, 교육, 대중매체 등 사적·공적 영역의 모든 분야의 협력을 전제로 한다. 이는 전 지역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실천된다. 즉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조직들이 개개의 이익을 초월하여 청소년보호라는 목적의 공유 하에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접근이 이루어질 때 소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 보호 네트워크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네트워크에서는 가치의 공유,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통로, 사회적 교환 및 파트너십을 통한 공유가 경쟁보다 중요시된다.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시민들에게 신뢰와 호혜주의와 같은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는 규범을 생성시키고 이러한 규범은 사회공동체에 필요한 자원, 서비스, 또는 시설의 협동적 생산을 촉진시킴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높인다(유재원, 2000). 이는 실천적 차원에서 네트워크가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와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을 토대로 서비스 역량과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최종혁, 2007).

다양한 전략 중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이용표(2005)가 제시한 ‘자원초월전략’이다. 이는 지역사회네트워크가 정부가 관심을 갖는 화폐적 자원보다는 이념적인 차원에서의 자원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즉 주민 참여 등의 인적자원으로 관심의 초점을 옮겨가는 방식이다. 실제로 청소년 보호와 같은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운영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청소년지킴이활동이나 청소년보호캠페인 등과 같이 소지역단위의 네트워크 활동에서는 부녀회, 주민자치회, 청년회 등과 같은 다양한 주민단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지역주민 참여의 적극성 정도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리더의 역할과 그들의 리더십 발휘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소년보호 지역네트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 내 모든 주체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청소년보호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나아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기관, 단체, 조직들

간의 파트너십에 토대한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제도적·구조적 체계의 확립과 더불어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파트너십에 기초한 청소년보호 지역네트워크 구축은 행정의 차원에서는 과거의 통제나 관리차원에서의 접근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공식·비공식적 지역사회 섹터를 상호협력관계로 지원 육성해야 할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각 자원들이 청소년보호를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협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3. 중앙 및 지역사회·민-관 협력 네트워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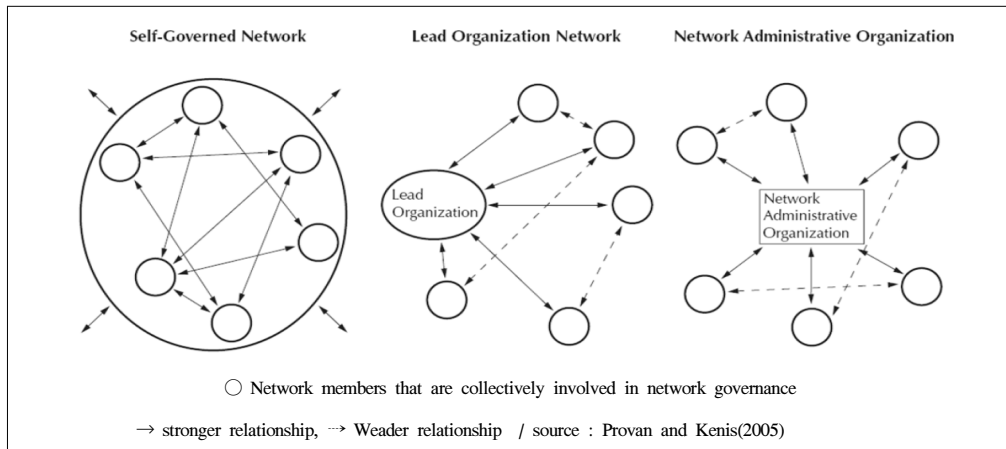
도시 안에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동체다운 인간관계와 소속감이 있는 지역사회의 삶을 보다 나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이루어내고 유지하고자 하는 실천 활동을 전개하는 주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필요하다. ‘마을만들기’는 이러한 사람을 만드는 일이고, 그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장소를 지역마다 정체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가꾸는 일이다. 지역주민들이 공통적 관심사를 기반으로 삼아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마을만들기는 ‘운동’으로 시작되어 이제 행정이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참여주체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성화 유형분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대욱·박승규·최인수(2012)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로 크게는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으로 나누고 먼저, 정부주도형에서는 중앙정부 주도형과 지방정부 주도형으로 나누어 보았으며, 민간주도형에서는 자립형, 파트너십, 거버넌스형으로 분류하였다.

정부가 정책을 통해 활성화를 할 경우에는 정부주도형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역공동체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완주군 공동체 기반사업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지방정부 주도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마을공동체 육성의 성공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광역수준 뿐만 아니라 기초수준에서도 스스로가 직접 참여하기도 하지만 중간지원 조직을 설립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과 지역공동체 육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하고 있다(주상현 2012).

중간지원조직은 지방자치, 경제적 분권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네트워크화와 같은 변화와 함께 다음의 4가지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Blank, et, al, 2003: 고재경 외, 2012). 우선 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서비스 제공의 한계에 따라 민간부문과의 계약이나 위탁을 통한 서비스 전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공공서비스 전달의 분권화와 공동체 참여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인다. 세 번째, 서비스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간 파트너십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역개발, 공공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비영리부문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들 민간단체를 지원 할 수 있는 중개자로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반 · 케니스(Provan & Kenis, 2007)는 네트워크 유형을 참여자지배형 네트워크(Participant-Governed/Self-Governed Networks), 주도조직 지배형 네트워크(Lead Organization-Governed Networks), 네트워크 행정조직형(Network Administrative Organization, 이하 NA) 등 3가지로 분류한다.



출처: 고광용(2014). 자치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비교연구

[그림 3] 네트워크 유형

우선 참여자지배형 네트워크는 가장 간단하고 혼한 형태이며, 별도의 독특한 거버넌스 조직체가 없이 네트워크 구성원들에 의해 지배되는 형태이다. 이 네트워크 유형은 분권화 수준이 높고, 대부분의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상대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작용을 맺는다.

두 번째 주도조직 지배형 네트워크는 수직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의 강력하고 큰 주도(lead) 조직과 여러 약자(several weaker)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 조직이 주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과 정통성을 갖으며, 그 조직은 주요한 자원과 구성원들의 흐름에서 중앙의 위치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리더 역할을 수행한다. 주도 조직은 주요한 네트워크 수준에서 활동한 주요한 결정을 조정한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불균형적인 힘을 가지며 높게 집권화 되고 흑막에 좌우된다. 주도 조직은 구성원 조직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네트워크를 위한 행정 및 그 비용을 감당한다.

끝으로 NAO 모델은 별도의 행정조직체가 네트워크와 그것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된다. 주도조직 모형과 같이 NAO 모형도 집권화 되며, NAO는 네트워크 브로커로써 네트워크를 조정하고 유지하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NAO는 정부 조직체 혹은 비영리 단체일 수도 있다. NAO는 거버넌스의 복잡성을 줄이고 독특하고 복잡한 네트워크 수준의 문제와 이슈를 처리하며, 네트워크 정통성을 고양하는 장치로서 역할을 한다. 정부운영 NAO는 지역경제개발과 같은 광범위한 목표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설립되며, 네트워크 목표달성의 보장과 보조금 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다(Provan & Kenis, 2007 :234~236).

이렇듯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실천적으로는 사례의 구체적인 현황 속에서 드러난 성공요인 제시와 실천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얻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간접적으로는 정책의 측면에서 현장의 필요를 이해하고 전반적인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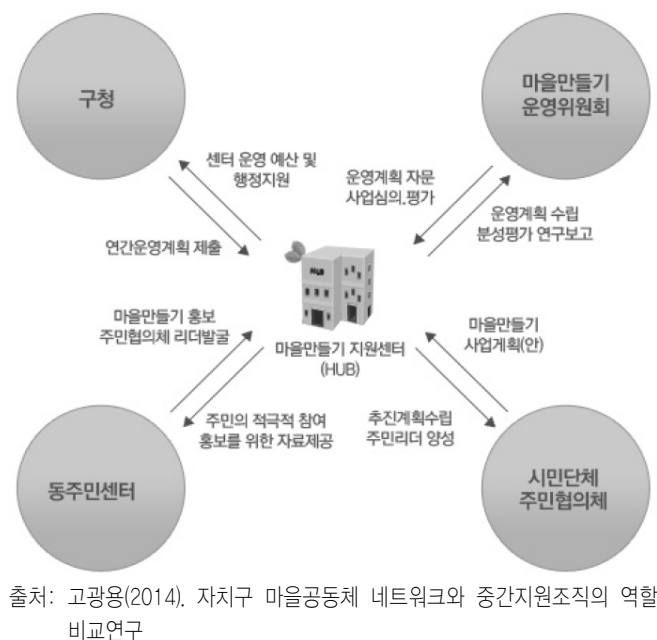
4.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성 사례

1) 중간지원조직 주도형 네트워크(서울시 성북구)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집권하면서, 마을공동체 육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커지면서 3대 과제와 10대 전략을 세우고 각종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구의 마을공동체 육성 실태조사 및 역량 구축, 마을공동체 공모 및 지원사업 등 각종 행·재정을 지원하고

있다(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서울시는 이 사업의 역량 있는 추진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으로써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각 자치구의 마을공동체 육성 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 마을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들 중 중간지원조직을 두고 있는 곳은 금천구와 성북구만이 있으며 성북구는 2011년 (사) 나눔과 미래에 위탁운영을 맡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립 운영 중에 있다.

성북구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있어서 정부지원이면서 위탁형 중간지원조직 주도형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구청으로부터 예산 및 행정지원을 받고, 구청에 연간운영계획을 제출한다. 또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동주민센터에 각종 자료제공 및 주민리더 육성 사업, 성북구와 운영위원회의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4] 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네트워크

성북구는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있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활동과 참여 및 정보공유를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브로커 역할을 통해 더 높은 밀도와 성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과지표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도에서 성북구는 6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 서울시 24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 주도형인 동대문구는 3개로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중간지원조직이 성과를 내고 있음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입증한 것이다(고광용, 2014). 그러므로 향후 지방정부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지방정부 주도형 보다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고 중간지원조직 주도형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이 더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성북구는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마을과 관련한 다양한 주체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기반한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마을만들기 활동 유형을 정리하면 ① 네트워크 주체 발굴 및 연락망 구축, ② 마을만들기 관련 정보 및 활동 공유, ③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④성북구 전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⑤ 마을단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표 1>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방안 관련 추진전략

구분	실현수법
네트워크 주체 발굴 및 연락망 구축	- 지역자원 조사 과정에서 풀뿌리단체(교육, 복지, 문화, 예술, 시민운동 등)와 사회적경제조직, 대학교, 전문가 등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주체를 발굴한 뒤, 개별 연락을 통해 기본적인 활동 정보와 연락처를 확보하고 상시적인 연락망 구축
마을만들기 관련 정보 및 활동 공유	- 연락망을 통해 성북구 내 다양한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활동결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 - 네트워크 주체별 주요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결과 공유를 통한 상호간의 활동 이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목표로 구성원의 범위, 운영횟수 및 주기, 주요 논의내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 성북가 전체 차원과 마을 단위 등 공간적 범위에 따른 네트워크에 대해 별도 계획 수립

구분	실행수법
성북구 전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행정(주무부서,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 사회적경제지원단, 청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센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함께하는 성북마당,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신청 등 주민모임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민관 또는 민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고, 전체 네트워크는 분기별 모임을 통해 사안 공유 및 검토
마을단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주민 모임을 중심으로 하여, 행정(동주민센터), 복지관, 자원봉사단체, 보건소, 작은 도서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협조조합 등 마을을 기반으로 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성하여 주민모임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

출처: 서종균 외(2013). 성북구마을만들기 기본계획수립 연구

성북구는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개선을 위해 사회적경제과에 소속된 마을만들기 지원팀을 마을만들기 담당관으로 전담부서의 위상 및 기능을 강화하였고 마을만들기 추진본부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행정협의체로 전환하여 분과별 사업 발굴 지원 및 협력을 도왔다.



출처: 서종균 외(2013). 성북구마을만들기 기본계획수립 연구

[그림 5] 성북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개선방안

나아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운영체계화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조사기획 기능 강화 및 마을만들기 연구회, 대학교, 분야별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운영을 효율화를 추구하고, 사회적경제단체, 뿌뿌리단체, 주민모임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로 장기적으로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단을 통합한 마을재생센터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2) 시민공동체운동, 협력의 거버넌스(수원시)

수원시는 마을르네상스를 주민 스스로 문화·건축·환경이 모두 어우러지는 마을을 새롭게 ‘아름다운 삶의 공간’으로 디자인하고 가꾸어나가는 ‘시민공동체 운동’으로 정의하고 사람 중심의 마을공동체 회복·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실천·새로운 미래 창조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개발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산업화·도시화로 잃어버린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여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나가는 사업과 활동을 2011년 전개하기 시작했다.

수원 마을르네상스의 참여공동체는 크게 3개의 주체가 중심이 된다. 첫째는 자발적 사업 참여로 마을만들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지역의 ‘마을주민’이고, 다음은 행정 및 민간지원 협의체를 운영하고 정책 수립 및 제도적 지원을 기획·진행하는 수원시 ‘마을만들기 추진단’, 마지막은 공모사업 현장지원, 주민역량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르네상스센터’이다. 각각의 참여주체들은 자신의 조직을 지원하는 서포터(supporter)가 있어 보다 안정적인 활동구조를 갖추어가고 있다. ‘마을르네상스센터’는 단체 단위의 ‘마을르네상스 파트너’와 개인 단위의 ‘마을르네상스 서포터’를 통해 전문가 풀(Pool)을 확보해 부족한 현장지원을 보완하고, ‘마을만들기 추진단’은 ‘행정협의체’와 ‘공무원 서포터즈’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부서 간 협력체계를 확보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을 포함한 마을르네상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자문하는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외에도 구청과 동주민센터, 전문가 그룹, 시민사회단체,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 매스미디어 등 지역사회에 소속한 다양한 조직이 마을르네상스를 지원하고 있다.

참여 활성화 단계에서 주민들은 소모임이나 조직을 구축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주민조직을 구성하는 데에는 이미 조직력이나 추진력을 가진 동 소속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조직의 리더나 실무자는 기존 조직의 리더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신규로

마을조직이 형성되는 경우 마을교육 및 인큐베이팅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새로운 리더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조직은 경험치가 축적된 리더와 실무자를 양성했고, 동(洞), 구(區)·시(市)의 지방자치행정 및 전문가 등 지역사회의 다른 조직들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또한 지원센터의 세미나 등 교류 프로그램이나 전문가를 허브로 주민조직 리더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포터 지원,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마을계획 등을 통해 지역의 문제 해결과 마을만들기 인력지원을 위한 주민과 지역대학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준주민자치 단계에서 주민조직은 마을만들기 사업 경험을 통해 전문성과 주체성을 갖추면서 직접 마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 및 시민단체, 전문가를 활용하여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유지 관리하는 등 공동체의 활동 결정기구와 집행기구를 활용해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

수원의 정책적 마을만들기 사업의 마을르네상스는 협력적인 거버넌스의 실천과 마을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마을르네상스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었다. 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마을만들기를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교육 및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표 2> 지역공동체 발달과 마을조직 및 네트워크

공동체 발달 단계	마을만들기 내용	해당 공동체	지역공동체 발달 내용
1단계 (참여활성화 단계)	수원마을학교	B3	- 마을의제를 발굴하여 공동의 문제의식 형성 - 마을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 정체성 이해와 애착심 고취
	마을르네상스학교	A2-1	
	푸른경기21 도시대학	B2, C1-1, D1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마을계획	B3, D1-2	
	씨앗공모 프로그램	C3	
2단계 (공동체성구비 단계)	회계교육, 맞춤형 주민교육	공모사업 수행주체	- 행정과 협력해 공모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강화
	전문가 컨설팅	A2-1, C1-1-1	- 전문가와 함께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역량강화
	파트너·서포터 지원 및 모니터링		
	마을르네상스학교	A2-1	- 공동체 지속육구와 연계된 다양한 사업 발굴 및 마을계획 수립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마을계획	B3, D1-2	
	공동체 프로그램, 시설 및 공간 조성	B3, B4, C1-1-1, D2, D4, A1_1, E2_1, E3	- 공동체 프로그램과 연계된 마을계획으로 정체성 및 사업 발굴 - 축제, 시설조성 경험을 바탕으로 강한 응집력 및 역량 구축
	3단계 (준주민자치적 단계)	열린광장, 마을디자이너 워크숍	A1-1, A2-1, A4-1, B1, E3
파트너·서포터 지원 및 모니터링			
전문가 컨설팅			
공동체 프로그램, 시설 및 공간 조성			

출처: 신종진·정지혜(2010).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의 역할과 과제

3) 민간주도 방식 네트워크(인천시)

인천시를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기존에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던 마을만들기 조직의 활동 유형, 특성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조직의 성격이나 운영과정 차이에 따라 마을만들기에 대한 공공 지원 방향과 방식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시는 민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생적인 마을만들기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며 전면철거 중심의 도시정비 한계로 인해 새로운 정비수단으로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재인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공공이 마을만들기를 정책시키고 새로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공동체를 비롯한 추진체계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전략과 제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을만들기의 참여주체는 크게 민간, 공공, 그리고 민간과 공공의 중간성격을 가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체인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로 다시 구분할 수 있으며, 공공은 인천시와 각 군구가 역할을 구분하여 인천시의 마을만들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인천의 마을공동체 활동은 대부분 민간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인천지역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에 참여한 공동체를 살펴보면, 지원 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민자치센터, 시민단체, 복지관, 생협 등을 기초로 하는 민간 주도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 부문에서의 마을 만들기 움직임은 타 지역에서의 마을만들기 사업추진과 마을기업활동, 협동조합조직 등의 마을공동체 흐름과 맞물려 그의 추진체계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이러한 민간 중심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인천시 마을만들기 활동조직은 대부분이 아직 성장 초기단계에 해당하며, 지속성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 중이다. ‘푸른샘어린이 도서관’의 경우, 주민자치 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한 주민활동이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느루’를 설립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후 마을기업 ‘사람사이’를 설립하는 등 그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있다. 특히, 느루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도서관의 공간디자인을 비롯한 프로그램 등을 기획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모든 도서관 설립과 관련된 기금이 지역사회

내부에서 제공되었다. 이후 도서관 설립에 참여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마을기업인 북카페 ‘사람사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만든 마을 기업을 통해 지역의 자원순환을 통한 선순환 경제구조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의 활동 특성과 시사점을 종합하면 <표3>의 내용과 같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천마을만들기 추진조직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공공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설정하는 데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중앙과 지역사회,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도출하는데, 지속가능하고 유연한 공공차원의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민간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동체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공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표3> 마을만들기 사례의 활동 특성 종합

구 분	특 성	시 사 점
추진체계	○ 공공 제고의 공간과 주민 자체적 역량 강화 및 활성화 - 민간과 공공의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 - 주민자치센터, 시민단체, 복지관, 생협 등 활용	○ 단기적 차원 : 조례 제정, 예산확보, 전담 조직 구성 ○ 장기적 차원 : 기초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군·구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중심) ○ 민간주도+공공지원 형태의 공공개입 최소화
활동목적	○ 특정 활동 중심에서 공익적 성격으로 활동 다변화	○ 주민 교류 확대가 마을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논의의 매개체로 확대
공동체성장방향	○ 공공의 관심사에서 마을의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영역 확대	○ 공공의 지원 확대로 건전한 기능 활성화 유도 - 마을기업 운영 노하우 및 사례 탐방, 전문적 교육프로그램 제공
구성원역할	○ 특정 리더 중심의 사업추진에 따른 지속성 확보 한계	○ 주민 자체적 능력 제고 방안 및 적정 인력제공 확보 지원

출처 : 이왕기 외(2013),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의 활동유형 및 특성 도출

4) 강점관점 지역복지 네트워크(우리아이희망네트워크 지원사업)

‘우리아리 희망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던 사회복지사의 경험을 토대로 강점관점 사례관리에서 지역복지 네트워크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삼성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6년간 전국 11개 지역센터에서 연간 약 1,000여명에 이르는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 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해왔으며 사회복지 실천 현장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다(김경희 외, 2013).

강점관점 사례관리에서 지역복지 네트워크 실천 경험을 기존 지역복지 네트워크 실천과정과 비교해 그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 준비단계이다. 기존 지역복지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신의 역량도 고려하여 적합한 네트워크 방식을 탐색하면서 조직내부에서 관점과 방법을 공유하고 외부에 이를 알리는 과정이었다(김영종외, 2008). 강점관점에서는 외부의 기관들에게 네트워크 계획을 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목소리들을 모았다. 지역 기관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사회가 경험적으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심리적으로 공감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둘째, 네트워크 구성단계이다. 기존 지역복지 네트워크에서는 목적에 맞는 자원을 조사하여 기존 네트워크와 연계 가능성과 의제 창출의 준비정도를 파악한다.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기존 자원들을 접촉하며,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도메인(domain)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Hardcastle et al, 1997:286). 강점관점 사례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네트워크 자원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들을 살살이 찾고 함께할 내용을 탐색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자원연계 그 자체에 집착하기보다 ‘지역 아동’을 위해 함께 할 자원들의 의지와 그 동안의 사적인 협력 경험들을 끌어내어 네트워크를 통해 공적관계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지역사회 비전을 ‘자원이 아니었던 자원들’과 공유하는 방법론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었다.

셋째, 네트워크 실행단계이다. 기존 네트워크 실행단계에서는 네트워크 영역에 합의하고 누가 어떠한 욕구, 기술, 자원 등을 가지고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합의한다. 참여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상호호혜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교환의 대칭성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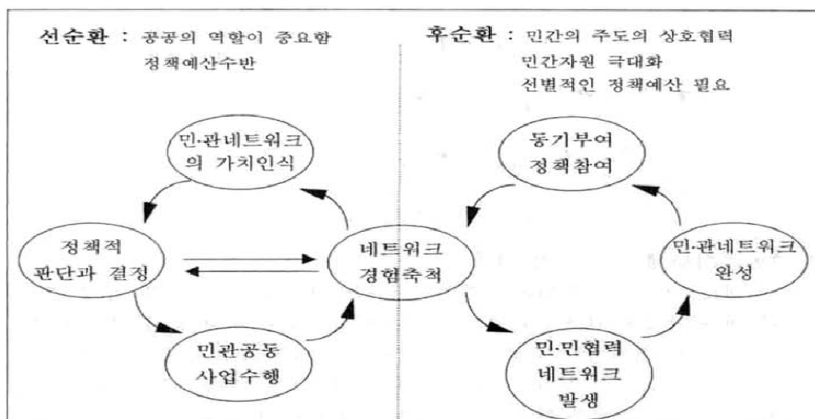
이를 위해 조직내외의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김영중 외, 2008, 43-49) 강점관점 사례관리 지역복지 네트워크에서는 기존 네트워크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원 간 ‘영역에 대한 합의’과정이 사례관리의 주체인 이용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네트워크의 적합한 크기와 유형 또한 이용자가 연계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해 나갔다. 또한 기존 지역복지 네트워크에서는 ‘외부 자원들이 제공하는 일방적 관계’를 중심으로 교환의 대칭성과 공평성을 다루었다면 강점관점 네트워크에서는 ‘이용자도 자원으로 서 주고받는 쌍방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존 네트워크에서 다루고 있는 기관 간 대칭성의 시각을 확장하고 있는데, 서비스 이용자도 자원의 교환 주체로 적극적으로 등장시키면서 지역사회 자원의 확장된 균형과 대칭성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끝으로 네트워크 유지단계이다. 기존 네트워크 실천과정에서는 네트워크 결과를 공유하고 가치를 평가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상호부조로 발전하기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상호의존성과 참여조직의 변화에 대해 네트워크를 통제하거나 새로운 중심성으로 변화를 꾀한다(Hardcastle et al, 1997). 강점관점 사례관리 네트워크 실천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이용자가 네트워크 일부로서 직접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면서 자연스러운 네트워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지역사회가 다양한 영역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며’ 비공식적인 모임을 만들어내면서 자생적인 이웃망으로 넓혀져 감에 따라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의 유지보다는 지역 자원 간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공유하고 유연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책임의식’을 키우고자 하였다. 강점관점 네트워크에서는 기존 지역복지 네트워크 실천에서 사용하는 이미 구성된 네트워크 형식을 통제하는 방법보다는 내용적으로 자원들이 연계되는 방법을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이 강점 관점 지역복지 네트워크 실천 관점은 기관 간 거시적 연계체계의 구성, 사례에 대한 지원체계의 구성을 넘어, 지역사회의 건강성 회복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용자를 ‘도움을 받는 존재’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존재’로 전환하고 ‘지역자원이 동반자’로 성장시켜, 지역주민, 이용자와 가족, 기관과 사회복지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창의적인 실천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5) 육성 및 안전망 컨소시엄 네트워크(강서구 강서푸른이학교)

청소년 육성 및 안전망으로서 ‘강서푸른이학교’ 모델은 강서구가 2006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여러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하였는데, 이중 아동·청소년 분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 문제를 논의하도록 모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대부분 관이 주도하는 민·관 협력회의가 형식적이라는 인식 속에서 아동·청소년 분과가 출범하였지만, 기존의 교육복지사업을 비롯하여 여러 네트워크 사업을 통하여 얻은 경험들이 민간기관들 간의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였다. 이는 그 동안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도 자원이 부족한 형편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협력하여 갈 여력이 없었을 뿐 잠재된 네트워크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주요하였다.



출처 : 김정울·권일남(2009). 청소년 육성 및 안전망으로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모델연구

[그림 6] 민관 협력 네트워크 형성의 순환고리

그 동안 경험하였던 네트워크 사업들이 예산을 수반한 관의 정책적 움직임에 따라 잠시 협력하고, 연계하는 정도의 산발적인 네트워킹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 예산을 수반한 정책적 네트워크 사업이 기관들에게는 강제성과 통제력으로 작용하여, 역으로 민간기관 간의 자발적인 네트워크를 방해하는 피로감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분과의 경우 회의 구조이며 비예산 사업이지만, 지방정부의 복지계획 수립 즉, 정책적

활동 계획에 참여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민간기관들의 적극적 대응을 유도했다. 따라서 민·관 협력 네트워크 사업과 같은 경우 정부예산을 통한 강제성 보다는 충분한 필요성과 충분한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강서푸른이학교가 여타 청소년사업과 다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운영주체가 어느 한 기관에 의해서 실시되거나 몇몇 기관의 연계사업형태의 단순한 기관 네트워크 사업을 표방하는 것이 아닌 견고한 ‘컨소시엄의 구축’과 이를 통한 하위 네트워크 확대를 모색하고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을 공고히 함으로써 ‘강서푸른이학교’가 운영될 수 있게 하고 있음이다.

이는 사업의 자원을 공동으로 분담하고자 하는 기관들의 신뢰가 공고하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실제 ‘강서푸른이학교’사업의 자원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유치함과 동시에 각 개별기관이 개별사업에 있어서 대응 예산을 책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각 기관들이 톨게이트 모금에 참여하고 주민조직화를 통한 공동의 뿌리리모금활동을 전개하고자 계획하는 모습에서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컨소시엄 구조는 향후 민간기관의 네트워크 사업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즉 서로 기능이 다르고 기관의 비전이 다른 기관들이 모여 ‘컨소시엄’을 구축함으로써 하여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공동의 명제 아래서 상호 협력하며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나가며 기관 자체로도 역량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강서푸른이학교는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모델이 결국 청소년에 대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때 ‘강서푸른이학교’사업은 타 지역사회에 청소년 육성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이 타 지역에도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결국 민간 기관들이 자발적인 연계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유기적 협조가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견고한 컨소시엄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강서푸른 이학교의 모델은 민간 네트워크가 주도하며 민·관의 원활한 협력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지역의 모든 자원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함께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와 조직화를 추구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6) 시민단체 지역운동 네트워크(광주시 YMCA)

이 시대의 화두인 마을만들기 운동은 이제 각 주체인 주민, 행정, 전문가, 시민단체가 이론적 역할이 아닌 실천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은 마을만들기 참여와 역할에 있어 한 발짝 다가와야 한다. 행정은 효과적 지원을 할(즉, 지방자치단체별 마을만들기 조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전문가는 비전이 있는 마을을 만들어 내도록 현장의 조연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NGO는 지속적인 중개활동자로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운영하는 등 마을만들기 활력소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이들 네 주체의 책임성을 담보한 역할이 파트너십으로 이행 되었을 때 마을만들기 운동은 성공된다고 본다.

광주YMCA는 마을만들기 운동의 지속화와 주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좋은동네만들기운동 7년의 활동경험과 좋은동네 시민대학의 운영의 실천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운동의 지침서가 될 '주민의 손으로 좋은동네를 만들자'라는 책을 2006년 출판하였다. 또한 동 단위의 주민조직과 네트워크를 강화와 지역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광주YMCA가 간사단체가 되어 18개 시민단체와 함께 2006년 11월 '살기좋은 광주만들기 네트워크'를 창립하였다.

좋은동네만들기 학습결과 주민자치의 좋은 방법으로 좋은동네만들기는 제도의 완비와 재정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보다 우선되는 일은 지역공동체 좋은동네만들기에 여럿이 함께 일할 줄 아는 인재, 이런 변화추진자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파트너십으로 운영되는 좋은동네시민대학을 설립했다.

좋은동네시민대학의 구성체는 상호작용의 파트너십이다. 핵심주체는 주민이다. 주민을 중심에 두고 행정, 전문가, 시민단체가 둘레가 되어 상호작용을 도모하는 역할분담의 파트너십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은 참여와 역할로 주민자치의 주인공이 되고, 행정은 관련법에 따라 효과적인 재정 지원을 도모하고, 전문가는 전문성을 성실하게 발휘하여 학습을 이끌고, 시민단체인 광주YMCA는 시민대학운영 실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이렇게 모두의 역할이 중요한 파트너십으로 구성된 시민대학은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공동체 세우기에 이바지한 실천력과 지도력을 함께 갖춘 인재, 변화추진자를 양성하는 일을 하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방분권을 견인하는 일을 한다. 이처럼 좋은동네시민대학 구성체는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어 더욱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7) 민·관 수평적 거버넌스 네트워크(군산시)

전북 군산시의 최우선 시정 정책은 ‘어린이 행복도시 만들기’사업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2015년 2월 체결하고,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프로그램에 동참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한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통합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지난 5월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추진위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및 학교 교직원, 관련학과 교수, 어린이 관련 전문가 등 50명으로 구성하였다. 추진위는 어린이 행복도시 실현에 필요한 추진방향 정립과 기본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군산시는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신규 33개, 사업확대 24개, 기존 3개 사업 등 총 60개 사업에 사업비 1,04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한다. 주요 사업은 ① 생존 분야(돌봄·보육·건강·친환경급식 제공 등) ② 보호 분야(안전한 환경조성 및 교육·복지서비스 제공 등) ③ 발달 분야(어린이를 위한 공간조성·창의력개발·특화활동 등) ④ 아동활동 지원 분야 등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추진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 전담부서인 ‘어린이행복과’를 신설하였다(뉴시스기사).

청소년 단체인 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은 군산시와 함께 청소년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친화적인 도시와 그들의 삶의 공간을 청소년들의 긍정적 공간으로 설계하고자 한다. 따라서 청소년이 이 사회의 참여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련한 지역의 다양한 기관시설과(군산금강노인복지관,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전라북도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 전북청소년수련시설협회, 아름다운 가게, 군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관과의 관계에서 민간입장의 수평적 거버넌스 형성을 통한 자율적 활동의 펼쳐 나갈 것이다. 이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8) 농촌형 아동친화(완주군) 및 참여네트워크 정책모델(광주광역시)

완주군은 2014년 12월 전국 첫 농촌형 아동친화 도시를 위한 유니세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 1월 아동친화 전담부서(교육지원과 아동친화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월 에는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은 지역사회의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주민에게 참여와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구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표 4>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구축(안)

구 분	역할	연계기관
행정협조	- 예산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관리	완주군청 교육지원과
연구모임	- 프로그램 및 행복지수 향상 프로그램 계획 - 활동 장소 협의 - 프로그램 운영 평가회의	실무운영자, 전문강사, 자연연계 기관 담당자, 참여 청소년 대표
업무협조	- 안전 관리,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봉사활동 터전 연계 등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프로그램 협조	- 활동 장소 제공 및 참가자 모집	완주관내 경로당, 복지기관, 완주마을 여행 사업단, 군부대, 장애인복지시설,

출처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지원신청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부자료

또한 광주광역시도 어린이 청소년친화도시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청소년친화도시 환경과 정책조성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모델개발과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교류활성화를 통해 파터너십 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과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친화마을 모델 개발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축 및 운영과 청소년중심의 참여 정책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정책추진 인프라와 사업운영기관과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방안

1) 총괄적 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를 행정지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친화마을 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비전과 장·단기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예산 지원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사업의 상호증복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현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기능 중심이 아닌 대상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보다는 대상 중심의 정책 추진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각 부처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관련 사업을 총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 친화마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존의 청소년 정책과는 다른 의지를 보여야 한다.

실제로 여성친화도시의 경우는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정책 수립과 관련 조례 제정, 추진체계, 조성 매뉴얼 등 여성 친화 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서의 책임 소재와 역할이 분명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도 유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관부처의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은 사업의 초반기반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예산을 폭넓게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2) 중앙-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전달체계 구축

중앙부처의 체계적인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요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친화마을을 추진할 담당 할 주무부서의 명확성과 타부서와의 상호 협력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도 다르며 여성가족국의 한 분야로 속해 있어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특히 청소년관련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청소년 관련부서의 위상이 달라지고 지역의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예산이 달라지며,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 달라져서 청소년 정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끝나는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서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담당 부서의 정책 전달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친화마을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청소년 친화마을 사무국’ 운영도 적극 고려해볼 수 있다.

실제로 유니세프는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를 운영하여 각국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원을 총괄하고 있으며 청소년 참여를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소년 친화마을을 담당하고 책임 있게 이끌어 나갈 주무부서나 사무국이 신설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만들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장·단기적 관점에서 추진체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 차원에서는 조례 제정, 예산 확보, 전담조직 구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차원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사업공모, 교육 및 홍보, 전문가 위원회 운영 등을 전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향후 마을만들기 사업의 전면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만들기 정책은 주민과의 직접적 소통 강화 측면에서 광역자치단체 보다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군구 차원에서 조례제정, 예산확보를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의 기반을 다지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수행업무를 각 군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로 이관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지원이 마을만들기의 자생적 움직임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겠으나, 지나친 행정 위주의 지원이나 공공주도로의 강제성을 띄게 된다면 자칫 기존 네트워크 추진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발적 처리를 지원하는 선에서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어떤 지방정부 조직 하에서건 청소년 친화마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각 지방정부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다만 이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영향력이 큰 독립적 총괄 부서를 지정하거나 혹은 정책 조정위원회와 같은 조정 매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료화 할 수 있으며 역할 중복을 피하고 효과적인 의견조율이 가능해 진다.

3) 주민 주도 민·관 협력 네트워크 형성

최근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마을만들기에 대한 공공 지원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공공의 지원은 기존 민간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마을만들기를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행정적 간섭이 지나치게 될 경우에는 자칫 기존의 민간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에 공동체가 성장하는 경향을 보인 경우, 주민자치센터, 시민단체 등 공공에서 제공한 공간을 기반으로 하여 주민 자체역량을 강화하는 패턴을 보였다. 민간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조직 활성화에는 민간 주도의 사업 추진을 기반으로 공공에서는 최소한의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들 다수가 공공의 지나친 간섭을 우려한다는 점에서 향후 공공 지원 방향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대부분의 마을만들기 추진주체들이 특정 활동 중심에서 공익적 성격으로 다변화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공동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마을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주민 스스로의 역량 강화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을기업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특정 리더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성향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의 지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민 자체적인 활동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기능 보완과 함께 적재적소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기획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주민이 주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지도 않고 청소년과 주민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의 평가기준에만 맞게 초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착오를 겪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 친화마을을 주민주도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 혹은 주민조직 등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에는 관심 있는 몇몇 소수의 주민만이 참여하는 형태가 아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차성란(2010) 연구에서도 마을만들기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역주민의 공동 관심사로 출발하여

다양한 집단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 지역별 특성화 및 차별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확한 현황 및 실태 파악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 친화마을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성장 환경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하며 청소년 영향평가를 통해 정확한 지역사회 진단이 필요하다.

실제로 익산시의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특성을 구별하여 차별적 전략을 세우고 있다. 또한 자원과 인프라가 지역사회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청소년 영향평가를 통해 지역사회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 친화마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모든 친화도시 추진 내용은 지역사정에 따라 다르고 추진방식도 다양하였다. 이것이 청소년친화마을 조성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청소년의 요구와 생활실태 파악이 요구된다. 문제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 친화마을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청소년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여건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를 적용하는 것은 지역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둘째, 지역자원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청소년 친화마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 가용한 자원의 범위를 토대로 청소년 친화마을의 추진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선적으로 개선이 요구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물리적 환경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체는 제한된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친화마을을 조성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제거되어야 할 지역사회의 위험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건강한 청소년의 발달과 여가를 위해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물리적 환경과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도 요구된다.

5) 지도자 네트워크 역량 강화

지역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실무자 중심의 친밀도와 네트워크 경험이 중요하다. 기관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를 받는 실무자들의 자발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최초 사업을 구안했던 노원구의 아동·청소년분과의 구성원은 실무자 또는 중간관리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이 중심이 되어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에 대한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그에 대한 자발성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실무자들로서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강서푸른이학교 사업도 살펴보면 아주 새로운 사업을 구안한 것 보다는 이미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6개 기관들의 기존사업과 많이 비슷하다. 다만 그 동안 필요하고 잘 할 수 있음에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사업을 지도자들이 총괄적인 입장에서 조율하며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에 하고 있었다하여도 자원의 부족으로 강서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없었던 사업 또는 그 대상의 폭이 좁던 사업들이 확대된 형태로 구성한 것이다. 이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개별기관의 입장에서 매우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통하여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감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이 개별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형태로 조정되는 지도자의 네트워크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개인적·사회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자원과의 연계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지도자는 각 인적·물적·시설자원 등의 발굴과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이기봉 · 김현철 외(2011) 창의적체험활동 지역자원연계 시업사업 매뉴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황옥경 외(2011). 청소년친화마을조성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경 외(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지역사회 진단 · 분석
- 김영한 외(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 서종균 외(2013). 성북구마을만들기 기본계획수립 연구, 성북구
- 김주희(2013).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영역별 지원체계 개발 세미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고광용(2014). 자치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6집2호
- 신중진 · 정지혜(2010).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의 역할과 과제, 정신문화연구 제36권 제4호
- 이왕기 외(2013).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의 활동유형 및 특성 도출, 국토지리학회지 제47권 4호
- 김경애(2009). 아동 · 청소년의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요소 및 원리,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3호
- 최종혁 · 이연(2007). 청소년보호 지역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지역사회리더의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22집
- 윤민화 외(2014). 강점관점 사례관리에서 지역복지 네트워크 실천과정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50집
- 정의춘(2007). 마을만들기 운동의 지속화를 위한 광주시의 동 단위 네트워크 구성과 주민교육 사례, 『도시와빈곤』 84호
- 김정율 · 권일남(2009). 청소년 육성 및 안전망으로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모델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4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네트워크 구축 방안

김 정 주 박사(모든학교체험학습연구소 소장)

최근에 군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우면서도 매우 다행스러운 변화이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말이 유행한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고, 입시지옥, 청소년폭력, 왕따, 자살 등 청소년 문제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청소년들이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보다는 주관적인 행복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졌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폭력, 비행, 왕따 같은 시급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나 시민단체가 발 벗고 나선 반면에, 청소년들의 행복, 건강, 즐거움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 했었다. 청소년들은 보다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해서 오늘은 좀 참고 견디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그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학교 성적이고 대학입시라는 논리가 지배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오늘의 행복을 잠시 미루면, 은행에 저축한 것처럼 이자가 붙어서, 나중에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한 시대인가요?

따라서 군산지역의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의 ‘미래의 행복이 아닌 오늘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고 기대 된다. 청소년의 오늘의 행복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삶에 대한 청소년 자신들의 생각의 변화, 청소년의 삶에 대한 부모와 지역의 인식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변화를 이루어내고자

1) 한국방정환재단(2014), 2014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하는 열망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주제발표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모형개발’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네트워크 구축방안’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발달하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서 ‘행정기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가 어떻게 협력하고 일해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두 분의 주제발표가 선행연구와 실천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 추진 시에 반영할 중요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여 사업수행 시에 참조할 매우 유용한 지침이다.

특히 “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여가생활을 즐기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적극적 청소년정책”이 필요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민·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 기획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주민이 주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제안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군산지역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을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에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행복하다는 것은 마음이 즐거운 상태이고 마음이 즐거우면 웃음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즉 마음의 즐거움이 행복이다. 그리고 즐거움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마음이 즐거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발견하는 즐거움, 좋아하는 일에 몰입이 주는 즐거움 등이 있다고 한다.²⁾ 이것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할 점이다.

앞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 여러 사업들이 기획되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사업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스스로가 마음이 즐겁고,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일일 때 비로소 청소년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사업은 청소년의 행복에 기여하지 못한다. 청소년이 중심에서 빠져있고

2)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2011), 행복교과서, 서울: 월드김영사·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성인들이 중심이 되는 사업들도 청소년의 행복에 기여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될 사업들은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 중심으로 기획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인생의 기초체력이다.”라고 한다.³⁾ 즉, 행복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군산지역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스스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복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학교공부 이외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나 사회 전반적으로 모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 스스로가 마음이 즐겁고,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때 행복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부모와 사회 전반에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청소년 스스로도 즐겁고 의미 있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질 수 있게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사업들에 청소년 스스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잘 알리고, 참여하기 쉽게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에 대하여 격려하고 보상하는 등 청소년의 관점에서 다양한 지원방안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청소년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고려해서, 개인의 맞춤형 지원이 되어야 한다.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여서 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는 행복하게 느끼고 누구는 그렇지 않게 느끼기 때문이다.

셋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는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지역사회 문화를 만드는 사업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3)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2011), 행복교과서, 서울: 월드김영사 ·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청소년참여와 권리를 신장하는 등 다양한 정책사업들은 필수적인 사업들이다. 과거에도 있었던 사업들이지만, 이번 기회를 기점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보다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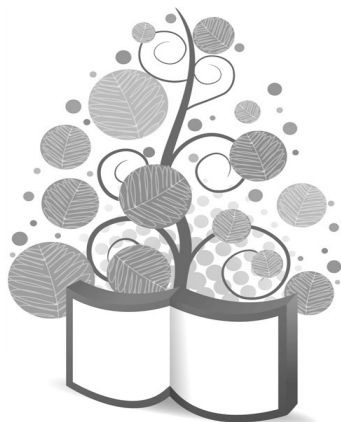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때,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사업들이 획기적인 공공예산의 확보가 쉽지 않고, 또한 예산지원의 지속성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예산에 의존한 사업들이 형식적이며 성과위주로 관리되면서 사업의 존폐에 따라 과거의 노력조차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 뿐만 아니라 사업기획 및 계획수립 단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철학이나 원칙들이 사업실행 단계에서 모두 사라지고 그저 비슷비슷한 행사만 남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일이나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도전하고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미래를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교 공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역사회의 모든 성인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러한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지역사회 문화를 만들고 정착시키는 것을 핵심사업으로 설정하였으면 한다.

특히 청소년의 행복감과 삶의 질에 가장 밀접하고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가정과 부모, 그리고 교사나 청소년지도자들이다. 청소년 자신과 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근본적인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관리 및 운영 방안

- ▶ 발표자 : 김 세 광 (고신대학교 교수)
- ▶ 토론자 : 배 정 수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관리 및 운영 방안

김 세 광 (고신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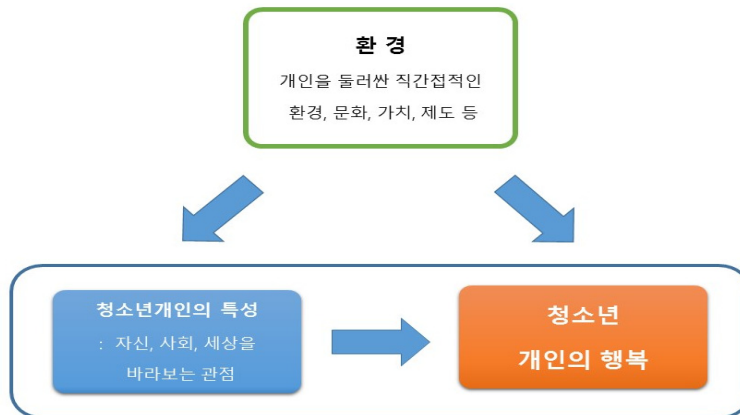
1. 들어가며

모든 청소년들이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행복의 서열화에 있다. 각각의 개인에게 고유한 주관적 행복은 더 이상 행복이기 보다는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행복, 즉 물질 만족의 행복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행복을 자신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과 비교함으로써 행복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된다(홍병선, 2012 :9). 서열화와 경쟁구도 속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의 행복’은 보장 될 수 있는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관리와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질문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안전과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원한다. 특별히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안정감과 주변의 인정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과정에서 길잡이가 되며,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리와 운영방안’은 행복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행복이 공동으로 보장 될 때 가능하다.

장근영 외(2013:32)는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에서 청소년의 행복을 “청소년 시기에 갖는 개인적 특성을 바탕으로 외부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치와 삶의 소중한 의미를 인식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과 기쁨이 충만한 상태”라고 정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대입하여 정의해 보면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적의 생활환경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사회”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각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아야 한다. 개인을 둘러싼 직간접적인 환경, 문화, 가치, 제도 등 청소년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의 특성과 만나 청소년의 행복으로 창출 된다. [그림 1]은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출처: 장근영 외(2013:31), 재구성함

[그림 1] 청소년의 행복과 개인특성 및 환경과의 관계

[그림 1]에서 청소년 개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환경적 요인에 해당하는 부분과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을 연결 시켜 청소년의 행복이라는 결과물로 창출하는 것을 ‘관리’의 차원에서 해석해 보고자 한다. 관리의 운영에 있어 주체는 정책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이를 재정하는 인적자원에 있다. 이는 지역사회 인적자원의 창출, 구성, 배치를 통해 효율적 인적자원 활용방안도 함께 제고해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고의 목적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을 관리하며 청소년의 행복을 창출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이를 위한 실천 목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회복적 정의의 개념을 제시하고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의 화합에 근거한 권리를 실천하는 방식을 도모해 보는 것이다.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관리와 운영을 위한 회복적 패러다임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첫째, 청소년의 성격적 특성과 외모, 건강과 같은 외적인 특성까지 포함하는 개인적 특성과 둘째, 가정의 경제 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교육정도, 결혼가정의 여부, 종교, 가정의 화목, 부모-자녀 관계, 부모양육태도, 가족지지 등을 반영하는 가정적 변인과 셋째, 청소년기 거의 모든 생활의 중심인 학교변인과 넷째, 지역에 대한 만족감, 다양한 여가생활, 사회·문화·정치적 환경 등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변인을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장근석 외, 2013: 19-25).

청소년은 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통합적인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포용과 회복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가능하다. 먼저 청소년 개인적 특성에서 보면 청소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부정적인가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정도, 자아효능감, 우울감등을 판명할 수 있다. 다음은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행동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거나 안정감을 느끼거나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 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 삶의 중심인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생생활지도를 보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중심의 응보적정의를 실시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발적 책임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가 아니다. 청소년 개인과 가정, 학교는 지역의 중요한 요소이며 각각의 신속한 운영을 위해 응보적 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공동체의 각 요소가 회복되고 청소년이 그 공동체에 통합될 수 있는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회복적 정의가 한국에 소개될 때 당시 배임호(1995)는 범죄문제 해결과 교정의 상황에서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이후 회복적 정의는 교정연구 분야와 학교폭력과 갈등조정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소개되고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이순례, 2007; 이호중, 2007; 배임호·김응수·하태선, 2011; 서정기, 2011; 장규원·윤현석, 2011; 박숙영, 2012; 류혜옥·박옥식·김세광, 2014).

장규원(2014)는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주민을 참여시켜 주민들이 범죄사실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갈등 해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4년 연구보고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에서는 회복적 정의에 관한 사회적 인식도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을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과 관리'를 위한 확장된 개념으로 인식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과 관리를 위한 실천적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1) 회복적정의

회복적 정의에서는 범죄를 단지 법의 위반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가해자가 피해자나 지역사회 또는 그 자신에게 입힌 피해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한다. 즉 범죄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가해자 모두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개인 간의 갈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범죄로 인해 야기된 상처를 치유하면서 피해자, 가해자 및 지역사회 모두를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이종원, 2011: 889). 회복적 정의의 최대 관심은 관계성에 있다. “관계”와 회복적 정의는 연결 되어 있다. 즉,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 회복적 정의와 관련된 관계의 구조를 보면, 회복적 정의의 조정자 혹은 단체를 중심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와 관련된 사람들, 가해자와 가해자와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지역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다. 만일 학교폭력이라는 사건이 거주지 주변에서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은 나와 관련이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폭력 발생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실 만으로 불안감을 호소할 것이다. 이러한 단적인 예를 통해서 보더라도 정의의 회복적 실천은 단순한 관계의 구조가 아닌 공동체적 관계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공동체적 관계 구조라는 맥락은 회복적 정의의 실천 원리가 뉴질랜드의 마오리족과 북미의 원주민 등의 토착 전통에 그 기원을 두고 발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회복적 정의 혹은 회복적 사법은 각국의 사법 환경과 문화적 토대에 근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실천모델들이 개발되고 발전해 왔다(서정기, 2011: 22-24).

회복적 정의는 범죄로 인한 피해와 그에 따른 요구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그 초점을 회복에 둔다. 회복적 정의는 범죄를 사람과 관계에 대한 침해로 본다. 정의가 추구하는 목적은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의 잘못을 바로잡고, 화해를 촉진시키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의는 손해를 배상하고 치유를 촉진하는 것이다. 정의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과 동시에 손해의 회복, 화해, 안심할 수 있는 상태의 촉진 등 그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회복적 정의가 요구하는 바는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해악을 이해하고 인정하여 비록 불완전하거나 상징적이더라도 그러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피해를 회복하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복귀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한 회복의 과정에서 공동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동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이종원, 2011: 890-891).

회복적 사법은 전통적인 처벌적·응보적 형사사법체계가 지닌 비효율성과 적대성 및 피해자 필요에 대한 배려부족 등에 반론을 제기하며, 대립적 소송과정을 통한 강제적 해결책의 ‘부과(imposing)’보다는 당사자들 상호의 이해와 합의에 근거한 문제의 ‘해결(solving)’과 ‘치유(healing)’를 강조한다(김은경, 2006:1170).

그러나 실제적 피해 당사자는 사법과정에서 배제되고 피해자의 요구와 회복은 부차적이 된다. 피해자는 사법절차에서 증언자로서 부수적인 존재로 인식될 뿐이며, 사법과정에서 소외된다. 가해자 역시 피해자가 어떠한 고통을 겪는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규범의 위반이라는 추상적 이해에 머물게 된다. 나아가 응보적 사법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기에 사법절차에서 양자의 관계적 화해가 추구되는 것도 아니다(Zehr, 1990/2011: 19 재인용). 이런 식의 응보는 피해자가 가진 분노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폭력의 악순환만 초래하게 된다(이종원, 2011: 887).

이러한 처벌 중심의 사안처리로 인해 가해자는 잘못된 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응보적 처벌로 책임을 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용서와 화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이를 위한 가해자의 구체적인 책임수행은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서정기, 2011: 3). 오히려 바람직한 응보의 정신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슬픔과 상실감을 이해하고,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와 소망을 주며,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가해자를 교화하고, 상처를 겪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 회복적 정의이다(이종원, 2011: 888).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가장 대중적인 정의는 “범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해악을 치유할

목적으로 함께 모여 논의하는 것(김은경·이호중, 2006: 173)”이다.

회복적 정의는 범죄로 인한 피해와 그에 따른 요구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그 초점을 회복에 둔다. 회복적 정의는 범죄를 사람과 관계에 대한 침해로 본다. 정의가 추구하는 목적은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의 잘못을 바로잡고, 화해를 촉진시키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의는 손해를 배상하고 치유를 촉진하는 것이다. 정의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과 동시에 손해의 회복, 화해, 안심할 수 있는 상태의 촉진 등 그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회복적 정의가 요구하는 바는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해악을 이해하고 인정하여 비록 불완전하거나 상징적이라도 그러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피해를 회복하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복귀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한 회복의 과정에서 공동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동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 응보적 정의는 적대적으로 가해자를 비난하고, 응보라는 목적과 절차로 정의에 접근하는 반면,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 상호간의 관계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응보적 정의관이 과거 지향적이라면, 회복적 정의관은 미래지향적인 특징을 지닌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는 반면, 미래는 현재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다(이종원, 2011: 890-891).

2) 회복적 생활교육

회복적 정의가 갈등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일상의 교육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회복적 생활지도’를 통해 가능하다. 회복적 생활지도 혹은 교육이란 “잘못된 행동을 방지하고 차단하려는 기존 학생생활지도 방법에 더해 삶을 보다 책임감 있게 살도록 가르치는 방식이다 (Amstutz and Mullet, 2005/2011, 28).” 한마디로 정리하면, ‘회복적 정의의 가치와 신념에 기초한 생활지도를 의미’한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잘못된 것에 대한 반성과 잘못된 행동을 다시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잘못”이란 “관계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보고 공동체 구성원이 피해 회복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삶의 정황과 맥락에 근거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의 회복을 추구하고, 사건으로 인한 당사자뿐 아니라 이로 영향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과정에 참여하며, 자발적 참여를 통해 당사자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고 수행하는 과정을 거친다(박숙영, 2012).

회복적 생활교육에서의 교사는 지배자 모델이 아닌 파트너 모델로 답을 주며 가르치기보다는 통찰과 경험의 나눔을 가능하게 하는 촉진시키는 자의 역할, 갈등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에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평화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교사 권한 강화의 의미는 학생을 징계하는 강제력 강화가 아닌, 공감과 평화의 소통능력 강화로써 이해한다. 또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학생의 영역을 대신하지 않으며, 학생의 공간과 영역을 존중한다.

회복적 생활교육에서의 배움의 방식은 비폭력적 방식이며, 비폭력은 상대를 패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적대자 안에 있는 선함의 가능성을 끌어와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두려움과 강제를 통한 방식이 아닌, 적극적인 경청과 수용의 방식으로 자발적 동기를 이끌며, 관계적 배움의 방식이다. 즉, 힘을 빼앗는 방식이 아닌, 힘을 주는 방식이다(박숙영, 2012).

회복적 생활교육에서는 갈등에 대해 회피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갈등을 환영하고 드러내어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 갈등은 잠재된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하는 것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교육 현장에서의 갈등은 대립과 분열의 위험요소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규범을 익히고 책임을 배우며 서로가 협력하여 건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적 문제해결 역량을 기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갈등 자체는 파괴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으며 동시에 긍정적인 것도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된다. 사회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단절과 사회적 손실 및 피해를 발생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 오기도 하고 반대로 사회발전을 이루는 변화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원칙 : 로레인 스티츠만 암스텝츠와 주디 몰렛

(Lorraine Stutzman Amstutz & Judy H. Mullet, 2005/2011: 50-54)

- ① 관계가 공동체 형성의 중심이라는 점을 인식할 것
- ②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잘못된 행동과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할 것
- ③ 단순히 규범을 어긴 부분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
- ④ 피해자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할 것

- ⑤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제 해결방식을 활용할 것
- ⑥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도록 힘을 실어 줄 것
- ⑦ 책임감 키우기 등이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원칙을 바탕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체의 동의와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지도하는 교사와 학교의 응보적 시스템과의 충돌로 일관성 있는 생활지도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처럼 회복적 생활교육은 공동체의 이해와 합의, 그리고 협력이 중요하다. 학교 공동체가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학교에 회복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교육과정으로 학기 초부터 기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공동체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을 위한 운영이 요구된다.

첫째, 학교 공동체가 갈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과 시간, 공간 확보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합의해야 한다.

둘째, 교사의 평화적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능력에 대한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학생들의 경험을 위해 교사는 평화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 존중과 배려의 방식으로 학생들과의 관계 세우기를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소통과 공감 능력, 평화적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교사도 권위적인 문화 속에서 배우고 자랐고, 교사가 처한 교직문화도 여전히 경직되어 있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구조이다. 교사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직문화도 평화적이고 민주적이어서 교사가 자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지받고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고자 했을 때, 교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응보적 신념과 습관과의 싸움이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 온 제일 힘들다.

따라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 센터 운영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충분히 훈련되고 또 여기에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기까지는 아무래도 잘 훈련된 외부 전문가가 학교를 순회하는 것이 좋다. 교육청 차원에서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 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외부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회복적 생활교육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일정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무엇보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및 여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을 포함한 학교 내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한 회복적인 대응은 결국 교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교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심각한 갈등이나 교사가 갈등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학교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들은 결국 교사가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교사들이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충분한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회복적 생활교육은 단순한 기술이나 기법이 아니라 갈등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교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3) 회복적 패러다임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연계 사례

(1) 캐나다 엘마이라 사건

‘회복적 정의’가 구체적인 회복적 정의 실천프로그램으로 나타난 것은 1974년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으로 기록된 엘마이라 사건은 다음과 같다.

1974년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주의 키치너(Kitchener)의 작은 마을 엘마이라(Elmira)에서 십대 소년 두 명의 고등학생은 스물두 곳의 집을 돌며 창문을 깨고 자동차 타이어를 찢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들은 기물파손과 난동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이 지역의 보호 관찰관이었던 메노나이트(Mennonite) 교회 교인 마크 얀치(Mark Yantzi)와 동료 데이브 월스(Dave Worth)는 이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들이 피해자와 대면하는 것이 치유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법적 근거도 없었고 전례가 없는 이들의 제안은 판사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가해 소년들은 보호 관찰관과 함께 당사자들과 직접 만나 합의할 것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직접 피해자의 집을 일일이 찾아가 자신들이 누군지 밝히고 사과하고 피해에 대해 합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이사를 가서 연락이 끊긴 한 집을 제외한 스물 한 곳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사과하

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하였다. 그들은 봉사 활동과 현금 배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몇몇 가정은 이들의 직접적인 사과만으로 용서하고 합의를 해 주었다.¹⁾

이 사건 이후 작은 시골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에 주민들은 충격을 받았으며 막연한 공포로 두려웠지만 가해 소년들의 직접적인 방문과 사과는 마을에 안정을 가져다주었으며 가해 소년들은 계속 마을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일반 재판이었다면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어 소년들은 범죄자로 마을 공동체와 격리되어야 했지만 이 작은 사법 실험은 당사자의 직접적 갈등해결, 피해의 회복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재통합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캐나다 작은 마을의 사법실험은 캐나다 사법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캐나다에서는 다양한 회복적 사법 실무와 모델들이 개발되고 발전하였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약 1200개의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만 약 500여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의 참여자와 사건의 특징들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경미한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소년사건에 적용되는 비율이 높았다(서정기, 2011).

(2) 경기도 남양주 사례

남양주시의 경우 남양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한국평화교육훈련원의 도움으로 2011년부터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학교폭력예방 및 갈등조정 센터’를 신설하여 관내의 학교들과 학부모에게 ‘회복적 생활교육’ 강의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3개의 초중고 학교를 ‘회복적 통합시스템 학교’로 지정하여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회복적 생활교육에 기초한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다. 이 3개의 학교는 학교 내에서 폭력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뢰하여 전문진행자들의 도움을 받아 회복적 대화모임을 열수 있는 기회도 갖고 있다²⁾.

그 중에서 남양주 와부초등학교는 2014년 4월 1일부터 5학년을 대상으로 남양주 청소년 문화센터와 MOU를 통한 청소년 인성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혁신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이지만 예비 혁신학교 지정 후 해마다 와부초등학교 5-6학년의 고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1, 2 차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1차 올타임성 프로그램은 주1회

1)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회복적정의 워크샵 자료집(2013)

2) 자료제공: 한국평화교육훈련원 (www.kopi.or.kr)

2시간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되고, 1차 올틴품성 프로그램을 마치면 2차 친친톡 프로그램이 새롭게 시작되는 내용으로 4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루어진다.

1차 올틴품성 프로그램은 친구들과의 배려와 소통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그룹활동으로 구성되며 ‘내가 ~~라면’, ‘너는 배려왕’ 등의 아이들이 함께 활동하며 아름다운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1차에 이어 진행되는 2차 친친톡 프로그램은 학급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찾고 치유하는, ‘회복적 생활 프로그램’ 중심으로 주1회 2시간씩, 총 3회 진행되고 있다.³⁾

이와 더불어 남양주 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초, 기본, 심화교육으로 나뉘 총 36시간의 교육이 2014년 9월부터 12월5일 진행되었다. 교육은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학교폭력의 이해, 갈등전환의 이해, 갈등분석기술, 회복적 의사소통, 회복적 질문 만들기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회복적대화 진행자 양성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에 접근하는 매우 희망적인 관점을 갖게 됐고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갈등 문제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를 계기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라는 참석자들의 피드백도 전해졌다. 이들은 향후 3년간 학교폭력 없는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것을 서약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갈등조정센터의 친친톡지원단으로 활동하게 된다.⁴⁾

본 사례는 회복적 생활프로그램은 학교와 지역사회 민간단체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국내의 실제적인 모범사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회복적 정의 워크샵을 통해 역량을 개발한 지역의 학부모들이 주체가 되어 경기도 교육청에 제안한 민주시민 프로그램이 선정 되어 실시되고 있다. 아래 <표 1>은 회복적서클을 활용한 민주시민체험프로그램에 관한 자료이다.

3) http://www.gurinet.org/sub_read.html?uid=17220§ion=section3 구리,남양주넷(2014,5,23)

4) <http://kgmaeil.net/detail.php?number=57309&thread=22r12> 경기매일 (2014,12, 9)

<표 1> 회복적서클을 활용한 민주시민체험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민주적 회의 절차와 서클 토론							
프로그램 내용 소개	○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민주적 회의 모델 제안 -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한 기회와 시간 배정 - 다수결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 : 목적부합성과 실현가능성 - 소수의견의 존중 - 회의는 최고의 선택이 아닌, 현상황에서의 최선의 선택 - 결정된 내용에 대한 존중 - 퍼실리테이션과 회복적 서클의 결합 형태 ○ 공감을 통한 의견수렴이 있는 토론 모델 제안 - 토론은 전문가들이 찬반을 가르는 경쟁이 아닌 대중 의견 수렴이 목표 - 말하기보다 듣기(경청)의 중요성 - 토론의 질을 높이는 존중의 태도							
지원형태	■ 강의	□ 봉사	□ 공연	□ 체험	■ 기타 실전 워크숍			
지원대상	□ 초 (저학년)	■ 초 (고학년)	■ 중	■ 고	■ 학부모	■ 교사	□ 기타	
비 용	실비(방과후 강사비 수준)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년중							
신청방법	회보적정의 연구모임 담당자에게 신청(김00 010-****-****)							
운영시간	회의 모델 2시간, 토론모델 3시간(일과시간 내)							

출처 : 경기도 교육청 민주시민체험프로그램(2015)

○ 프로그램의 배경과 목적

회의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불편함은 목소리 큰 사람끼리 얘기하고 결론짓는 것이다. 하지만, 회의는 모든 참여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 가장 효과적이다. 불필요한 대립 없이 민주적 회의와 토론이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 일상생활이 민주주의의 발현과 연관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데 있다.

○ 주요 구성

- 회의와 토론의 의의 설명, 규칙 설명(약 40분)
-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실전회의와 토론(1시간 ~ 2시간)
- 회의모델의 적정인원은 10명 내외.
- 토론 모델은 50명 내외(인원이 많을 경우, 장비 및 진행자가 필요-비용 발생)
- 회의모델은 진행자 1명, 토론모델은 2~5명의 진행자가 함께 함
-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형태
- 주제는 참여자들이 직접 선정, 혹은 사전에 필요한 주제를 선정

(3) 세계최초의 회복적 도시 영국의 헐(Hull)시티⁵⁾

헐시티 Collingwood초등학교의 에스텔 맥도널드(Estelle Macdonald)교장은 “헐 시티에서는 9세 이상의 학생들은 누구나 회복적 정의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 영국의 헐시티 한 초등학교에서부터 일어난 회복적 패러다임의 실천은 도시 전체를 회복적 도시로 변화시켰다.

헐시티가 회복적 도시로 전환된 후 소년 범죄재범률이 50%이상 경감되었다고 한다. 회복적 정의는 결코 약한 처벌을 의미하지 않으며, 범죄 초기에서부터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접근이다. 헐(Hull)시티의 회복적 도시로서 성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 예산 절감효과 이다. 새로운 회복적 정의 관련 교육과 훈련을 위해 259,000파운드(약 4억5천만원) 예산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그 결과 350파운드(약 60억원)의 시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소년범 감소와 사법 및 교정비용의 감소로 인한 것이다.

둘째, 학교문제의 감소효과를 가져 왔다. 문제학생에 대한 학교의 적극적 대책마련이 95% 이상으로 향상되어 수업방해 행동은 90% 가까이 감소하였고, 한 학기당 약 6,000파운드(약 1억원)의 절감효과와 교사의 수업의 질이 향상 되었다.

셋째, 주민간의 분쟁이 비사법적 방식으로 풀어지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훈련된 진행자/조정자가 양성되어 지역분쟁에 개입하게 되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학교와 지역 공동체의 안정성이 향상되었다.

5) 자료제공: 한국평화교육훈련원(www.kopi.or.kr)

위 사례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가 지향하는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통합되어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발적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며,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2. 청소년 중심적 접근으로서 지역사회 관리와 운영방안

지역공동체와 청소년이 조화를 이루어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국제연합(UN)과 유니세프(UNICEF)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사항은 모든 과정이 ‘청소년 중심적 접근’에서 출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김지경, 2014:59).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으로서의 가치관과 지역공동체의 가치관으로서 회복적 정의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중심적 접근으로서의 지역사회관리와 운영방안을 위해 청소년멘토링과 기업가정신 실행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청소년 멘토링을 활용한 청소년 지원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연구’에서 정책 제언으로 제시한 바 있는 청소년의 행복증진을 위해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개발과 청소년시설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을 강화 시킨다(장근영, 2013:262)는 제안은 정책적 제안이자 청소년의 개별적 특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실천방안이다. ‘청소년멘토링은 보다 경험 있는 사람이 지원과 도전과제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성인기로의 이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발달적인 관계의 의미를 지닌다(위키피디아 백과사전, 2011).’ 청소년 행복 증진이 청소년 중심적 접근에서 출발한다면 청소년멘토링은 청소년멘티의 욕구와 필요에 반응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욕구와 필요 중 가장 먼저 보장 되어야 할 부분은 청소년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다. 청소년의 미래적 차원에서 진로지도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안전에 보장되고 있다는 전제에 의해 가능하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청소년이 자신의 가능성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재의 안전이 먼저 보장되고 청소년이 보호되어야 하며 그들의 잠재력과

역량이 개발 되어야 한다. 청소년 멘토링의 운영은 청소년의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가 다양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

(1) 청소년 멘토링과 운영의 원리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은 그들이 맺는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청소년기의 행복은 청소년들이 맺는 다양한 인간관계의 긍정 혹은 부정적 영향력에 의해 결정된다. 청소년은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가족관계에서부터 학교, 또래관계, 지역사회등 사회적 환경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다(김영한 외, 2014:145). 이를 위해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멘토는 멘토링 활동을 통해 다음 네 가지 주요 과업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첫째, 멘티와 긍정적인 관계를 설정한다. 둘째, 멘티가 삶의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과 지혜를 습득하고 발달시키도록 돕는다. 셋째, 멘티가 생활 속에서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도와준다. 넷째, 멘티가 다양한 상황에서 개별적인 혹은 집단의 사람들과 접촉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도와준다(오해섭 외, 2011:3).

멘토의 멘토링 활동의 핵심은 ‘긍정적인 관계’ 설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청소년 멘토링 활동의 실천은 청소년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과 더불어 청소년의 전인적인 역량개발에도 영향을 끼치는 활동이다. 청소년 멘토링을 실천하기 위한 원리는 다음과 같다(권일남 · 마상욱 · 김세광, 2014). ①상호성의 원리이다. 상호성은 멘토링에 있어서 청소년 멘티의 마음을 열고 멘토와 멘티가 상호성장, 상호작용, 상호변화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준다. ②의미찾기의 원리이다. 청소년 멘토로서 중요한 역할은 청소년들에게 의미를 찾아 주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삶의 ‘의미’에 대한 개념을 청소년이 원하는 삶의 방향에 맞게 설정해 주고 그 의미를 구체화 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③원리부여의 원리이다.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활동에서 일반적인 규칙을 찾도록 지도하고, 과거의 경험을 현재 그리고 과거의 경험과 연결시켜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멘토는 청소년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반성적 사고를 격려해야 하고, 청소년들이 경험과 생각을 종합적으로 사고하게 해야 한다. ④자기통제의 원리이다. 청소년들이 자신을 통제하고 욕구와 필요성 사이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자기통제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⑤자기정체성과 변화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청소년 멘토는 멘티에게 스스로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어야

하고 성장에 관해 기대하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변화를 받아들이고 즐기도록 지도해야 한다. 변화가능성과 변화에 관한 기대를 멘티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멘토링의 요소이다. ⑥자신감이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복잡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타인의 힘보다는 청소년 스스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주체적 문제해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⑦목표설정이다. 멘토는 청소년의 실행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목표의 우선순위와 변화를 도와야 한다. ⑧도전하기이다. 도전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와 어려운 것을 끈질기게 노력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신기하고, 복잡해 보이는 일들이 보편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도전정신의 원리를 실칭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필요하다. 기업가정신은 불확실한 미래와 두려움에 대하여 도전하는 정신이다. 이를 위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필요하다. 기업가정신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핵심 요소이다. 무엇보다, 청소년 멘토링에서 도전은 다른 멘토링 범주와 연결되어 있고 도전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⑨긍정적태도이다. 청소년 멘토는 어떠한 경우에도 긍정을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을 돕고자 하는 멘토는 스스로에게 “나는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인가?” 질문해야 한다. 멘토는 문제에 대한 긍정적 접근을 독려해야 하고 청소년의 부모에게 자녀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 선택, 전략을 갖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⑩소속감이다. 감정적, 인지적으로 소속감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어느 단체에 속해 있는지 소속감은 그 사람의 능력발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신이 속해있는 문화권에서 인정하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속성이고 자신이 속해있는 공동체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이 자신이 속한 지역공동체에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일은 청소년멘토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멘토링의 원리를 <표 2>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청소년 멘토링의 원리

멘토링 원리	내 용
상호성	▶ 상호성은 멘토링에 있어서 멘티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역할을 함 ▶ 멘토와 멘티의 상호작용, 상호성장, 상호변화를 기대해야함
의미부여	▶ 인간은 모두 필연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임 ▶ 청소년기에는 삶의 의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기 시작함 ▶ 급속한 변화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의미를 찾아주는 것이 멘토의 중요한 역할임
원리찾기	▶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활동에서 일반적인 규칙을 찾도록 지도함 ▶ 멘토는 학생들의 경험을 현재 그리고 과거의 경험과 연결시켜 생각하도록 해야 함 ▶ 멘토는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반성적 사고를 격려해야 함 ▶ 멘토는 청소년들이 경험과 생각을 종합적으로 사고하게 해야 함
자기통제	▶ 스스로를 통제(Self-Control)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줌 ▶ 더 큰 보상을 위해 현재의 만족을 지연할 수 있었던 아이들이 사회에서 성공을 거둘 확률이 높음
자기정체성과 변화	▶ 청소년 멘토는 멘티에게 스스로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어야 함 ▶ 성장에 관해 기대하도록 해야 함 ▶ 스스로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 ▶ 변화를 받아들이고 즐기도록 지도해야 함 ▶ 변화가능성과 변화에 관한 기대를 멘티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멘토링의 요소임
자 신 감	▶ 청소년들에게 복잡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함
목표설정	▶ 멘토는 청소년의 실행계획을 검토해야 함 ※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목표의 우선순위와 변화를 도와야 함
도전하기	※ 도전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와 어려운 것을 끈질기게 노력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 ▶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신기하고, 복잡해 보이는 일들이 보편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음 ※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필요함 : 불확실한 미래와 두려움에 대하여 도전하는 정신 :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 청소년 멘토링에서 도전은 다른 멘토링 범주와 연결되어 있음 ▶ 도전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 청소년들이 모르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어렵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도록 도와야 함 ▶ 청소년들에게 새롭고, 어려운 과제를 부여함으로 도전의 기회를 만들어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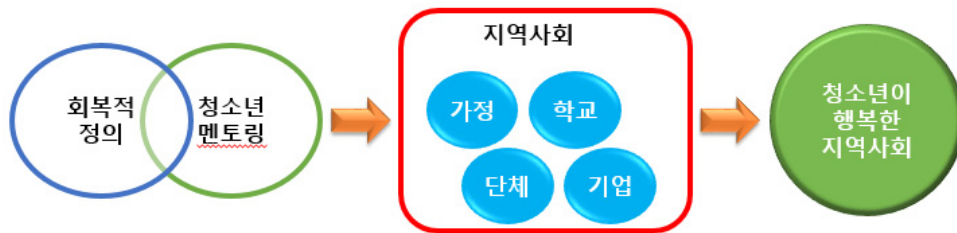
멘토링 원리	내 용
긍정적 태도	▶ 청소년 멘토는 어떠한 경우에도 긍정을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 ▶ 청소년을 돕고자 하는 멘토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함 : “나는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인가?” ▶ 멘토는 문제에 대한 긍정적 접근을 독려해야 함 - 청소년의 부모에게 자녀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 선택, 전략을 갖도록 알려주어야 함
소 속 감	▶ 감정적, 인지적으로 소속감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야 함 - 어느 단체에 속해 있는지 소속감은 그 사람의 능력발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 자신이 속해있는 문화권에서 인정하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속성임 ▶ 자신이 속해있는 공동체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알려주어야 함

(2) 청소년멘토링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

청소년멘토링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빈곤 및 소외계층·일탈 및 비행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 안전망의 효과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학습망 구축을 통해 지역내의 평생학습 기능을 수행하고 멘토링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대상 자원봉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멘토링 활동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청소년에 대한 관점과 마인드도 변화시킬 수 있다. 지역 내 다양한 멘토링 활동과 프로그램의 확산을 통해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문화뿐만 아니라 이들을 실질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시키는 효과도 있다(천정웅·오해섭·김정준·김민,2011).

국내·외의 다양한 청소년멘토링 연구에서 청소년멘토링이 이들 청소년들의 학업성취 개선, 문제행동 개선, 사회적 관계 개선, 사회 심리적 발달 등의 효과가 실제적으로 검증되고 있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청소년멘토링에 대한 요구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멘토링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으며 중·고·대학생 등의 청소년이나 성인, 주요 인사 등 청소년멘토링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멘토링의 수요에 대하여 각 정부부처를 비롯하여 청소년기관, 사회복지기관, 대학, 기업 등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또는 지원되고 있다(김경준·오해섭, 2011:3) 현재 각 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멘토링을 지역사회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인적자원을 지역자원으로 청소년멘토링 시스템을 지역사회 모델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그림 2]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청소년 멘토링 적용 모형을 구성해 본 것이다.



[그림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청소년 멘토링 적용 모형

청소년의 잠재력과 역량을 개발하고 청소년멘토링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자로서 멘토는 멘티의 상호성장을 이끌어내어야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의 역량개발이라는 요소를 멘토링의 구체적 변인을 이해하고 이를 정점으로 성장하게 만들어 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멘토가 청소년 멘티의 개개인의 역량에 대한 구성요소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대안으로 설정하고 개선해 내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멘토링의 목표를 정교화 할 수 있게 된다(권일남 외, 2014).

(3) 청소년활동멘토링 지역사회 적용 사례⁶⁾

① 청소년활동역량멘토링의 실행

청소년활동역량멘토링의 실행은 2012년 2학기를 시작으로 2014년 2학기 까지 3회의 걸친 청소년활동역량 멘토링 수업을 실시한 사례이다. 멘토는 부산의 A대학교 학생들이다.

실행연구의 과정은 청소년활동역량의 이해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만나서 멘토링하였다. 실행의 목적은 청소년 멘토링 수업을 통해 먼저 학습자

6) 본 사례는 연구자가 2012년 2학기~2014년 2학기 까지 A대학교 대학생 멘토들이 실시한 청소년 멘토링 실행 과정을 분석하여 청소년멘토링과 지역사회 연계방안에 적합한 부분을 정리함.

자신이 자신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하고, 청소년을 멘토링 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며, 실제 현장에서 멘토링을 실시하여 결과물을 완성한다. 청소년 활동역량 멘토의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멘티 청소년의 성장과 변화를 직접 도와주는 이론과 실천의 과정이다. 3년이라는 동안 3회기의 과정이 실시 되었고 이를 통해 대학생 멘토와 청소년 멘티의 상호성장의 경험과정은 변화와 성장이라는 구체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② 청소년활동역량멘토링의 진행 구조

청소년활동역량멘토링의 진행 구조는 다음과 같다.

- ☐ 청소년지도자인 멘토는 청소년 멘토링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역량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분석의 과정을 통해 멘토는 멘티의 전인적 이해와 청소년활동 구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 ☐ 멘토는 청소년활동역량 검사를 근거로 분석하고 청소년 멘토링 활동을 구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멘티의 강점역량과 약점을 파악하여 활동 과정에 반영한다.
- ☐ 다음은 멘토링 과정에서 나타난 멘티의 역량의 성장과 변화를 분석하여 종결을 위한 성찰 자료로 활용한다. 이 과정은 청소년지도자가 효과적인 종결과 지속적인 관리에 용이하며, 청소년 멘티는 각자의 역량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성장과정을 결과물로 얻게 된다.

③ 청소년활동역량개발멘토링 과정 분석 결과

2012년~ 2014년 청소년활동멘토링 실행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2012년~ 2014년 청소년활동멘토링 실행현황

	2012년	2013년	2014년
청소년지도자 멘토 (대학 재학생)	36명	22명	26명
청소년멘티	일반청소년 15명	일반청소년 10명	일반청소년 9명
			교육봉사 10명
	위기청소년 11명	위기청소년 12명	위기청소년 7명

④ 청소년활동멘토링의 실행

청소년활동역량개발멘토링의 실행 과정을 통해 멘토로 활동한 대학재학생들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확장된 개념을 갖게 되었다. 참가한 멘티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고 창의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청소년활동이라는 것을 실제 청소년멘토링을 실시하면서 통찰하게 된 것이다. 아래는 청소년활동역량멘토로 활동한 대학생 멘토의 자기성찰일지이다.

‘청소년 활동과 창의적 활동 연계’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제 주위의 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린 결론은 아직까지 청소년활동과 창의적 활동의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학적으로 또는 책을 통해 많은 정의가 내려져 있지만, 명확한 정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청소년 활동은 엄청나게 큰 범위이고 창의적 활동은 청소년 활동의 일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현재 활동 중이신 담당 선생님들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면 새로운 대안,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도 이런 문제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단어 그대로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활동 프로그램이 아니라, 색다른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창의적인 결과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의력이 발달되면, 역량의 8요소는 자동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만의 창의적인 방식의 청소년활동을 구성해 보고 싶습니다.

청소년활동역량개발 멘토 서기범의 자기성찰일지 2012년 2학기 11월

이처럼 청소년활동역량개발멘토링 과정은 멘토링을 실시하는 멘토의 청소년 활동에 대한 개념 확장과 주도적인 청소년활동 개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

또한 타인과의 공감능력에 도움을 주며 청소년멘티와 함께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다음의 멘토 자기성찰일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멘토링을 하면서 나 외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더욱 향상된 것 같습니다. 멘티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매 주 마다 고민하는 모습들도 저에게 있어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멘토링을 하면서 힘든

점들은 멘토링이 멘티의 눈높이와 바라는 점에 항상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간과해버리면 멘토 중심의 멘토링이 될 수 있으니까요.

2012년 14세 중1 일반청소년멘토링 이후 멘토 정은유의 자기성찰 일지.

2012년 12월 4일

⑤ 청소년멘티의 역량 개발

청소년활동역량개발 멘토링 과정은 청소년 멘티의 역량 개발에 도움을 준다. 청소년활동역량멘토링 과정의 첫 단계는 청소년활동역량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청소년멘티의 역량을 분석하여 약점은 극복하고 강점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구성하여 청소년멘토링을 실시한다. 8개의 청소년 역량의 하위 범주를 인지하고 난 후 청소년멘토링이 실시되기 때문에 멘토는 멘티의 변화의 양상을 구체화 시킬 수 있다. 다음은 청소년멘토의 자기성찰 보고서이다. 멘티의 자아역량과 성취동기역량의 개발을 인지한 보고서이다.

멘토링을 통하여서 나의 멘티는 자아역량과 성취동기역량이 많이 발달한 거 같습니다! 자존감이 낮았던 멘티는 이제는 많이 웃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고민합니다. 또한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하기위하여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변하여 가족들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진행과정 중 어려운 점은 자신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알다보니 아르바이트를 너무 많이 해서 멘토링 시간 잡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멘토링을 자랑하려고 자신의 친구들을 데려와 경제적인 부담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도 멘티가 많이 변화되어서 보람을 느끼며 감사합니다.

17세 학업중단 청소년 멘토링을 진행한 멘토의 자기성찰 자료. 2012년 11월

다음 자료는 청소년멘티의 태도 변화 뿐 아니라 멘토의 자세 변화에 대한 기록이다. [그림 3]은 아래 성찰일지를 기록한 멘토와 멘티의 첫 만남이다. 청소년활동역량개발 멘토링의 첫 시작은 멘토링 서약서를 작성하고 청소년멘토링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청소년활동역량멘토링은 내게 있어 여러모로 새로운 도전이었다. 멘토가 멘티를 가르치고 돕는 시스템인 것은 알았지만 일반적인 멘토링을 넘어선 보다 도전적이고 전문적 능력을 요구하는 과정이 생각만큼 녹록하지 않았다. 내게 있어 비행청소년들은 다른 세상의 아이들이었다. 나의 생활은 전적으로 올바른 안에서 존재해왔고, 어긋남은 내 삶의 사전에서 용납될 수 없었다. 그런 만큼 이들의 삶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겁내지 않을 담대한 마음을 갖기 어려웠다. 난 여전히 겁나고 초조해했을 뿐이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한다’는 말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순두부에서 단단한 두부정도는 된 것 같다. 무뚝뚝하고 참여율 저조한 멘티를 만나며 나도 참 많이 변했다. ‘나 돈 없다. 누나 거지야.’라며 용돈 지원받고자하는 네 의도따윈 몰라요~하는 선방을 날릴 용기가 생겼다고 할까?

그리고 전보다는 사근해진 멘티의 태도를 통해 변화에는 그저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보호관찰 2호 청소년담당 청소년활동역량멘토의 자기성찰일지 2013. 12. 5



[그림 3] 청소년활동역량개발멘토링 시작단계: 멘토링 서약서작성

⑥ 청소년활동역량개발멘토링의 지역사회연계 가능성

청소년 멘토링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보호 시설인 사법형 그룹홈의 청소년과 연계하여 실시되었는데, 2014년 청소년멘토링 실행은 공교육 기관인 초등학교에서도 실행되었다. 교육봉사를 하게 된 3명의 멘토들의 멘토링 실행은

청소년멘토링이 학교와 연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들이 교육봉사하는 초등학교에서 교육봉사를 담당 교사가 교감에게 청소년활동역량개발 멘토링으로 교육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멘토링팀의 사례를 전하게 되었다. 멘토들이 청소년활동역량 검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학생들과 상담하며, 매 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한 멘토링을 실시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 후 교감이 직접 멘토링팀에게 교육봉사를 실시하는 초등학교와 업무협약체결을 요청하였다. 이 학교에서는 다양한 교육봉사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었지만 청소년활동역량개발멘토링을 그 학교의 주요 교육봉사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자 A대학의 멘토링 실시 학과와 협약 체결을 제의한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청소년활동역량개발멘토링 모형의 학교연계 가능성을 보여 준다. 멘토들은 청소년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개발 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초등학교 교육봉사에 적용하였다. 교육봉사 대상자들은 학교에서 소외되거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교육봉사 시간을 기다리며 멘토들과의 만남을 통해 경험한 것들을 담임교사나 주변의 학생들에게 알리는 등 청소년활동역량개발 멘토링 시간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아래 [그림 4]는 신체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멘티들과 축구를 한 것이고, [그림 5]는 문제해결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책임기를 하는 것이다.



[그림 4] 신체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활동



[그림 5] 문제해결역량 강화를 위한 독서활동

교육봉사를 위해 학교에 배치 된 청소년활동역량개발멘토의 청소년활동 실행은 학교의 지속적인 요구로 이어지고, 청소년멘토링의 학교 연계를 위한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이 사례는 학교당사자들이 먼저 청소년 멘토링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보다 전문화 된 청소년 멘토링 활동이 구성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공급자중심이 아닌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질적인 향상과 만족도를 높이고 청소년이 원하고 그들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과 교육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김태균,2012:123). 청소년 중심의 활동 실천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핵심 원리이다. 청소년멘토링은 청소년의 개별적 역량의 개발 뿐 아니라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적용을 할 수 있다. 사례를 통해 위기청소년, 비행청소년과의 연계가 가능하고 공교육의 기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행 가능함을 볼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다문화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등 청소년들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멘토링이 가능하다. 이는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필요한 각각의 영역에 재배치하고 필요한 인적자원을 학교와 단체에서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행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청소년 멘토링 활성화를 통해 공교육 교사의 업무 효율성과 청소년 관련 지도자인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등의 전문 인력이 조화를 이루어 창조적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기업가정신의 실천을 통한 지역공동체 연계방안

현대사회에서의 권리는 공공복리의 이념에 의해 사회성·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으며(헌법 제23조), 그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통하여 권리행사의 한계가 설정된다(민법 제2조). 청소년과 지역공동체가 조화를 이루고 공공의 이익 추구하기 위한 실천적 운영방안으로서 기업가정신의 실천을 논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청소년 멘토링의 원리 중에서 ‘도전정신’의 원리의 실천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기반으로 한다. 무엇보다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는 청소년기 고유의 권리이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실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청소년 멘토링에서 도전정신은 다른 멘토링 범주와 연결되어 있고 도전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는데, 기업가 정신은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지역사회가 공동체로서 가져야할 덕목이다. 즉, “기업가정신은 영리조직이든, 비영리조직이든, 창업자이든, 조직의 구성원이든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가치창조과정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역량(장영화,2013:6)”이라고 할 것이다.

(1) 청소년기업가정신의 개념과 원리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며 다양하게 정의내리고 있다. 그 중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 받지 않고,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하여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배종태·차민석, 2009:113-4)”이라는 정의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이 개념에 청소년이라는 행복의 주체적 대상을 대입하면 ‘청소년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 받지 않고,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하여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며, 실천을 위해 청소년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정신’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행복의 주체자인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 시켜 지역사회에 공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준다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과 관리방식으로써 기업가 정신의 활용은 유용할 것이라고 본다.

(2) 청소년기업가정신 운영세부 방안

①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실시

개인, 단체, 기업 등에서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공모전을 진행함.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보급함. 프로그램의 지도를 위해 청소년지도자, 교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진로·직업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김영한, 2014:173).

현재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 비즈쿨

청소년 비즈쿨을 비즈쿨은 Business + School의 합성어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창업체험을 통해 미래 CEO를 양성하는 창업 프로그램이다. 2002년 처음 개설된 이래 비즈쿨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이나 대학진학 등의 진로를 얻 사례가 많다.

평소 앱 제작에 관심이 많았던 전우성 학생(18세)은 디지털 미디어고에 진학한 후

비즈쿨 교사의 권유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 창업노하우 등을 익혔다 말하고 있고, 미래 컨벤션 사업 CEO를 꿈꾸던 대구관광고 출신 김상훈씨(19세)도 자신의 꿈을 키우는 데 비즈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동아마이스터고 김진필 학생(18세)과 익산고 김영미 학생(19세)도 눈에 띄는 ‘비즈쿨 CEO 키즈’로서 비즈쿨 교육이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을 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청소년 비즈쿨-BizCool, 중소기업청,2014).

□ 동그라미재단⁷⁾

청소년 교육의 시대적 요구는 진로교육이라고 여기고 청소년들에게 ‘일과 직업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기업가정신(起業家, entrepreneurship)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진로탐색을 돕고자하는 단체이다. 청소년에게 기업가정신 교육이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겠다는 용기와 결심, 그리고 이것을 지금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시도해보는 현실적인 실천력, 그리고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지혜와 불굴의 의지력을 배우고 연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이를 통하여 자신의 꿈이 곧 자신의 일이 되는, ‘꿈=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동그라미 재단은 매 년 ‘1’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당선된 작품을 공개하고 있다.

□ IP KAIST 영재교육원⁸⁾

카이스트의 IP 영재기업교육원은 “빌게이트(MS), 세르게이 브린(Google) 등과 같이 지식재산에 기반을 둔 창의적인 기업가”를 양성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다. 기본적 학습역량과 영재기업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재들이 국가 성장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교육 및 지원시스템을 제공할겠다는 비전으로 영재교육차원의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토론 및 실제 프로젝트를 통한 미래 통찰력, 지식재산권, 기업가정신, 인문학적 소양 학습이 그들의 교육내용이며 모든 교육 콘텐츠는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7) <http://thecircle.or.kr/home/> 동그라미재단 홈페이지 (2015년 6월 10일 검색)

8) <http://ipceo.kaist.ac.kr/x/about> (2015년 6월 10일 검색)

□ oec 앙트십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⁹⁾

oec는 기업정신을 ‘앙트십’으로 명명하고 다음과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첫째, 문제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앙트십 : 문제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변화는 문제에서 시작된다. oec의 앙트십 교육은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둘째, 내 인생의 CEO로 살아가는 앙트십 : 어떤 상황에서든 주인의식을 갖고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앙트십교육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자기 자신이 CEO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셋째, 세상 속에서 해보며 배우는 앙트십 : 기회를 발견하고,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직접 실행해 보면서 배우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 oec의 기업가정신 교육은 기본적인 이론의 습득과 협동을 통한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면서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② 청소년상설프리마켓운영

청소년기업가정신은 인식적 수준이나 가치적 차원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청소년의 도전정신이 일상에서 구현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양식이다. 청소년상설프리마켓의 운영은 청소년들의 직접적 참여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동참하는 청소년기업가정신의 실천방식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상설프리마켓 운영은 “청소년들에게 자발적 경제참여를 통한 자신감 향상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규모의 안전한 공간 1회성이 아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리마켓의 상설 운영을 통한 청소년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영한, 2014:172).”

청소년들의 “프리마켓”장터가 대구 청소년 문화나눔마당에서 열렸다¹⁰⁾. 대구시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아르미청소년문화재단 대구경북지부가 주관하여 개최되었다. 청소년들의 문화마당에서는 목공예엑세서리, 수제비누, 큐믹엑세서리, 캐리커처 등 청소년 및 전문작가들의 프리마켓 25개 팀과 대구 관관고 학생들의 요리조리스쿨, 대중금속공고 학생들의

9) <http://oecenter.org/> : oec앙트십프로그램 (2015년 6월 10일 검색)

10) 오마이뉴스 ‘청소년들의 프리마켓 장터, 어시나요?’ 2010년 11월 14일 기사 (2015년6월11일 검색)

공기청향제 부스등이 운영되었다. 공연장에서는 다양한 공연도 함께 진행 되었다. 이 행사의 주관부서였던 아르미청소년문화재단 대구경북지부 류명구 사무국장은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함으로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끼와 재능을 발산 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하였다.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경제 활동을 체험하는 청소년 상설 프리마켓은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것을 팔아보고 시민들에게 평가 받고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2002년부터 시작한 홍대 앞 예술시장 프리마켓은 창작자가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그 안에서 창작자와 시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꾸준히 힘써왔다. 2015년은 프리마켓이 14년째 되는 해이다. 올해는 프리마켓 안에서 만의 소통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고, 문화를 잇고, 프리마켓의 가치를 널리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셋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생각지 못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 에너지들이 사회로 연결되어 다양한 가치가 만들어 지고 확산되고 있다. 2015년 홍대 앞 예술시장 프리마켓에서 다양한 창작자가 연결되고 세상이 연결되어 프리마켓의 가치를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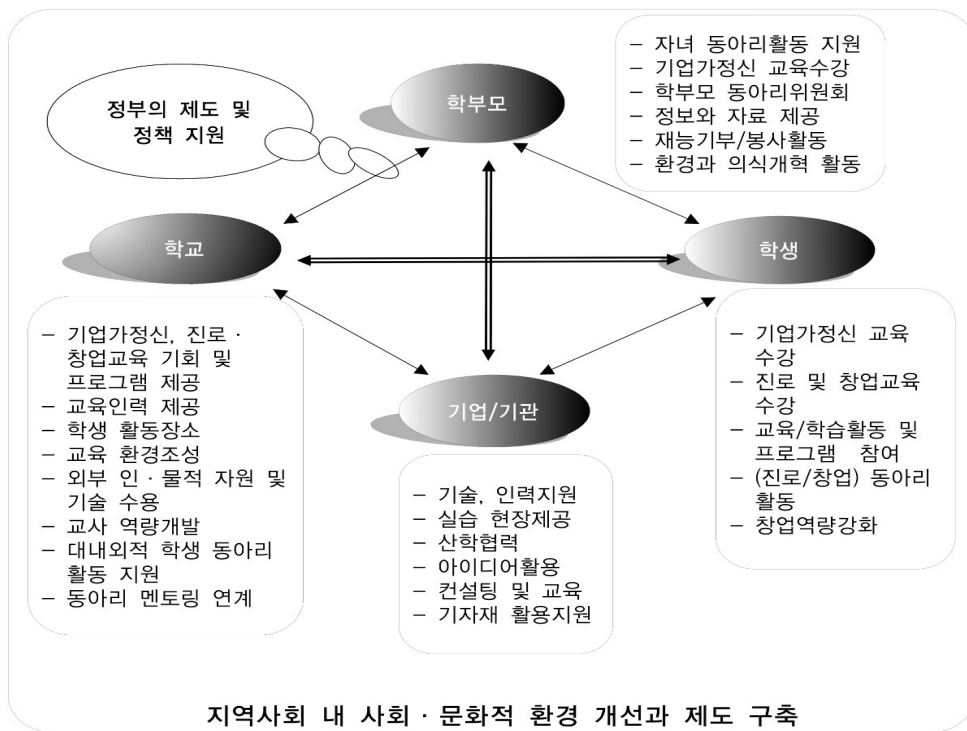


[그림 6] 2015 홍대 앞 예술시장 프리마켓 포스터

11) www.freemarket.or.kr 홍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 소개 참조

(3) 청소년기업가정신의 지역사회 연계 방안

오해섭 외(2014)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 개발을 위해 지역사회 내 모든 기관과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는 ‘청소년 주도형’ 기업가 정신 교육모형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7]은 지역사회와 내부적인 연계기관인 학교, 학부모, 학생, 기업과 단체를 연결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과 토대 구축을 위한 요청이 가능한 내·외적 협력 시스템을 보여준다.



출처: 오해섭 외(20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p.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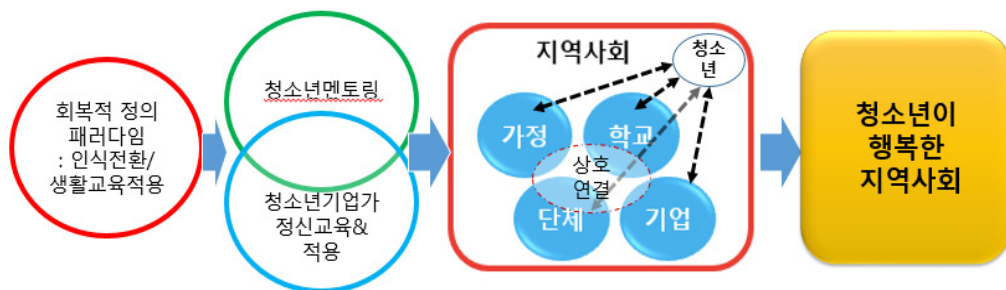
[그림 7] 기업가정신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시스템

청소년 기업가정신을 지역사회 안에서 연계하고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인 전환이 우선되어야 하며 인식적 변화를 토대로 삼아 지역공동체의 연계방안이 실제화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제시한 회복적 패러다임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청소년 멘토링으로

다양한 청소년들의 개별적 요구와 필요에 반응하는 상호존중적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멘토링 시스템이 가치적이며 인격적 지원에서 청소년과 지역사회를 연계하고 있다면,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실천은 보다 실용적이고 실제적으로 지역공동체의 동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 및 관리방안의 통합적 모델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동적으로 평등해지거나 행복해지지 않는다. 자존감을 갖고 남과 덜 비교하며 자기 성취를 공적인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때 보다 품위 있는 실존과 행복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김미영, 2009:316). 청소년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기 평가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개별적 존재감을 인정받으며 지역공동체 내에서 자율적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과 관리를 위한 지역의 가치와 개인적 가치가 회복적 패러다임으로 통합되고 청소년 멘토링 시스템과 청소년 기업가 정신의 교육과 실천은 청소년과 청소년을 둘러싼 지역공동체의 인식적 전환과 물리적 변화를 함께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하나의 모형으로 구성해 보면 [그림 8]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림 8]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 및 관리방안의 통합적 모델

【 참고 문헌 】

- 권일남 · 마상욱 · 김세광(2014),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의 이해와 실제, 학지사.
- 김미영(2009), 공동체와 행복,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307-317.
- 김경준 · 오해섭(201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패러다임전환을 위한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서울: 청소년 정책연구원.
- 김세광(2014). 스마트시대의 청소년 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학교사회복지. vol. 29.
- 김영한, 임영식, 김민(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Ⅱ: 청소년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은경 · 이호중(2006).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험연구(1). 연구총서. 36. 1-464.
- 김지경, 하현주, 김옥태(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Ⅱ: 지역 사회 진단 · 분석.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균(2012), 청소년활동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의식 매개효과 검증,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15-127.
- 박숙영(2012). 학교폭력과 생활지도의 새로운 대안 “회복적 생활교육(Restorative Discipline)”, 현장 적용 사례를 통한 확산 방안을 말한다, 좋은교사운동 교육실천 사례 발표 연속 토론회1 자료집.
- 배종태, 차민석(2009). 기업가정신의 확장과 활성화. 한국중소기업학, 31(1), 111-128.
- 배임호(1995).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전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교정연구.
- 배임호 · 김웅수 · 하태선(2011). 소년범죄자를 위한 교정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 관점.교정연구. 51, 229-251.
- 장규원(2014). 학교문제와 회복적 정의 모델에 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271-295.
- 오해섭 외(2011). 멘토교육프로그램.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해섭 · 맹연임(20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이순래(2007). 소년사법의 현황과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전략,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이호중(2007), 한국의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상), 한국형사법학회, 2007.

장근영 외(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류혜옥 · 박옥식 · 김세광(2014). 회복적 정의와 실제적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서울: 학지사

황옥경, 김영지(2011).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숙영 (2012). 학교폭력과 생활지도의 새로운 대안 “회복적 생활교육”, 현장 적용 사례를
통한 확산 방안을 말한다. 서울: 좋은교사운동 문서출판부.

서정기 (2011). 학교폭력에 따른 갈등경험과 해결과정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 회복적정의
(restorative justice)에 입각한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victim-offender mediation)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장영화(2013). 지식창조사회에 부합하는 기업가정신교육의 의미와 효과: ICT서비스를 활용한
교육사례를 중심으로.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세미나 자료집. 1-26.

홍병선(2012). 행복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교양논총. Vol.7, 6-34.

재영 · 정 Amstutz, L. S. and Mullet, J. H, 2005, 학교현장을 위한 회복적 학생생활지도,
이용진 역, 2011. 서울: KAP.

Zehr, H, 2011, Change Lens. 손진, 2011 ,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서울: KAP.

☆ 회복적 정의 교육과 프로그램에 관한 참고 사이트

한국평화교육훈련원	http://www.kopi.or.kr/index.php
비폭력평화교육센터	http://cafe.daum.net/NPTCenter/
비폭력평화물결	www.peacewave.net
광명교육연대	http://cafe.daum.net/kmed
회복적생활교육	http://cafe.daum.net/RD-goodteacher/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

배 정 수 박사(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부관장)

I. 들어가며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이며, 행복은 모든 인간이 지향하는 삶의 목적이다. 누구나 행복을 말하지만 정작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행복에 대한 정의(definition)를 가지고 있는가? 누구나 행복을 정의할 수는 있지만, 그 정의가 모두의 기준을 충족시켜 주지는 못한다. 행복에 대한 기준이 모두 다 다른 때문일 것이다.

인류 역사상 인간존재와 행복에 대한 연구만큼 방대한 연구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행복에 대한 연구가 이처럼 방대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확연히 더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행복’을 둘러싼 여러 담론들이 많아질수록 그 실체는 오히려 더 모호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행복을 논하는 이들은 과연 행복한 것인지? ‘행복’이 과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는 한 건지에 대한 회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행복’을, 특히나 ‘청소년의 행복’을 논하는 이유는 그 누구보다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미래를 희망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충족시킬 비결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더디 가더라도,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청소년의 행복에 대해 고민하고 그 실현방안을 논하는 이런 자리가 더 활성화되고 더 다양화 되어야만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토론을 시작하고자 한다.

II.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관리 및 운영방안

발표자께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회복적 정의를, 실천방안으로 청소년멘토링과 청소년기업가정신의 적용을, 그 실천현장으로 가정과 학교, 기업과 단체가 속한 지역사회를 제시하였으며 이 모든 요소가 효과적으로 결합한 결과물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임을 제시하였다.

주지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 변화는 다분히 사건, 사고에 대한 대응이었던 경향이 있다. 그런 이유로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는 미래지향의 성격보다는 드러난 문제를 방지하고 덮으려는 문제지향의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관계성에 최대 관심을 가지고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고민하며, 문제의 방지와 차단을 넘어 회복과 치유를 고민하는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회복적 정의는 문제 혹은 범죄를 사람과 관계에 대한 침해로, 정의를 손해를 배상하고 치유를 촉진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패자가 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미 사례와 연구를 통해 그 효과성이 검증된 청소년멘토링 역시 긍정적인 관계의 형성과 삶의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과 지혜를 습득하고 발달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활용하면 청소년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고 본다. 더불어 진로와 미래에 대해 고민은 크지만 마땅히 대처할 바를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스스로가 가진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 받지 않고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하여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청소년기업가정신의 교육도 스스로를 이해하고 가능성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의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다. 토론자는 발표자가 제시한 이러한 방안들의 유용성을 적극 지지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더하고자 한다.

1.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발표자께서 제시한 회복적 정의의 도입이 분명 의미 있는 시도임에는 분명하나 범죄나 일탈이 아닌 일상의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할 수 있을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폭력, 왕따 등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갈등의 장면에서는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생활교육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문제 상황만 해결하면 행복도가 높아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어떤 의미에서 청소년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가해자는 교육정책이다. 또 다른 상황에서는 부모나 지역사회 성인들이 가해자일 수 있다. 때로는 스스로를 비하하고 과소평가하는 청소년 스스로가 가해자일 수 있다. 회복적 정의에 대한 개념과 실천에 아주 능숙한 이들은 이런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행복은 다분히 주관적인 개념이다.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받아들이는 느낌은 각기 다르다. 상대적인 박탈감은 상황 그 자체보다 상황을 인식하는 개인의 태도에 기인한다. 도달하고자 하는 성취에 대한 적정 기준이 없기에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가운데 안정감을 얻으려고 한다. 결국 아무리 환경이나 여건을 좋게 바꾸어도 이를 받아들이는 개인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의 기준이 한꺼번에 충족될 일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는 ‘청소년’이라고 말하는 집단이 사실 너무나 많은 다양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정책은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정하더라도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약하다. 그런 고려가 가장 취약한 곳이 바로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라고 본다. 청소년의 다양성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스스로가 오롯이 지닌바 장점을 발견하고 이를 삶의 영역에서 위축됨 없이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즉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나’가 아니라 자기 삶의 결정권을 가지고 본질의 행복을 추구하는 ‘나’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수단이 운동(movement)이든 멘토링이든 학교 수업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했다. 치열한 노력의 끝에 절망만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정형편이 좋고 성적이 좋은 5%는 학교가 챙긴다. 개성이 강하고 스스로에 대해 자부심이 있는 5%는 알아서 자기 갈 길을 간다. 문제가 있고 일탈하는 5%, 사회적 약자인 5%는 사회복지와 상담과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교회, 사찰, 심지어 국제기구에서도 챙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없으나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형식적이다. 심지어 수많은 청소년 연구에서 이들은 그저 비교집단으로만 치부된다. 80%를 그냥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한정지어 놓고 방치하면서 청소년의 행복을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별한 청소년은 물론 모든 청소년이 ‘행복’에 대해 단

몇 시간이라도 고민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자기 삶에 대해, 본인 스스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탐색할 시간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을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2. 청소년 당사자와 지역 구성원들이 참여하여야 한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잘 실천되지 않는 것 한 가지! ‘모두가 함께’라는 말이다.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대부분 가장 먼저 하는 일중의 하나는 소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하는 일이다. 명망과 학식을 두루 갖춘 이들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들은 대부분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해 아주 이상적인 의견들을 제시하거나 시행된 사업에 대해 나름의 평가를 함으로서 그 생명력이 다하고 만다. 그러나 아쉽게도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를 꾸준히 발전시키려는 시도는 많지 않다. 더불어 멀리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무언가 비법이나 비결을 얻고자 한다. 기본 열개를 구성하고 부족함을 단시간에 채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이 토론을 하고 있는 토론자는 이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영혼 없는 전문가’일수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발표할 수는 있지만 지역의 상황이나 지역 청소년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은 부족하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겠지만 직접적인 노력이나 헌신은 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은 지역의 문제는 그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사회가 풀어야 한다. 청소년 행복에 대한 담론이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석구석에서 생성되어야 한다.

청소년이 타인의 눈에 비친 자기 모습을 고민하지 않고 오롯이 자기 삶에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고 하였다.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의 논의의 장에 청소년이 참가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위로받고, 지원 받고, 지도 받는 입장에서 위로하고, 논쟁하고, 성장하는 자리로 나설 수 있어야 하고, 그 나섬을 지역사회가 즐거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수련시설에 이미 구성된 청소년운영위원회, 각 학교의 학생회, 여러 형태의 동아리 등 무엇이든 청소년당사자가 모인 집단이 1년간만이라도 ‘청소년 행복’을 의제로 삼아 논의를 해보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대한민국에 청소년 특별회의가 있듯이 이곳에 ‘청소년행복회의’가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

3. 사람과 돈이 일을 한다.

성공한 네트워크에는 언제나 헌신하고, 연구하고, 발로 뛰는 실천가가 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두가 함께 한다고 하지만 모임을 주도하고, 정보를 가져오고, 끊임없이 연결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일의 규모가 작을 때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일의 규모가 크거나 대상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이런 희생만으로는 어렵다.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의 조직이라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다. 전 분야가 망라된 TF팀이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결국 책임지는 핵심이 없으면 길게 갈 수 없다.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생활교육,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멘토링,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 지역사회 곳곳에 ‘청소년 행복’의 가치와 방향을 알리는 설명회나 연수 등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 교사나 학부모 연수와 의견 나눔,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 수집과 공유, 공적인 기관간의 연대와 방향 설정, 타 지역의 좋은 사례의 발굴과 적용 등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들이 무궁무진하다. 지역의 모든 주체가 참여하되 그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이 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설득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속된말로 결국 사람과 돈이다. 시범사업 선정으로 받은 얼마간의 재원만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려 한다면 죄송스럽게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 사업이 누군가의 끊임없는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Ⅲ. 나가며

‘청소년의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느낌은 상당히 경쾌하고 가볍고 희망적이다. 그러나 ‘청소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하는 순간 아주 무겁고 힘겹게 변해버린다. 행복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지만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 쉽게 많이 찾을 수 있다. 행복의 정의도, 기준도, 행복으로 나가는 방법도 막연한 우리네 삶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의 염원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긴 시간의 부대낌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교육을 따라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과연 합당한 것일까? 영성의 부족함을 해소하기 위해 교회나 절, 성당을 더 많이 짓는다는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합당한 일일까? 자꾸만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꼭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우리 주변에 이미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연관시킬 것 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면 좋겠다. 각 학교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는 창의적체험활동이나 내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애초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것이 더 쉬운 접근이 될 수 있다.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큰 미션아래 각각의 비전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주식시장에는 ‘인간지표’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월가에서는 구두담이의 입에서 주식얘기가 나오는 것, 국내에서는 애기 엮은 새댁이 주식객장에 나타나는 것을 인간지표로 삼는다고 한다. 시장에서는 인간지표가 나타나면 주식을 팔아야 한다. 더 이상 관심을 가질 새로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일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는 이처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소년 행복’에 대해 너도나도 한마디씩 거드는 현상이 나타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해보며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 전략

인 쇄 2015년 7월 17일

발 행 2015년 7월 17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전화 044)868-7451 대표 류윤현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함.
